주체철학의 기본개념과 범주

사회과학출판사
주체 97(2008)년

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철학은 가장 독창적인 철학이다.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 그 과학성과 정당성을 옳바로 인식하자면 주체철학의 개념, 범주들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철학이 그러하듯이 주체철학도 개념, 범주들의 체계인것만큼 주체철학의 개념, 범주들을 잘 알아야 그에 담겨진 심오한 원리들과 내용들을 잘 알수 있다.

도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과 범주》는 주체철학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체철학의 중요한 개념, 범주들을 해설하였다.

도서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는것만큼 독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바란다.

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편

주　　체

주체는 주체철학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새롭게 확립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에서 쓰는 주체라는 용어가 선행고전가들이 쓴 주체라는 용어와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내용을 담고있다는것을 밝히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는 선행한 유물론에 의하여 세계의 시원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변혁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해결한데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범주에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적내용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주체철학에 의하여 주체범주가 새롭게 정립되게 되였으며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 주체의 참다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주체는 사람이라는 범주와 함께 주체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철학이 성립되게 하고 또 그것을 대표하는 범주이다.

사람위주의 철학이 확립되기 위하여서는 사람자체에 대한 옳은 리해를 확립하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것을 고찰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을 주체로 보고 주체로서의 특성을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범주를 떠나서 사람위주의 주체철학이 성립될수 없다.

주체는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범주가 아니다. 이 범주는 생물학적존재로서의 사람은 물론 그 무엇에 종속되고 순응하는 존재와는 인연이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볼 때의 사람을 념두에 두고 성립되는 범주이다.

주체철학이 밝힌 주체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설정된 범주이다.

철학의 사명은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으며 사람이 운명을 개척한다는것은 사람이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간다는것, 참다운 주체로 살며 발전해나간다는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정확히 밝혀야 할 철학의 사명은 주체철학이 주체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개됨으로써 옳바로 확립될수 있게 되였다.

철학은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혀주는데 그 본성이 있다. 주체범주는 그것이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관계를 반영하고있다는데 그 과학적해명의 중요성이 있다.

현실세계는 천차만별한 사물현상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그것들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로 얽혀져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관계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과 그밖의 다른 물질적존재들과의 관계인것이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지위와 역할의 관계보다 더 본질적인것은 없다.

주체철학의 기본범주로서의 주체는 바로 사람을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견지에서 표현한것이며 사람이 다른 물질적존재들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있는 존재라는것을 반

영하고있는것이다.

사람이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는 모든것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데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체철학이 밝힌 주체이다.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사존망과 발전전도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사존망과 발전전도에 관한 문제보다 더 큰 관심사로 되는 근본문제는 없다.

운명문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에 관한 문제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란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담당자, 자기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동력으로 되는 존재를 말한다. 즉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존재가 바로 주체이다.

자기 운명은 그 주인의 운동을 통하여 개척되는것만큼 자기 운명의 주인에 관한 문제는 곧 운명개척을 위한 운동의 주인에 관한 문제로 제기된다. 주체를 운동과 결부시켜볼 때에도 주체철학의 기본범주로서의 주체에 대한 리해는 단순히 운동의 담당자를《주체》로 본 선행철학들의 견해는 물론 의식적운동의 담당자, 인식과 실천의 적극적담당자를 주체로 본 선행한 맑스주의철학의 리해와도 구별된다.

주체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운동의 담당자문제와 함께 운동에서 차지하는 주체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바로 풀어야 한다.

지난 시기 주체범주가 옳게 정립되지 못한것은 중요하게 운동의 담당자문제와 그가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형이상학적유물론자들은 주체의 능동적역할을 부인하고 인식의 담당자라는 의미로만 주체를 리해하였다. 변증법적유물론은 주체를 인식과 실천의 적극적인 담당자로 봄으로써 주체의 능동적역할을 일정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변증법적유물론은 주체가 운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고는 보지 못하였다. 선행한 변증법적유물론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원리로

부터 인간의 운동은 결국 그 의식을 낳는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때문에 인간활동이나 실천활동, 사회적운동은 인간이 담당수행하는 운동이지만 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간자체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 물질경제적조건이라고 간주하였다. 이것은 선행한 맑스주의철학에서 사람이 인식과 실천의 주체, 사회적운동의 주체라고 말할때의 주체라는 범주가 사람이 운동의 주인이며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표현한것이 아니라 다만 인식과 실천, 사회적운동의 적극적인 담당자라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시말하여 변증법적유물론에서는 운동의 담당자문제와 운동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와 역할문제를 분리시켜 주체범주를 론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주체철학에서는 운동의 의식적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존재, 다시말하여 운동의 주인을 주체라고 본다. 비록 운동의 의식적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운동의 전 과정에서 결정적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때에는 주체를 밝혔다고 말할수 없으며 반대로 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자체가 운동의 의식적인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참다운 주체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력사를 창조하는것은 사람들이지만 력사발전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것은 물질적부의 생산방식,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놓고 주체철학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람은 력사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 간주되여있지 않기때문에 주체라고 말할수 없으며 생산방식은 력사적운동의 의식적인 담당자가 아니기때문에 주체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주체철학에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고 할 때에는 인민대중이 력사적운동의 의식적담당자인 동시에 력사발전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사람이 인식의 주체라고 할 때에도 사람이 인식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인식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존재를 주체로 보는 여기에 주체에 대한 리해에서의 선행철학에 비한 주체철학의 근본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주체철학에서는 운동의 담당자문제와 운동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와 역할문제를 분리시켜 주체에 대하여 론의하여온 선행한 철학들과는 달리 이 두 문제를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해결함으로써 주체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리해를 확립하였다.

주체철학의 기본범주로서의 주체는 결국 운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담당자를 말하는것이다. 주체로서의 지위는 곧 운동의 주인이라는것을 말하는것이며 주체로서의 역할이란 운동에서 노는 결정적역할을 의미하는것이다.

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결정적역할은 주체범주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가 운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담당자라고 할 때의 운동이라는 말은 인식활동을 의미할수도 있고 실천활동을 의미할수도 있으며 전체로서의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할수도 있고 사회력사를 전진시키는 운동을 말할수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주체라고 할 때에는 인식의 주체를 의미할수도 있고 실천의 주체를 의미할수도 있으며 전체로서의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 주체적인 담당자를 의미할수도 있고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인을 의미할수도 있다.

주체의 인식과 실천의 대상에는 모든것이 포괄되는것만큼 인식과 실천의 주인은 곧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존재로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주체는 결국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존재를 말하는것이다.

주체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 사회력사관, 주체철학의 모든 내용과 구성부분을 전개하는데서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범주이다.

주체철학이 밝힌 주체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범주가 담고있는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철학에서 주체는 첫째로, 철학적세계관의 출발적기초를 표

현하는 범주로 쓰인다.

주체철학은 인류철학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리해를 줌으로써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서 주체는 무엇보다도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담당자로서의 사람을 표현하는 범주로 규정되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서는 사람을 주체로 규정하였을뿐아니라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사람이 주체로 되는 근거를 확립하였으며 주체의 활동의 특성까지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체범주를 완성하였다. 이 점에서도 사람을 인식의 주체로 보면서도 물질일반을 운동의 주체로 보고 사람만이 주체로 되는 근거를 밝히지 못한 선행철학의 견해와 구별된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서 주체는 다음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밝힌 원리와 견해, 관점, 나아가서 철학적세계관전체를 특징짓는 범주로 쓰이고있다.

사람을 인식과 개조의 주체로 보고 주체인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철학적원리, 주체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발전시켜나가는 합법칙성을 밝힌 견해, 주체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마땅히 주체의 원리, 견해, 관점과 립장으로 특징지어지며 이 원리와 견해, 관점, 립장을 포괄하는 철학적세계관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으로 되는것이다.

주체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 이르러 새로운 과학적내용을 담게 되였으며 세계관의 출발적기초를 이루고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특징짓는 기본범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주체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담당자이며 기본요인으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범주라는 새로운 리해가 밝혀짐으로써 이 범주에 대한 철학적리해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이룩되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가 새롭게 확립되였으며 주체로서의 사람이 주동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위대한 세계관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에서 주체는 둘째로, 사회력사관의 기초적인 범주로 쓰인다.

주체철학에서 주체의 범주는 철학적세계관의 기본범주를 이루고있을뿐아니라 사회력사관의 기본범주를 이루고있다. 사회력사관에서의 주체의 범주는 철학적세계관의 주체의 범주를 사회력사적운동에 구현한것이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에서 주체는 력사의 창조자,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이며 동력인 인민대중을 표현하는 범주이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는것을 밝히고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체현한 사회적집단이며 사회적운동의 원인과 동력의 체현자인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 력사의 주체로 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운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 강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밝혔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특히 력사의 주체,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하는 합법칙성, 력사의 자주적주체, 혁명의 주체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사회적운동의 주체에 관한 가장 과학적인 리해를 완성하였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사회적운동의 주체에 대한 완벽한 리해를 확립하였을뿐아니라 사회적운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사회발전을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을 밝혀주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으로 되였다.

주체철학에서 주체는 셋째로, 주체사상전반을 표현하거나 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표현하는 범주로 쓰이고있다.

주체의 범주는 주체철학에서 인식과 개조활동의 담당자이며 기본요인인 사람, 사회력사적운동의 담당자이며 동력인 인민대중

을 의미하고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을 특징짓는 술어로 쓰이고있을뿐아니라 주체사상전반을 표현하거나 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하는 술어로도 쓰이고있다.

주체사상전반과 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주체를 세운다 또는 주체를 확립한다는 술어로 표현된다.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구현한다는것 특히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표현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사상에서 주체는 사상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자주성을 관철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으로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주체는 주체철학이 철학의 참다운 사명과 본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으로 될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범주이며 주체철학전체를 대표하는 범주이다.

사　　람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주체철학의 가장 중심적이며 출발적인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세계관을 전개하면서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완성하고 사람이라는 철학적범주를 정립하였다.

력사적으로 보면 인간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에서 많이 론의되여왔으나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사람의 본질적속성, 본성은 무

엇이며 사람의 운명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는가 등의 문제들은 인류철학사상발전에서 수천년의 력사를 내려오면서 론의를 거듭하여온 문제이다. 특히 그가운데서도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인간문제에 대한 론의의 중요한 초점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을 길들이고 사회를 개조변혁하여오면서도 이 모든 개조변혁의 주체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

사람에 대한 리해는 사람중심의 철학인 주체철학에 의하여 비로소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보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습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리해는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하나는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 본성을 이룬다는것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해답으로 된다. 사람은 무기물질과 같은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니며 생명물질과 같은 생물학적존재도 아니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데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본질적특성이 있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것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자연적존재와 구별하여 쓰는 범주이다. 세계에서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만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적관계를 떠나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적관계밖에 있는 사람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의 본질적속성, 본성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힌것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밝히는것은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모르고서는 사람에 대하여 리해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오직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밝혀져야 사람에 대한 과학적해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정확히 해명될수 있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란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는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사람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들은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다른 사물들과 구별된다. 무기물질이나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것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다.

주체철학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속성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에게만 고유한 속성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으로 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

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인것은 새롭고 진보적인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나간다.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은 곧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유일한 개조자로 되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세계의 개조발전과 자기 운명의 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 본성이며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주체철학의 고전적정식화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완벽한 철학적해명으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본성과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진것은 인류의 철학적사유발전의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철학적세계관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철학의 발전력사는 수천년을 헤아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철학사조들이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어느 한 철학도 사람의 사회적본질, 본성문제를 세계관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운 철학은 없으며 그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준 철학도 없었다. 종래의 모든 철학은 아직 객관적대상 즉 물질세계자체에 대한 해석에 주로 머물렀던것만큼 여기에서는 사람의 본질, 본성문제가 철학의 직접적인 대상밖에 있었다고 볼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종래의 철학들에서 사람의 본질, 본성문제가 전혀 론의

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철학사상발전과정에 많은 철학자들이 물질세계자체에 대한 해석을 주면서 그 테두리안에서 사람의 본질, 본성에 대한 자기나름의 견해들을 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선행철학들에서도 수많이 론의되여왔지만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관계를 떠나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러있었습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80페지)

사람의 본질,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리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정치적문제이다. 력사적으로 사람의 본질, 본성문제를 놓고 진보와 반동사이에 심각한 철학적론쟁이 벌어졌다.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사람의 본질, 본성문제를 저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외곡하여 착취사회를 합리화하는데 리용하였다. 일찍부터 반동적착취계급에 의하여 널리 퍼졌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온 종교는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종교에 의하면 오직 신만이 세계의 주재자로서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사람은 신의 《피조물》이며 노복이다. 사람은 신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절대적으로 의탁하여야 하며 신의 의지에 따라 살며 행동하여야 할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이다.

종교미신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발생발전한 고대유물론철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을 내놓았다. 고대유물론자들은 신을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존재로, 만물의 창조자로 보면서 사람이 신의 의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종교미신적교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신적능력을 사람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관한 과학적해명과는 거리가 먼 단편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여기에는 정신적능력만을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특정한 사람들 즉 노예소유자들만이 가질수 있는것으로 인정한 신흥노예소유자계급의 립장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적인 신에게만 자립성과 창조능력을 부여하고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특성은 완전히 부정한 종교에 반기를 든것이였으며 소박하게나마 인간의 자립성과 창조력을 인정한것으로 하여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는데서 일정한 기여로 된다.

고대철학에서 유물론에 대립하여 나타난 관념론철학은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질과 본성문제에서도 종교를 옹호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고대그리스의 관념론철학자인 플라톤(B.C. 427－B.C. 347)은 불사의 령혼이 육체와 결합된것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본질을 령혼에서 찾았다. 그가 주장한 령혼은 그 어데서인가 떠돌다가 사람의 육체에 깃들며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그 어데로인가 사라지는 신비롭고 영원불멸한것으로서 신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사회전반을 지배하고있던 중세기에는 철학도 종교의 시녀로 되여있었던것만큼 이 시기 철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견해도 종교적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세시기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동방철학에서는 사람이 본성에 있어서 선한가 혹은 악한가 하는것을 론의한 《인성론》이 대두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도덕품성을 사회적관계밖에서 고찰한 비과학적인 주장들로서 인간의 본질적속성, 본성에 관한 론의와는 거리가 먼 관념론적견해였다.

사람의 본성문제를 론의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것은 근세부르죠아철학이였다. 력사에 문예부흥기로 불리우는 14～16세기에 부르죠아철학에서는 인간과 그 본성에 대한 론의에 많은 주의가 돌려지게 되였다. 이 시기 철학자들은 종교적구속을 반대하면서 《인도주의》의 구호밑에 인간의 《개성》, 《인격》의 해방을 제창하고 계몽과 교육의 의의를 광범히 선전하였으며 부르죠아적, 개인주의적관점에서 사람의 자연적본성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특히 영국의 홉즈(1588－1679)로부터 네데를란드의 스피노자(1632－1677), 《백과전서파》로 불리우는 프랑스유물론자들에 이르기까지 17～18세기 형이상학적유물론자들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들고나온 공통적인 견해는 《자기 보존성》에 관한 주장이였다. 그들에 의하면 자기

를 보존하려는 성질, 《자기 보존성》은 자연에 의하여 주어진 사람의 본성이며 그것은 사람의 모든 활동의 원천을 이룬다는것이다. 홉즈는 인간의 궁극적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하였고 돌바크는 《인간이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기를 파괴하려는것에 대해 저항》하는것을 본성으로 하는 존재라고 하였으며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성》을 인간의 최고본성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연 그자체의 본성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자기 보존성》이 사람이나 생명물질의 공통적인 속성이며 그것이 가장 발전된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것이다. 이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행동의 원리,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는 비과학적인 견해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각자가 자기자신을 보존하고 자기자신의 생존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설사 그것이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자연자체의 근본리치가 그렇게 되여있으므로 응당하다는것이다.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을 생물학적속성과 감성적욕망에서 찾는 견해는 도이췰란드고전철학의 대표자였던 포이에르바흐(1804－1872)의 《인간학적유물론》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사유, 정신적존재에 귀결시킨 헤겔의 관념론적리해를 반대하고 철저한 유물론적견지에 선다고 하면서 사람을 육체와 정신이 통일된 자연적존재로 보았다. 그는 특히 사회적관계의 본질과 력사적과정을 관념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리해한데로부터 사람을 현실적인 사회적관계와 구체적인 력사적과정밖에서 고찰하는 추상적인 견해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사람이 육체의 면에서도 동물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것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히지 못하고 감성적인 자연적존재라는것을 강조하는데 머물렀다. 그는 사람을 순수 개체로만 리해하고 사람의 본성을 개인적인 행복욕과 남녀간의 사랑과 같은 자연적, 생물학적, 본능적욕망에서 찾았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에 대한 관념론적견해를 반대하여 나온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진보적의의를 가지였으나 사람과 동물의 근본차이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순수 인간의 생물학적속성, 개개인이 가지고있는 감성적인 자

연적속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규정한 비과학적인 견해였다.

사람의 본성을 생물학적속성에서 찾는 주장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나타난 부르죠아인간철학인 《생의 철학》에서 더욱더 반동적으로 개악되였다.

《생의 철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쇼펜하우에르는 본능적인 《생존의지》, 《살려는 요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요구를 리기욕, 식욕, 성욕이라고 하면서 《생존의지》, 《살려는 요구》란 이 본능적인 요구를 추구하고 실현해나가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생물학적본능에 귀착시킴으로써 사람을 저속한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의 지위에 떨어뜨리는 반동적견해였다.

《살려는 요구》, 《생존의지》는 19세기말 도이췰란드의 반동철학자 니체에 의하여 《권력의지》로 개악고창되였다. 니체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생존의지》, 《살려는 요구》보다도 《권력의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힘》을 추구하고 남을 누르고 지배하려는 요구를 가진다는것이다. 이 《권력의지》는 다른 모든것을 압도하고 지배하며 보다 강자로 되려는 의욕으로서 사람의 모든 감정과 욕망은 《권력의지》의 발현에 불과하다는것이다. 그는 이 《권력의지》를 가장 완전무결하게 체현한 인간은 범속한 인간들과 구별되는 《초인》으로 되며 이 《초인》은 가장 《월등한 인간》이며 세계의 지배자로서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떤 포악하고 야수적인 행위도 당당히 감행할수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비도덕적인 행위로 되지 않으며 응당한 행위로 된다는것이다.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피의 파잉오작품》, 렬등한 인간들이라고 모독하면서 그들은 《초인》의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초인》을 위하여 마땅히 희생되여야 할 존재라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극단한 반인민적, 반동적견해인 동시에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반영한 견해로서 악명높은 도이췰란드 파쑈어용철학으로 복무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철학이 나오기 전에는 그 어느 철

학을 막론하고 사람을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적존재로 고찰한데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사회적속성에서가 아니라 자연적, 생물학적속성에서 찾았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인간으로 되게 하는 근본조건인것만큼 사회적관계밖에서 인간을 고찰할 때에는 인간의 본성을 옳바로 해명할수 없으며 비과학적인 생물학주의적해석에 떨어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것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 유물변증법적철학이다. 유물변증법적철학은 사람을 사회적관계밖에서 추상적으로 고찰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개개인이 가지고있는 생물학적속성에서 찾는 견해의 비과학성을 비판하고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봄으로써 처음으로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보는 유물변증법적견해를 확립하였다. 그렇지만 유물변증법적철학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사람을 물질일반에 해소시키고 물질세계자체에 대한 해석을 주는것을 철학적과제로 내세웠던것만큼 사람의 본성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맑스주의철학은 사람의 본성문제의 과학적해명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였을뿐 그에 대한 과학적탐구에로 지향되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 본성문제를 철학적세계관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새롭게 내세우고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본성이 밝혀지고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진것은 인류의 철학적사유발전의 가장 빛나는 성과이며 철학적세계관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참다운 본성이 해명되고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론증됨으로써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던 사람의 본질, 본성에 대한 철학적론쟁에 종지부가 찍혀지고 사람에 대한 가장 옳

바른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인류는 드디여 자기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안목, 주체의 안목으로 세계를 새롭게 고찰할수 있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주체철학에 의한 사람의 본질, 본성문제의 완벽한 해명이 인간의 운명문제의 해결과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전환적의의가 있으며 그 력사적공적의 하나가 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 본성에 관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온갖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들이 과학리론적으로 완전히 파산되게 되였다. 종교와 관념론은 사람의 운명을 그 어떤 초자연적인 정신적실체에 의하여 좌우지되는것으로 설교함으로써 오랜 세월 사람들속에서는 사람을 자기 운명개척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하고 저속한 존재로 보는 관념이 지배하게 되였다. 이러한 반동적인 관념은 오늘도 류포되고있다. 특히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은 각양각색의 잡다한 관념론적궤변들과 함께 황당한《인류위기설》을 들고나와 인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태양에네르기소멸론》이라든가 지구의 《생태위기》, 《식량위기》 등이 다 그러한것들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파산과 멸망을 앞둔 반동적부르죠아지의 처지와 기분을 반영한것이며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자본주의제도의 멸망을 예고하며 그 말기증상을 표현하고있는것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이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며 영원히 발전하는 존재라는것을 부인함으로써 사람들이 희망과 신심이 아니라 절망과 비관을 가지게 하며 그들을 비관주의, 염세주의와 부패타락에로 이끌어가는 극히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본성을 밝히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외곡하고 사람들을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방종과 부패타락에로 이끌어가는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철학리론을 철저히 분쇄하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락관을 안겨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존엄과 가치

에 대한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인간에 대한 철학적해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으며 주체철학의 업적의 하나가 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본성이 밝혀지고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짐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로서의 사람이 정립되여 철학의 구성체계와 내용에서 응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종래의 철학들에서는 사람에 대한 철학적리해가 완성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람을 한갖 초자연적인 정신적실체의 산물로, 물질의 구체적존재형태의 하나로밖에 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람의 범주를 독자적인 철학의 기본범주로 정립할수 없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범주가 철학의 기본범주로 정립되여 철학의 구성체계의 중심에 확고히 놓여지게 됨으로써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가 정립되고 과학적으로 근거지어지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철학의 전반체계와 내용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편성되여 인류의 철학적세계관이 자기의 사명에 맞는 참다운 면모와 내용을 갖추게 되였다.

사람의 운명

사람의 운명은 사람과 세계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생행로 즉 사람의 사회적처지와 생활상태 및 그 전도로서 주체철학의 주요개념의 하나이다.

사람의 운명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여 론의되여 왔으나 옳바른 해명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종교미신적세계관과 관념론적세계관에서는 사람의 운명을《하느님》이나 이러저러한 신 또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정신적

실체에 의하여 미리 예정되여 사람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타고난《팔자》로 설교되여왔다. 이것은 착취계급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의 특권적지위를 신성화하고 인민대중을 지배계급에게 순종하는 노예적처지에 얽매여놓기 위하여 꾸며낸 반동적견해였다.

유물론적세계관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신비주의적관념의 표현으로 여기고 사람의 운명자체를 론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종교가 사람의 운명과 관련하여 많이 론하면서 신비주의적숙명론을 널리 류포시켰으며 현실세계에서의 금욕주의와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래세》에서의 행복에 대한 감언리설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온데 기인한것이였다.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은 사람의 운명을 인정하는것은 비과학적인 종교적, 관념론적견해라고 단정하였으며 인간의 생활과정에는 자연적 및 사회력사적필연성만이 작용하고있을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사람의 운명에 대한 종교신비주의적, 관념론적견해를 타파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의 1차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까지도 물질일반에 해소시켜놓고 모든것을 고찰한데로부터 사람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자연적 및 사회력사적필연성에 대한 인간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작용과 역할을 볼수 없게 하는 제한성을 가진 견해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선행철학들의 모든 비과학성과 제한성들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습니다. 철학의 목적과 사명도 여기에서 레외로 될수는 없습니다.》(《**김정일**선집》 8권, 435페지)

주체철학은 우선 사람의 운명을 시인할뿐아니라 그것을 철학의 근본사명과 직접 련관시켜 고찰하고있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 운명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밝혀준다

는데 철학의 근본사명이 있다는 독창적인 해명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리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며 활동한다. 현실세계에는 사람과 세계만이 있으며 따라서 사람의 운명을 규정하는 요인에는 사람과 세계밖에는 그 무엇도 없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세계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주위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 사람은 생사존망과 관련한 엄혹한 사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과 환경에 부닥치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데 따라 각이한 처지와 생활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부닥친 상태가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매우 유리하게 해결되였을 경우에는 행운이 차례졌다고 하며 불리하게 해결되였을 때에는 불우한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고 말한다.

사람의 운명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에 의하여 좌우지되는 불가항력적인것도 아니며 또 고정불변한것도 아니다.

현실세계는 사람과 세계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사람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해결되는 문제이며 그밖에 사람의 운명을 규정할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의 운명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은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세계인가 하는것이며 결국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세계에 종속되고 그에 지배당하는가,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고있는것만큼 항시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과 접촉하며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은 세계에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령역이 확대될수록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강화되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주체로 된다. 이로부터 사람들의 최대

의 관심사로 되는 운명문제는 바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근본방도를 밝히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주체철학은 또한 사람의 운명을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생명과 직접 결부시켜 리해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님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9권, 272페지)

사람의 운명이라는 개념은 어원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생각하며 운명문제를 론하는 경우에는 의례히 생명을 지니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의 처지와 생활전도를 념두에 두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왔다. 사람들이 흔히 생사존망을 운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내세우며 사람의 죽음을 운명에 귀결시켜 론하는 것 등은 다 사람의 운명을 생명과 직접 결부시켜보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런데 선행철학들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오직 육체적생명으로만 보았던것만큼 사람의 운명도 개개인의 육체적생명과 직결된 문제로밖에는 달리 리해할수 없었다.

육체적생명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같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와 본질상 다를바 없다. 생물학적존재에 있어서는 그 운명이 객관적생활환경에 어떻게 순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것은 동물세계에 작용하는 적자생존의 자연도태법칙이 잘 실증하여준다. 이것은 생물학적존재는 객관적생활환경에 의하여 그 운명이 결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고립된 개인의 힘으로는 광란하는 자연의 파괴력에 맞서 그것을 이겨낼수 없으며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연을 개조하고 지배해나갈수 없다. 더우기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착취와 예속을 강요하는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할수도 없고 승

리할수도 없다. 바로 여기에 사람을 육체적생명만을 가진 개인으로 리해하는 조건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그 어떤 외부적인 신비한 힘에 의하여 규정되는 타고난《팔자》로 리해할수밖에 없게 되는 리유의 하나가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생명으로만 보고 그와 직접 련관시켜 사람의 운명을 론의하는것은 비과학적인 견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사람의 운명문제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고유한 생명과 결부시켜 고찰할 때에만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지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은 물론 귀중하다. 사람은 육체적생명이 있어야 사회정치적생명도 지닐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하는 물질생활을 사람의 일차적요구를 실현하는 생활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와는 달리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물질생활에 대한 사람의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며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정되고 건전한 물질생활은 사람의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잘 보장할뿐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게 하는 물질적담보로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사회적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본성이며 사회정치적생명은 자주성과 떼여놓고 생각

할수 없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졌다는것은 곧 자주성을 지녔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 그 무엇에도 예속되거나 구속됨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자주적으로 산다는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산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인간은 주인으로서의 권리,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존엄있게 산다고 말할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인간이 다름아닌 자기 운명의 주인인것이다.

사회적인간의 제일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집단으로부터 받아안게 된다. 고립된 개인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질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사회적집단은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이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의 운명개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게 되고 집단으로부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된다. 바로 사람들이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 살며 집단으로부터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이는것이 곧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사회적집단으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여 모든 사회적집단이 다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것은 아니다.

주체철학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개별적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되게 하는 사회적집단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인것이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라고 할 때 그 사회적관계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의 성원들로서 맺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주성에 대한 공통된 지향

과 목적으로 하여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를 맺고 인민대중이 라는 하나의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게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을 떠나서 사람들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사회적본성으로 지닐수 없다. 따라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될수 없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될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은 력사의 주체로서 인류력사에 언제나 존재하였고 력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였으며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력사적투쟁시기에 이르러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그것이 바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하나로 결합된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어도 사회정치적생명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것이다.

개별적사람들은 오직 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때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값높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것이다.

주체철학은 이처럼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운명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하였을뿐아니라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는것을 철학의 근본사명으로 내세움으로써 철학의 전반체계를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하였다.

주체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자체가 사람의 운명문제를 구현한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문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며 그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로,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밝히는 기초원리로 되여있다. 그리고 철학의 이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주체의 사회력사관, 혁명관과 인생관의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뚜렷이 명시한 원리와 원칙, 합법칙성들을 해명해주고있는것이다.

사람의 지위와 역할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주체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79페지)

주체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내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밝힐것을 제기한 문제이다.

주체철학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주위세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과 주위세계의 호상작용은 세계의 존재와 변화발전의 가장 본질적인 객관적내용을 이룬다. 주위세계를 이루는 사물들 호상간에도 천태만상의 호상작용이 이루어지고있으나 그것은 주위세계자체의 운동으로서 전체로서의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은 주위세계에 대한 사람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작용과정이다. 따라서 철학이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는 과학적학설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려면 마땅히 사람을 위주로 하여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가지는것이며 사람자신을 위한것이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고 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라야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고찰하면 그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세계의 지배를 받는가,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귀착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된것은 철학의 근본문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다.

종래의 철학들에서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원리에 기초하여 철학적세계관을 전개하였다.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가 지난 시기 철학의 근본문제로 상정된것은 인간의 운명문제해결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철학사상발전의 필수적요구였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는것만큼 사람의 운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시원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람이 살아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세계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사람자신이 생활을 유지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기때문에 세계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세계의 시원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있지 못하였고 그들의 생활과 활동이 외부세계의 영향에 많이 의존되여있던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생활과 활동을 제약하는 객관세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파악하는데로 철학적사유가 먼저 지향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시대에 세계의 시원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상정된 시대적, 력사적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과 유물론이 종교와 관념론을 타파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물현상의 본질과 특히 의식의 본질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주지 못한 동안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가 의연히 철학의 근본문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이 문제는 맑스주의철학에 의하여 물질의 1차성, 존재의 1차성의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맑스주의철학에 의하여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철학의 근본문제를 완전히 혁신하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의 제기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풀어야 할 가장 옳바른 철학의 근본문제의 정립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사명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문제라는데 기인된다.

철학의 근본사명은 과학적인 세계관을 정립함으로써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철학은 근본문제부터 자기의 사명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철학이 그 기초원리로부터 근본목적과 기본임무를 명백히 제시하고 그 전체계와 내용을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는데로 지향시킬수 있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인간의 주동적역할에 의하여 개척되여나가는것만큼 세계관의 기본사명은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근본방도를 밝히는데 귀착되며 그 해결에로 확고히 지향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가 철학의 사명을 직접 규제하고있는 문제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또한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참다운 철학의 근본문제로 된다. 모든 사물현상의 발전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인류의 철학적사유도 자체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단순한것으로부터 보다 복잡한것으로,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간다. 세계에는 무생명물질로부터 시작하여 생명물질 그리고 사회적존재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물질적존재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특출한 존재가 사람이다. 인류의 철학적사유는 세계의 단순한 물질적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하고 발전된

물질적존재에 대한 인식에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하여왔다. 철학사상발전의 선행단계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사람밖에 그를 둘러싸고있는 객관적물질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로부터 철학의 근본문제가 세워졌다.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는 세계의 시원을 밝히는것을 통하여 그에 해답을 주는 세계관의 근본문제였다. 이 문제는 맑스주의유물변증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원래 세계관의 기본사명이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는데 있는것만큼 철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세계의 물질성과 그 변화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데로 지향해나가야 한다.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해명하는데로 나아가는 것은 철학적세계관발전의 필연적이며 합법칙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주체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인류의 철학적사유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세계관의 근본문제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세계의 주인,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철학의 근본문제로 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그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의 새시대이다. 지난 시대에는 인민대중이 외부세계와 자기자신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옳바로 가지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주로 외부세계에 많이 의존하고 제약되여있었다. 그들은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지 못한것으로 하여 착취사회에서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자기 힘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되지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소수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

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력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였다.

주체철학은 이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철학적세계관이 해결해야 할 력사적과제를 뚜렷이 제시하였다. 여기에 바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된 력사적근거와 정당성이 있으며 그것이 참다운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있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혁신하였을뿐아니라 그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김정일**선집》 10권, 91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주체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철학적원리로서 주체철학의 기초를 이룬다.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는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그 하나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세계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세계를 지배해나가는 유일

한 존재라는것이다.

사람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립하는 특출한 존재로서 외부세계에 종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복종시키고 복무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생명물질들은 가장 고급한 령장류에 이르기까지 어느것이나 다 외부세계에 종속되여 그에 순응해서만 개체와 종을 보존하고 살아나갈수 있다. 자연도태현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사람은 외부환경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순응시키고 지배함으로써만 살아간다. 사람밖에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란 그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다. 이것은 세계에 사람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존재란 없으며 따라서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동시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리해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것은 우선 사람이 언제부터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아득히 먼 옛날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자연계에서 갓 벗어난 원시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구속되여 살았다. 그러나 원시인들도 사회적존재인것만큼 그들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보아야 하는것이다.

물론 사람은 력사를 거슬러올라갈수록 더욱더 외부세계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자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원시인들은 식물채집과 동물사냥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던것만큼 먹을것이 생기면 나누어먹고 없으면 굶어야 했으며 맹수와 자연재해로부터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도 동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생존방식으로 살았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처음부터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출현하였다. 원시인들은 아직 자연에 거의 전적으로 구속되여 살았지만 그들도 사회적관계를 맺고 집단적으로 살면서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로서 로동활동으로 자연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생활과 운명을

개척해나갔다는 점에서는 현대문명세계에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오늘의 사람과 본질상 같은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외부세계의 구속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으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얼마만 한 수준에서 차지하고있었는가 하는 차이와 그들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처지를 자각하고있었는가, 자각하지 못하였는가 하는데 있을뿐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 산다는것을 현실적으로 자연과 사회의 그 어떤 지배와 예속에서도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산다는것과 주인으로서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실현된 상태는 엄연히 구별되는것이다.

사람,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와 같이 그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실현되여있는 경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대중이 아직 계급적지배와 예속에서 해방되지 못했어도 그들이 착취자, 억압자들에게 굴복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회적,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착취제도, 억압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떨쳐일어나 투쟁하는 경우에도 응당하게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력사에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생을 바친 수많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인간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고 유린하는 반동적인 일제식민지파쑈폭압제도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웠으며 몸은 비록 철창속에 갇히고 손발은 철쇄에 묶여있어도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지켜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또 오늘도 고무하고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자본주의나라의 혁명가들과 선진적청년학생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유린하고 인

민대중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는 반동적인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그들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아직 사회적으로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그들의 이 투쟁에 의하여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는 반동적착취제도가 허물어지고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가 확고히 보장되는 사회가 건설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사람은 그 발생에서부터 세계의 주인,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로 출현하였지만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력사적과정속에서 확대강화된다.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무궁무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있지만 매개 세대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힘, 능력은 한정되여있다. 사람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끊임없는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무한한 세계를 지배해나간다. 이렇듯 주위세계에 얽매여사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고 복무시키면서 살며 세대에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끊임없는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를 더욱더 확대해나간다는데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원리의 참다운 의미가 있다.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가 담고있는 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밝힌것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서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특출한 역할을 한다. 세계의 각이한 물질적존재들은 다 자체의 고유한 운동을 하며 사람의 고유한 운동은 세계를 개변하는 창조적활동이다. 사람은 창조적활동으로 외부세계에 작용하여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동시에 자기자신을 개조발전시켜나간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작용에서 규정적이며 주도적인것은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운동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면서 그에 종속되여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세계의 운동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해나간다. 사람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창조적활동과정에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높여나가며 그에 따라 외부세계의 개조발전을 더욱더 확대발전시켜나간다. 여기에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의 참다운 의미가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과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다같이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표현한것으로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에 기초하고있으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는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은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며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세계에 대한 지배를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직위와 직무에 관한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가 세계관의 근본문제라면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직위와 직무문제는 사회적분공과 임무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혼동하면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비속화하는 그릇된 편향에 떨어진다. 지난 시기 어떤자들은 주체철학의 기초원리가 밝혀주는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사회적직위와 직무문제와 혼탕시켜 주체철학을 비속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며 활동하는것만큼 일정한 사회적직위와 직급을 가지게 되며 그에 맞는 직무와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농민과 같이 직접적인 생산로동에 참가하여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지배인, 협동농장관리위원장, 각급 인민정권기관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일

군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모두는 다같이 사회주의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매 개인들의 사회적직위와 직무는 다같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맡고있는 사회적분공이며 임무라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줄수 있게 되였다.

주체철학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지배적지위와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결정적역할을 해명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관의 가장 옳바른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가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람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의 초석이 비로소 확립되게 되였다.

사회적존재

사회적존재는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와 구별하여 쓰는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자연적존재와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말입니다.》(《**김정일**선집》 10권, 300페지)

주체철학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준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은 사람에 대한 철학적고찰의 출발점이다.

사람에 대한 철학적고찰은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는가 하는데

따라 그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자연적, 생물학적속성에서 찾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로가 아니라 사회적존재로 볼 때에만 사람에게 고유한 사회적본성을 해명하는데로 나가게 된다.

사람은 무생명물질과 같은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니며 또 생명물질과 같은 단순한 생물학적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라는데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 서로 떨어져사는것이 아니라 사회적관계를 맺고 밀접히 결합되여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한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만 사람으로 될수 있었고 또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할수 있었다.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것은 사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며 다른 생물학적존재들과 구별되는 근본차이이다. 동물들가운데도 무리생활을 하는것들이 있다. 꿀벌이나 개미와 같은 곤충들은 무리안에서 질서있게 행동함으로써 마치 그것들의 관계는 사회적관계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동물의 무리관계가 아무리 질서정연한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사회적관계사이에는 엄연한 한계와 넘을수 없는 심연이 있는것이다.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타고난 생물학적, 본능적인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꼭 같은 고정불변한 방식으로 유지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관계는 구체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맺어지며 사람의 목적의식적활동에 의하여 조건과 환경이 변하는데 따라 변하고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부르죠아사회학자들은 사람이 맺는 사회적관계와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관계의 근본차이는 보지 않고《동물사회》에 대하여 떠벌이고있으며 사회다윈주의자들, 생물학주의자들은 사람이 맺는 사회적관계가 본능적으로 맺어지는 동물들의 무리관계와 본질상 같다고 설교하고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관계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특수한 관계이며 세계에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을 해명하면서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것을 밝혀준다.

사회적존재에는 사람밖의 그 어떤 물질적존재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의 물질적재부는 사람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창조된것으로 하여 자연 그자체에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적존재들과 구별되지만 사회적존재로는 될수 없다. 사회적관계 역시 사람이 맺는 관계이고 물질적존재 그자체는 아니지만 사회적존재에 포함시킬수 없다. 만일 물질적재부도 사회적존재라고 하면 사람과 물질적재부의 근본차이가 없게 되며 사람의 고유한 본질적특성이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을 줄수 없게 된다. 사회의 물질적재부는 사람과 사회적관계와 함께 사회를 이루지만 사회적존재로는 될수 없으며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이룰뿐이다.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으로서의 사회적존재는 맑스주의유물사관의 출발적개념인 사회적존재와 명백히 갈라보아야 한다. 맑스주의유물사관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을 물질적인것과 관념적인것으로 나누고 사회의 물질적측면을 이루는것을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사회의 관념적측면을 이루는것을 사회적의식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물사관의 출발적원리가 정립되였다.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 맑스주의유물사관의 기초원리는 물질, 존재가 의식, 사유를 규정한다는 변증법적유물론의 기초원리를 사회력사에 적용한것이다. 따라서 맑스주의유물사관에서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은 사회생활의 물질적 제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있는것으로서 주체철학에서의 사회적존재라는 개념과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맑스주의철학에서도 사람을 사회적존재라고 규정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물질적존재일반에 해소시키고 사회관계 그중에서도 주로 경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존재로 본것이였다.

주체철학은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라는것을 밝혀줄뿐아

니라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맺고 그것을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존재라는것을 밝혀준다.

사회적관계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회적관계를 맺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개변하는 담당자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서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친다. 선진적인 사회관계,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긍정적영향을 주지만 반동적인 사회관계,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저애를 준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관계의 제약을 받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관계의 제약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 사회적관계의 제약을 받는것은 피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회적관계사이의 기본적이며 주도적인 측면은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맺는 담당자, 주체이다. 사람은 살아나가기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여러가지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맺을뿐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존재이다. 사람은 낡은 사회관계를 없애고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력사를 전진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사람과 사회적관계사이에서 사람이 사회적관계의 제약을 받는다는 측면보다도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맞게 사회관계를 주동적으로 맺고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간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이 기본이며 본질적인것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제약되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을 시인하면서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맺으며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고 지배해나간다는것이 기본이며 본질적인 측면이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의 참다운 의미를 완벽하게 밝혀준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고유한 의미를 담고있다. 사회적존재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고유한 의미를 담고있는 개념이라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것으로 하여 다른 물질적존재들이 가질수 없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존재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가지고있는 존재라는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속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존재로 될수 없다. 사회적존재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가진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왜 사람만이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맺고 그것을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존재로 되는가 하는것이 명백히 해명되게 되였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되게 하며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필수적조건이다. 사람이 사회의 기본구성요소라고 하여 개별적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개개의 사람만으로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그때의 개체는 사람으로 될수 없고 다만 생물유기체일따름이다. 개개의 사람들은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됨으로써만 사회를 이루고 물질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이것을 마치도 사회적관계가 먼저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결합시켜 사회를 이루게 하고 사람으로 되게 하는것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이 주동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그것은 사람이전에는 있을수 없으며 사람이 발생하면서부터 사람과 함께 발생한것이다. 사람과 사회적관계, 사회는 함께 발생한것이다. 사람과 사회적관계, 사회의 발생에서 선후차를 론하는것은 비과학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관계속에서 살며 활동할 때에만 사람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지닐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관계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만이 맺는 관계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유일한 존재로 되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적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간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사회적관계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사회적관계로 갈라진다. 그 하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단결과 협력의 관계이

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사이의 대립과 투쟁, 지배와 예속의 적대적 관계이다.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존재라고 할 때 그 사회적관계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맺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매개 사람들은 공통된 지향과 요구, 목적을 가지며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단결과 협력의 관계를 맺고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게 된다. 사람들이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에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체현되며 그에 따라 그 집단의 성원으로서의 매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본성으로 체득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성원으로서의 사람이 가지는 속성이다.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는 사람의 발생, 사회의 발생과 함께 발생하고 오늘에 이르는 전 력사적과정에서 공고발전되여온 사회적관계이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이며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회적관계이다. 사회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집단인것만큼 사람들사이의 단합을 전제로 한다. 최초의 인류사회였던 원시공동체사회에서도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관계는 단결과 협력의 관계였다. 단결과 협력의 관계는 인간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고 인류력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완성되여온 유일한 사회적관계이다. 인류력사에는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가 없는 사회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성원의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으며 그들이 없이는 사회의 존립과 발전자체를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있는 한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있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속에서 사람들은 공통된 지향과 요구,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끊임없이 증대발전시켜올수 있었다.

주체철학은 다음으로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집단주의를 본성적으로 요구하는 존재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김정일**선집》 13권, 458페지)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므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함으로써만 살아나갈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적존재는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가지게 된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의 리익속에 자기 개인의 리익도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을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으로 여기는 사상이며 품성이다. 사회적집단의 리익우에 개인의 리익을 올려놓거나 그것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은 개인주의적탐욕으로서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집단주의는 사람이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보람있게 살기 위한 요구이며 사회적집단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만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존재로서의 보람있는 생활을 보장해주며 사람, 인민대중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그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집단주의가 사회적존재의 본성적요구인것만큼 집단주의를 구현한 사회야말로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사회로 되며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위력을 가진 사회로 된다.

사회적존재가 집단주의를 본성적으로 요구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집단주의를 선진적로동계급의 사상으로만 리해하여온 선행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제한성이 극복되고 그것이 사람, 인민대중모두가 가지는 본성적요구라는 리해로 심화발전되였다.

이처럼 집단주의가 선진적로동계급뿐아니라 사회적존재를 이루는 모든 근로인민대중이 가지는 본성적요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 철학적개념의 본질적내용이 더욱 새롭게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 주체적리해의 독창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선행철학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론의되여왔는가 하는것을 고찰하는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선행철학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졌다. 로동계급의 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철학도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보지 못하였다. 사람을 정신적존재로 본 관념론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유물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을 자연적, 생물학적존재이상으로 보지 못하였다. 17～18세기 형이상학적유물론자들이 사람의 본성을 《자기 보존성》에서 찾은 견해라든가 19세기 도이췰란드고전철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포이에르바흐의 《인간학적유물론》의 견해, 19세기말 20세기초에 대두한 《생의 철학》의 대표자들이 들고나온 《생존의지》나 《권력의지》와 같은 주장들은 그것을 실증하여준다.

로동계급의 선행철학에 이르러 처음으로 사람을 단순한 자연적,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로 규정하였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사람에 대한 신비주의적이며 관념론적인 견해와 함께 사람을 현실적인 사회관계밖에서 고찰하는 생물학적이며 추상적인 견해들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질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하였다.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한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이 모든 사회적관계를 체현하고있는 존재라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이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제약되고 규정되며 사회적관계의 변화발전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존재라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존재라는것을 처음으로 해명한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리해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그러나 맑스주의철학은 사람을 물질적존재일반에 해소시켜 고찰하였으며 사람이 단순한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히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던것만큼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속성을 해명하는데로 지향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맑스주의철학은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맺으며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측면을 응당하게 내세우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회적관계

에 의하여 제약되고 규정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머물렀다.

맑스주의철학은 또한 사회적존재의 개념에 사람만을 포함시킨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의 본질문제를 사회적관계속에서 고찰하면서도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적의식에 반영되는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인구, 자연지리적환경 등)과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쓴데서 찾아볼수 있다.

맑스주의철학에서는 이와 함께 집단주의를 로동계급과만 결부시켜보았을뿐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로까지는 보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 개념이 담고있는 내용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의 출발적인 기초적문제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자 주 성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을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의 범주를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사람에 대한 주체적리해뿐아니라 주체철학전반을 리해하는데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속성이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그 어떤 구속과 예속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시켜나가는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명실공히 사람으로 되는것이다. 자주성을 떠나

사람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곧 사람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성은 사람을 대표하는 성질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주성을 사람의 본질적속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내세우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자주성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은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런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것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질의 하나이다. 동물은 자연에 전적으로 종속되여 살아가는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은 자연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갈수 없다. 주위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것은 동물의 생존방식이다.

그러나 사람은 주위세계에 종속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존하는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출한 존재이다.

사람은 우선 자기자신을 자각하고 주위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그에 대립한다. 이것은 사람이 주위세계에 종속되여있던 동물적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존재로 되는 첫걸음이다. 사람이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던 태고시대에는 자연에 거의 전적으로 종속되여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첫걸음부터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벌려왔다. 오늘날에도 자연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준다. 자연의 사물현상은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도 있고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수도 있다.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땅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지만 엄혹한 추위와 척박한 땅은 매우 불리한 생활조건으로 된다. 특히 가물과 큰물,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며 그들의 생존을 크게 위

협한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이러한 불리한 조건앞에 굴복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 자연을 정복해나감으로써 살며 발전하여올수 있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착취사회에서 강요되는 사회적예속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구속에 비할바없이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구속이 있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지난날 끊임없이 벌어졌던 노예제도나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노예들과 농노, 농민들의 투쟁은 다 그들이 노예적 및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였으며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자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활동하는 과정이란 바로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는 달리 온갖 예속과 구속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싸워나간다는데 바로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서의 자주성의 범주가 담고있는 내용의 한 측면이 있다.

자주성은 다음으로 자연과 사회를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려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런 구속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뿐아니라 그것을 지배해나가려는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있다. 지배라는 말은 예속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주어진 대상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복종시키고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복종시키고 자기에게 복무시킴으로써만 살아나가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자연을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키고 자기에게 복무시켜나간다. 자연은 사람의 항구적인 생활환경이지만 스스로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거나 생활수단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길들여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사회도 지배하여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키고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들어나간다. 사람은 착취와 지배의 적대적사회관계를 청산하고 단결과 협력의 선진적인 사회적관계를 확립하며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간다.

여기에서 사람이 사회를 지배한다는것을 사람이 사람을 예속시키고 지배하는것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착취하는것은 사람의 사회적본성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비인간적행위이다. 지주, 자본가들이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참다운 인간사회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날뿐아니라 그것을 지배해나감으로써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는 자주적존재로 된다.

이처럼 자연과 사회를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성질이라는데 자주성의 범주가 담고있는 내용의 다른 한 측면이 있다.

자주성은 다음으로 자기 생활과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이 가지고있는 중요한 성질의 하나는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서 나서는 문제,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데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에게 의존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은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면 자기의 주견과 의도에 맞게 옳바로 해결할수 없게 되며 남에게 예속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활과 실천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자주적인 존재로 되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자주성의 범주가 담고있는 내용의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다.

온갖 예속과 구속을 허용하지 않는 성질과 세계의 모든것을 지배해나가는 성질, 자기 힘으로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질들은 자주성이 담고있는 내용들로써 서로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이 성질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빼놓고서는 사람이 자주성을 가졌다고 말할수 없으며 또 그가운데서 어느 한 성질이 없으면 다른 성질들도 성립될수 없다. 자주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루는 이 모든 성질들은 사람의 활동에서 언제나 통일적으로 발현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것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서 떼여낼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특성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 되는것은 아니다.

주체철학이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여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집단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은 어디까지나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한 성원으로서 가지는 사회적속성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는 반동적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고 말할수 없다. 또한 사회적예속을 받는것을 타고난 《팔자》로 감수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덕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떤 행운이 저절로 차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으며 이런 사람들도 역시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고 말할수 없다. 일부 사람들이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고 노예적처지를 숙명적인것으로 여기거나 남에게 의존하여 기생충처럼 살아가는것은 참다운 사회적인간의 풍모를 갖추지 못한 가련하고 저속한 인간, 사람답지 못한 인간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져야 참다운 인간으로 되며 자주성을 높이 체현할수록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로 된다. 반대로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값에 가지 못하며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생

명이라고 하는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하는것이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주체철학은 자주성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속성으로 규정하였을뿐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명백한 해명을 주고있다.

자주성은 사람의 오랜 진화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특수한 육체기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에게 발전된 유기체가 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들이 가질수 없는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지며 따라서 자주성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자체가 자주성을 낳는것은 아니다.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는 자주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바탕으로, 물질적전제로 될뿐이다. 사람의 다른 본질적속성들인 창조성과 의식성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할수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본질적속성으로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이라면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과학기술지식입니다.》
(《**김정일**선집》 9권, 304페지)

사상의식은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상의식이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은 그것이 사람이 자주성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하였는가, 자주성을 가졌다면 어떤 수준의 자주성을 가졌는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이다. 이때의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의미한다.

※ 사상의식은 계급성을 띤다. 사상의식에는 남을 억압착취하는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반동적사상의식도 있고 낡은 착취사회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는것을 타고난

《팔자》로 여기면서 억압자, 착취자들에게 묵묵히 순종하는 노예굴종적인 사상의식도 있다.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사상의식은 이러한 반동적인 사상의식이 아니라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바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다는데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되는 결정적요인이 있다.

반면에 지주, 자본가와 같은 반동적지배계급, 착취계급은 남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사상의식을 가진다.

그러나 지주, 자본가계급의 출신일지라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람들이 자주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기때문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의식이다. 자주적요구는 사람의 자주성과 뗄수없이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주성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라면 자주적요구는 이 자주적본성으로부터 가지는 요구이다. 자주적요구는 자주성의 발현이며 사람이 자주적요구를 가진다는것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함께 그에 따르는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사물현상에 대하여 자주적요구를 가질뿐아니라 그에 따르는 리해관계를 가진다. 이 리해관계는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사람이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자주적요구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람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다면 그 어떤 리해관계도 생겨나지 않는다. 자주적요구는 일정한 대상에 대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하는 전제라고 말할수 있다.

리해관계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위세

계의 사물현상 특히 사람의 주되는 관심사로 되는 대상에 대한 관점과 립장, 태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된다. 사람은 사회생활과 사회적실천활동과정에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자주적요구를 가지는 동시에 그로부터 출발하여 그 대상이 자기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리로운것인가 아니면 해로운것인가를 가려보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다름아닌 리해관계이다. 실례로 자본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인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반드시 자본주의적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적요구를 가지게 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제도를 부정하고 때려부시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한다.

반면에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사회제도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이 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공고발전시키려는 자주적요구를 가지게 되며 이 제도를 해치려는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리해관계는 자주적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세계의 대상들에 대한 태도를 바로가질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되며 사람들의 활동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여기에서 자주적요구가 사람들이 리해관계를 가지게 하는 전제라고 하여 사람에게서 자주적요구가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그에 대한 리해관계가 형성되는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정한 대상에 대한 자주적요구와 그에 대한 리해관계는 동시적으로 형성되면서 서로 보충하고 추동한다고 볼수 있다.

자주적요구가 사람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 지향성을 규정한다면 리해관계는 대상에 대한 공부정, 태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말할수 있다. 리해관계는 바로 사람의 활동의 성격과 활동과정에서 발휘하는 그들의 열의, 창조적적극성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요구의 실현에 직접 작용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이처럼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이 자주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과학적인 혁명적세계관을 밝혀주기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자각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가려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로서 사람들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혁명적세계관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되는것은 거기에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모든 요소와 내용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기때문이다. 혁명적세계관에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요소인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 자주적인 지향과 리상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모든 내용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특히 인류의 세계관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 그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이 가지게 되는 세계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 혁명투쟁의 원리와 원칙, 방도를 밝혀주는 주체의 혁명관, 사람의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인생관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인류의 자주의식발전의 총 집대성이며 그 최고정화인것으로 하여 사람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사람이 자주성을 본질적속성으로 가지게 되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과 함께 사회적인 실천활동을 하는것과도 중요

하게 관련된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실천활동을 할 때에만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된다. 물론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인것만큼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는데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이 선차적인 공정으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소유하는것만으로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 되는것은 아니다. 자주성은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며 세계를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는 투쟁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은 우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사물현상에 대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것을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관계속에서 사회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형성될수 없다. 이것은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형성자체가 사람의 사회적활동을 전제로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또한 사람의 자주적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요구가 실현되고 보다 높은 새로운 자주적요구가 제기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가지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발전하며 그에 따라 사람의 자주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강화발전해나가게 되는것이다.

자주성은 이처럼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주적활동을 벌려나가는 인간,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을 반대하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을 가리키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자주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철학적리해가 주어지게 되였으며 사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가치를 확고히 지킬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자주적요구

자주적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그 본성으로부터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합니다.》(《**김정일**선집》 10권, 93페지)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본성으로부터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 자주적요구를 가진다. 자주적요구가 사람의 자주적본성으로부터 가지는 요구라는것은 그것이 자주성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성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라는 규정자체에 자주적요구가 담겨져있다. 자주적요구는 자주성에 바탕을 두고있으므로 자주적요구의 내용이자 자주성의 내용으로 된다. 자주적요구에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요구, 모든것을 자기에게 복무시키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요구,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려는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자주적요구를 포함하지 않는 자주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면 자주적요구를 가지게 되고 자주적요구를 가지고있다는것은 곧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적요구는 자주성의 발현이다. 따라서 사람이 자주적요구를 가지고있다는것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이것은 자주성과 자주적요구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선후차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체득되는 관계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주위세계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가지는것이다. 자주적요구의 담당자, 주

체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이는 자주적요구자체가 제기되지 않는다.

※ 우리는 흔히 시대의 요구, 혁명의 요구, 력사발전의 요구 등 여러가지로 요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력사적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사람, 인민대중의 요구이지 그 어떤 객관적조건이나 대상의 요구가 아니다. 사람이외에 그 어떤 객관적조건이나 대상자체는 요구를 제기할수도 없고 가질수도 없다.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사회생활과 사회적실천활동과정에 주위세계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생활상요구이며 실천적요구이다.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은 사람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부터 벌리게 되는것이며 또 그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요구를 가지게 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지배해나가지 않고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수도 없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도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며 사회적실천활동을 벌리게 된다. 이 과정에 사람은 주위세계의 대상에 대하여 자주적요구를 가지게 된다.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은 자주적요구를 가진 사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다. 자주적요구는 사회생활, 사회적실천과정에서 대상에 대하여 사람이 주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각된 사회적요구로서 인간개체의 본능적요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거기에는 현실적인 사회력사적조건에 맞는 구체적내용이 담겨진다.

사람은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맞는 자주적요구를 내세우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관적욕망은 자주적요구가 아니며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한갖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가지는 자주적요구는 사회발전의 구체적력사적조건과 사람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각이한 내용을 담게 되며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자주적요구가 사회생활, 사회적실천과정에서 사람자신이 주동적으로 가지는것이지만 사람의 주관적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내용을 담는다는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생활

적요구가 사람에게 자각된것이 자주적요구이며 그것이 사람의 의식에 반영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이룬다.

노예사회에서 노예들에게는 자기들의 비인간적인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활적요구가 생기게 되였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기간 이 요구를 자각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마소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노예소유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감수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처지와 고통스러운 생활체험을 통하여 노예소유자의 비인간적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적요구를 자각하고 자주의식을 가졌을 때 비록 자연발생적이기는 하지만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일어났으며 결과 노예제도를 멸망에로 이끌어갔던것이다.

사람은 자주적요구를 자각하고 자주의식을 가졌을 때 자주성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다.

자주적요구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것은 아니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지배계급은 자주적요구를 가질수 없다. 그들이 가지는 요구는 사람들을 예속시키고 착취함으로써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말살하는 비인간적요구로서 자주적요구와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자주적요구는 오직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인민대중만이 가지는것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자주적활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람은 자주적요구를 가질뿐아니라 자주적인 활동을 한다. 사람은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것으로 하여 다름아닌 자주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는 존재, 자주적인 존재로 된다.

사람이 자주적활동을 벌리는것은 곧 그가 자주적요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그의 자주적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이 가지고있는 자주적요구의 내용과 그 높이, 자주적요구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은 직접 눈으로 볼수 없는것이며 오직 그가 벌리는 자주적활동에 의해서만 구체적으로 파악될수 있다.

자주적요구는 사회적활동의 근본동인을 이루며 그것으로 하여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사상의식이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게 되는것이다.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자주적활동을 하는 바로 여기에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참다운 본질이 있다.

자주적요구와 자주적활동과의 관계속에서 보면 자주성은 사람이 가지는 자주적요구나 자주적활동 그자체가 아니라 자주적요구와 자주적활동에서 표현되는 사람의 성질인것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자주적요구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기본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사상의식은 그에 반영된 요구와 리해관계의 근본성격에 따라서 자주적인 요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상의식과 자주적인 요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데 복무하는 사상의식으로 구분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의지이다.

원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개념은 주체철학이 처음으로 내놓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해명한 독창적인 개념이다.

종래 철학들에도 《자기 의식》, 《자의식》이라는 개념은 있었다.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은 특히 도이췰란드고전철학에서 중요한 철학적개념으로 취급되였다. 여기서 《자기 의식》은 사람이 사유한다는것을 자각한 의식을 의미하였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인 본성이 밝혀진 기초우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해명된 개념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의 이러저러한 요구가운데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사람은 실천투쟁과정에 생활상요구로부터 자기 운명이 신이나 그 무엇에 의해서 좌우지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을 깨닫고 자기 운명의 주인답게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주적요구에 대한 자각인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진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적요구를 자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의 구속과 예속, 사회적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요구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본질적내용의 하나로 된다.

자주적요구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동적으로 가지는 자각된 생활상요구로서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풍부한 정신생활을 누리며 정신문화적으로 발전할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풍족하게 살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9권, 31페지)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주적요구는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그것은 입고 먹고 쓰고 사는 걱정을 모르고 보다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헐하고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면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사람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주적요구는 사회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며 그것은 온갖 사회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사람이 자기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주적요구는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며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힘있는 존재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으면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예속되게 되며 그 어떤 자주적인 생활도 누릴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한 첫째가는 생명으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살며 발전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람의 자주적요구에는 집단의 자주적요구와 개인의 자주적요구가 있게 된다.

집단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집단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이며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적집단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가지는 요구이다.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개인주의적요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집단으로부터 응당 보장받을수 있는 요구라면 개인주의적요구는 집단에 기여한것이 없이 모든것을 자기 개인의 리익에 복종시키려는 개인주의적탐욕이다.

집단의 자주적요구와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다같이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확립됨으로써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문제가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창 조 성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을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

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함께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자주성이 사람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성질이라면 창조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세계의 유일한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되게 하는 성질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사람은 주위세계에 예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며 자기에게 복무시키려는 지향과 요구로부터 자연과 사회의 대상들을 개조변혁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활동을 한다. 동물과 같은 생물유기체의 활동에는 그 어떤 대상을 개조하는것과 같은 창조의 계기란 있을수 없다. 동물들은 살아나가기 위하여 자연이 제공하는 기성의 사물을 그대로 섭취하고 리용할따름이다. 거미가 먹이를 잡기 위하여 줄을 치고 새가 둥지를 트는것과 같은 기묘한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동물적인 본능적행위로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며 그것으로 하여 자연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물론 주위세계의 환경과 사물현상들을 그대로 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성질로서의 창조성은 사람이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창조적활동을 벌리는데서 발현된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른 생물유기체는 개체와 종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적, 육체적능력을 가지고있을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와 같은 능력과 함께 사회적존재에게만 고유한 능력,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하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창조적능력은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 증거이며 또 사람이 창조성을 지니고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창조적능력이 없는 사람은 창조성을 지닐수 없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고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할수 있다.

창조성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에서 발현된다. 창조적활동은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존재방식이다. 사람은 창조적활동을 하는것으로 하여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된다.

창조성이 사회적인간의 중요한 속성을 이루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철학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종래의 철학들에서 사람의 창조적특성에 대한 견해가 제기된것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철학의 발전과정에 많은 철학자들이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을 밝히는데 기본을 두면서 그 해결의 테두리안에서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는데 주의를 돌리였으며 사람의 창조적특성에 대하여 자기나름의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시기 철학들은 아직 객관적대상 즉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었던 인식의 력사적제한성과 특히는 그들의 거의 전부가 착취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였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사람의 창조적본성을 옳게 해명할수 없었다. 종래에 있었던 사람의 창조적본성에 대한 론의는 많은 경우에 사람의 창조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것이였으며 사람의 창조적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극히 피상적이며 단편적인 견해를 내놓은데 불과하였다. 선행철학들에서 제기되고 고찰된 창조적특성문제는 사람이 가지는 창조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과는 인연이 없는것이였다.

일찍부터 반동적인 착취계급에 의하여 널리 퍼지였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켜온 종교는 사람의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종교에 의하면 오직 신만이 전지전능한것으로서 무한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고 사람은 세계의 모든것과

함께 신의 창조물로서 신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존재인것이다. 이와 함께 사람은 신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할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인것이다. 종교에 따라 일련의 특색이 있지만 사람이 신의 노복으로서 모든것을 신에 의탁하며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야 하는 무력하고 아무런 창조성도 가질수 없는 존재라는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교리이다.

이러한 종교의 교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마비시키고 그들에 대한 계급적지배와 억압을 합리화하며 무제한한 착취를 보장하는데 복무하였다.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발생발전한 고대유물론철학에서는 사람의 창조적특성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들을 내놓았다.

고대유물론철학자들은 신의 존재와 신에 의한 사람의《창조》에 관한 종교교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리성적으로 사고할수 있는 정신적능력을 사람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창조성에 대한 과학적해명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극히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여기에는 사람의 정신적능력만을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면서 그것을 특정한 사람들 즉 노예소유자계급만이 가질수 있는것으로 인정한 립장이 깔려있다.

그러나 고대유물론철학자들이 제기한 견해는 모든 창조적능력을 환상적인 신에게 부여하고 사람의 창조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종교적세계관에 반기를 든것이였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서 소박하게나마 사람의 창조력을 인정한것으로 하여 또 사람의 창조적특성을 해명하려고 한 력사상의 첫 시도인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철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였던 중세기철학에서는 사람의 창조적특성을 해명하는데서도 비과학적인 종교적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람의 창조적특성에 대한 해명에서 새로운 전진은 근세부르죠아철학에서 이룩되였다.

근세부르죠아철학자들은 인간을 사유하는 존재로, 사유를 인간의 본질로 보면서 인간활동의 적극성, 능동성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사람의 활동에서 과학과 리론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지식은 힘이다!》라는 구호가 제시되고 계몽과 교육의 중요성이 광범히 선전되였으며 사람의 인식능력과 인식방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창조를 리성의 근본특성으로 봄으로써 그것을 사람의 본성과 련결시키려는 합리적인 견해도 제기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도이췰란드고전철학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변적리론활동에 창조적, 능동적성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인간의 본질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문예부흥시기의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이췰란드고전철학에 이르기까지의 근세부르죠아철학에서 사람의 창조적특성에 관한 고대철학의 견해가 계승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근세부르죠아철학가들의 사람의 창조적특성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인간의 특성인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천활동과는 인연이 없는 순수 정신적활동에 국한되여있는것이였다. 그리고 이들의 견해는 창조적특성에 대한 극히 일반적이고 단편적인것이였으며 그 본질과 형성발전의 합법칙성, 그것이 사람의 존재와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사람이 가지는 다른 특성과의 호상관계 등 사람의 창조성에 대한 과학적견해가 주어야 할 어느 한 문제도 옳게 해결하지 못한것이였다.

창조적특성문제해결에서 지난 시기 철학들의 이러한 일면성과 비과학성은 아직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이 없었던 당시의 인식발전의 력사적제한성과 함께 특히는 이 철학들의 거의 모두가 착취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었던 계급적제한성과 관련되여있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선행로동계급의 철학은 인간활동의 창조적특성이 단순히 그 어떤 정신적창조에 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로동활동, 사회적실천에 대한 문제이며 사람들이 창조활동을 할수 있는것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기때문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창조적힘은 력사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대되는데

따라 더욱더 커진다는것을 론증함으로써 인간의 창조적능력의 사회력사적성격을 해명하였다.

이것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이 인간활동의 창조적특성에 관한 문제를 유물변증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창조성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할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창조성을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성질로, 인간의 본성으로 정식화하지는 못하였다. 맑스주의는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성질로서의 창조성을 로동이나 혁명실천의 특성에만 국한시키고 그것을 인간본성이라는 각도에서 더 깊이있게 전개하는 방향으로는 나가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인간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심오한 해명에 기초하여 창조성을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하나로 규정하고 과학적으로 밝혔다.

창조성은 무엇보다도 현실세계에 이미 있는 낡은것을 새롭게 개변해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현실세계에 이미 있던 낡은것을 새롭게 개변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그 어떤 예속과 구속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자기에게 복무시키려는 요구로부터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물들의 구조와 형태, 속성들을 개조하고 변화시켜 리용한다. 사람은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없애거나 유리하게 변화시킨다. 사람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기도 하고 강의 흐름을 돌리기도 하며 가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저수지도 만들어 리용한다.

사람은 사회관계, 사회제도도 불합리한것을 새롭게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것으로 만들어나간다. 동물들은 주어진 생활환경이 불리하여도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동물들은 자기를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만 살아나갈수 있다. 이처럼 현실세계에 주어져있는것, 낡은것을 새롭게 개변해나가는 성질이라는데 창조성이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하나가 있다.

창조성은 다음으로 현실세계에는 전혀 없는 새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에 있는 사물현상들을 개변시킬뿐아니라 주위세계에 기성의 형태로 주어져있지 않는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사람은 주위세계를 지배하며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으로부터 이미 주어져있는것의 부분적인 개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간다. 인간의 창조적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이미 주어져있는것의 부분적인 개작이나 변형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주위세계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사람의 힘든 로동을 대신하는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수단들 그리고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들은 거의나 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산물이다. 새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주위세계에는 자연자체로서는 만들어낼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사물, 인공적인 창조물들이 출현하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위세계에 대한 지배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간다.

사람은 혁명투쟁을 통하여 낡은 자본주의적착취제도를 청산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근절된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웠다. 이처럼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라는데 창조성이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가 있다.

창조성은 다음으로 모든것을 주어진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은 언제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속에서 살며 활동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작용하는 환경과 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있는 개별적사람들의 처지와 능력, 성격과 취미 등도 서로 다르다. 사람은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끊임없이 변화되는 실정에 맞게 활동방식과 수법을 바꾸면서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다. 만일 사람들이 주어진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고정격식화된 틀에 맞추어 한다면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 모든 활동을 주어진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는 여기에 창조성이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또 다른 하나가

있다.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정이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변시킬뿐아니라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며 주어진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목적의식적인 과정이다.

창조성의 내용을 이루는 이 모든 성질들은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으며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발현된다.

창조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고 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것이 아니다. 무위도식하고 건달을 부리는자들,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남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자들에게는 창조성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창조성은 참다운 사회적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다. 사람이 가지는 창조성의 수준은 각이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창조성을 높이 체현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품격과 가치가 규정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창조성을 높이 체현할수록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창조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하나로 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사람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철학적리해가 주어지게 되였으며 세계의 개조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창조적능력

창조적능력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사회적인간의 활동능력을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집》 36권, 247～248페지)

창조적능력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능력이다.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일반과는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속성, 창조성을 가지고있다. 사람이 그 어떤 생물유기체도 가지지 못하는 창조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바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벌리게 된다. 결국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곧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능력이라는 말은 일정한 사물이 발휘할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기계설비나 생명체에는 다 그것들이 발휘할수 있는 힘, 능력이 규정되여있으며 사람에게도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고유한 능력이 있다.

사람이 어떤 활동능력을 체현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리해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의 활동능력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사람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울수도 있고 세계의 변화발전에 종속된 무맥한 존재로 고찰할수도 있다.

지난 시기의 철학사상들에서는 사람의 활동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가 주어지지 못하였다.

반동적착취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자기의 리해관계에 맞게 사람의 활동능력을 외곡함으로써 착취사회를 적극 합리화하였다.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사람의 활동능력을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존재에 의해 주어진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사람을 아무러한 능동적힘도 가지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의 활동능력을 생명물질일반의 생존능력과 다를바 없는것으로 고찰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적, 생물학적존재와의 질적차이를 구별할수 없게 하였다.

물론 맑스주의철학이전시기에도 사람의 활동능력에 대한 진보

적인 견해가 제기되였지만 그것은 사람의 인식능력을 일정하게 해명하는데 머물러있었다.

맑스주의철학단계에 와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고찰은 과학적 토대우에서 론의되기 시작하였다. 맑스주의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인식능력에 대한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실천능력이 사람의 중요한 활동능력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활동능력일반에 대한 완성된 견해로는 될수 없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창조적능력이 사람의 고유한 활동능력을 이룬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김일성**전집》 64권, 18페지)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으로서의 창조적능력은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생리적능력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인간에게만 고유한 힘, 활동능력을 가리키는것이다.

물론 인간에게도 생물유기체로서의 생명활동을 보장하여주는 생리적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동물이 가지고있는 생리적능력과 다를바 없으며 그것은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에 있어서 생명물질일반과는 달리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할데 대한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창조적능력은 바로 인간의 생리적능력이 아니라 세계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 능력, 인간에게만 고유한 활동능력이다.

인간의 창조적능력이 육체적기관들의 이러저러한 생리적작용에 기초하여 발휘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간단한 기억을 하나 하자고 하여도 기억세포들의 활발한 작용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기

억세포가 파괴되면 기억능력도 상실하게 되는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생리적능력자체는 창조적능력의 전제로는 될수 있어도 그자체가 창조적능력으로는 되지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건전한 두뇌와 육체적힘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학지식과 같은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세계를 옳바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없으며 따라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될수 없다.

인간의 창조적능력은 그 어떤 생리적능력이 아닌것으로 하여 사회력사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리적능력자체는 인간유기체와 함께 타고나는것으로 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리적능력만으로서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무한히 발전해나갈수 없다. 인간은 바로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창조적능력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무한히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창조적능력은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활동능력, 사회력사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증대하는 인간의 사회적활동능력이다.

창조적능력은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 증거일뿐아니라 그 발현이다. 창조적능력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활동을 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본질적속성으로 지닐수 없다.

창조적능력은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이 사람의 체력과 결합되여 이루어진다.

창조적능력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과학기술지식이다.

과학지식은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의식이며 기술지식은 물질기술수단들을 만들고 리용하는 일반적원리와 방도, 구체적인 창조방법과 리용수법에 관한 지식이다. 사람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을 떠난 사람의 창조적능력에 대하여 말

할수 없으며 과학기술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는 창조적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지식에 의하여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무한히 증대하고 발전한다. 인간의 지능의 발전에 따르는 과학기술지식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인간의 창조적능력의 무궁무진성은 바로 과학기술지식의 끊임없는 발전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에서 경험과 기능, 숙련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험은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정에서 체험을 통하여 육체에 체득된 창조를 위한 조작행위와 개별적조작들의 총체를 말한다. 경험이 쌓이고쌓여 기능으로 발전하며 숙련으로 완성된다. 사람이 창조활동과정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모든 활동을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능숙하고 효률적으로 벌려야 한다. 그런데 창조적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률성은 경험과 기능, 숙련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험과 기능, 숙련은 사람이 벌리는 창조활동의 매개 계기마다에서 이어지는 조작행위와 개별적동작들을 하나의 활동으로 결합시키고 모든 동작들을 기민하고 원활하게 해나가게 함으로써 창조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률성을 확고히 담보한다.

경험과 기능, 숙련은 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하여서만 높은 수준에서 체득하고 공고발전할수 있으며 그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은 사람의 체력과 결합되여 창조적능력을 이루고 물질적힘으로 작용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면 창조적활동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8권, 401페지)

사람은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허약하고 무기력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을 제대로 습득할수도 없고 이미 가지고있는 과학기술지식과 기능, 숙련도 제대로 써먹을수 없다.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은 그 어느 하나도 체력과 떨어져서는 창조적능력을 이루지 못한다. 체력은 창조적능력을 이루는 요인들인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을 하나로 결합시키

는 요인일뿐아니라 그것을 개조대상에 직접 작용시켜 현실적인 물질적힘으로 전환시키는 필수적요인이다.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은 체력과 결합될 때 물질적힘으로 된다. 과학기술지식은 인간의 사유기관인 뇌수에 체득되고 그에 의하여 활용되며 경험과 기능, 숙련은 뇌수와 함께 로동기관인 손과 발, 감각기관들에 체득됨으로써 체력과 결합된다.

이처럼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 및 체력은 하나로 결합되여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이루며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물질적힘으로 작용한다.

사람의 창조적능력과 관련하여 자연개조의 창조력으로서의 사회의 생산력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사람과 생산도구로 이루어진 사회의 생산력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힘이며 창조적능력이다. 여기서 생산력, 생산도구가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력 또는 창조적능력이라고 하는것은 생산도구자체가 창조력이라는것이 아니라 생산도구가 발휘하는 힘이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력이라는것이다.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발동하여 생산도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자연을 개조해나간다.

사람이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발휘하는 창조력은 자기의 창조적능력이 체현된 생산도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생산도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의 창조적힘은 더욱더 장성하며 따라서 생산도구는 사람의 창조적능력, 창조력의 발전수준을 재는 척도로 된다. 생산도구가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힘으로 되는것은 특히 생산도구에는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체현되여있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직접 자연을 개조해나가기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기능, 숙련을 소유하고있다고 해도 그러한 창조적능력을 체현한 생산도구를 가지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에서 자기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자연개조에서 생산도구가 발휘하는 힘은 아무리 위력한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창조적힘인것이다. 생산도구는 그 어떤것이든지 사람과 떨어져 그자체로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수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것은 생산도구가 발휘하는 힘이 사람의 창조적힘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생산도구에 체현함으로써 자연개조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나가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축적하고 다음세대에 넘겨주며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따라서 사람이 지니고있는 창조적능력의 높이이자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힘의 높이로 되는것이다.

사람과 생산도구로 구성된 생산력을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힘이며 창조적능력이라고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산도구가 발휘하는 힘이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힘이며 창조적능력이라고 하여 생산력, 생산도구와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꼭 같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생산도구가 사람과 함께 생산력의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파학기술지식과 기능, 숙련과 같은 창조적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생산도구가 사람의 로동력과 결합되여 내는 힘을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창조력, 창조적능력이라고 하는것이다.

창조적능력은 인간활동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창조적능력은 인간활동의 내용에 따라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으로 나누어진다.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두 계기를 이루는것만큼 인간의 창조적능력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으로 구분된다. 인식능력에 의하여 인간의 인식활동이 담보된다면 실천능력에 의하여 사회적인간의 실천활동이 담보된다.

인식능력은 사물현상의 외적속성을 감각하고 지각할뿐아니라 감성적인식에 의하여 반영된 자료들을 추상적사유를 통하여 분석, 종합, 개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사물현상들의 본질과 발전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인식능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며 그에 기초하여 주위세계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구상을 세우게 된다.

실천능력은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직접 개조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사람은 인식능력과 함께 실천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수단을 만들며 유리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직접 창조한다.

창조적능력은 또한 인간활동의 대상에 따라 자연개조능력과 사회개조능력으로 구분된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이다. 사람은 바로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자연과 자기가 살고있는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재부를 만들며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한다.

자연개조능력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자연개조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된다.

사회개조능력은 사회관계를 변혁하고 개조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혁명적능력이다. 사람은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회관계를 없애버리고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혁명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간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의 창조적능력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확립됨으로써 사회적인간의 능력에 관한 리해가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의 식 성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을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25페지)

의식성은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사람을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구별하게 하는 본질적속성의 하나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려나간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은 인식활동이며 그것을 개변하기 위한 활동은 개조활동, 실천활동이다.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을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사람에게만 고유한 활동방식이며 자기의 존재와 발전의 기본조건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개조함으로써 필요한 생활수단과 생활조건을 마련하고 살며 발전할수 있다. 우리는 동물들의 생존활동에서 의식성을 방불케 하는 행위들을 흔히 볼수 있다. 새가 나무에 둥지를 트는것이라든가 꿀벌이 밀납으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을 저축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그러한 실례들이다. 동물들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의식적인것 같이 보이지만 동물의 본능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의식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고유한 속성으로서 사람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의식성을 가지지 못한다.

의식성은 무엇보다먼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상하고 계획해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다.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는 사람의 인식활동, 실천활동은 자주적요구와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벌리게 되는 합목적적인 창조적활동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먼저 목적을 세운다. 목적은 사람이 활동을 통하여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고 활동의 결과에 대한 예정이며 활동에 의하여 산생될 사물현상에 대한

관념적표현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생활상요구, 그가운데서도 가장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실현을 위한 실제적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내세운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은 파악되고 타산된 생활상요구이고 예정된 활동방향이며 목표이다. 목적을 옳바로 세우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첫 공정이며 그 성과의 기본전제이다. 옳바로 세워진 목적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신심에 넘쳐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한다.

사람은 뚜렷한 목적을 세운 다음에는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구체적조건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수법과 묘술을 적용하여 설정된 목적을 실현해나갈것인가를 구상하고 계획한다. 사람의 머리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상과 계획은 인식과 개조활동의 로정과 공정에 대한 설계이다. 사람은 인식과 개조의 전 과정과 거기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하면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단계와 순차로 목적을 달성할것인가를 작전하고 설계한다.

이처럼 자기의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목적을 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의도적으로 활동을 벌려나가는 사람의 성질이 바로 의식성이다.

의식성은 다음으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발휘하는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는 사람의 성질이다.

인간의 의지와 투쟁력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에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인간의 활동은 언제나 일정한 의지와 투쟁력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의지와 투쟁력을 떠나 인간의 인식활동, 실천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업이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연을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는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력의 장애를 받으며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에서는 낡은 사회세력의 반항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은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이처럼 자연

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조활동에서 발휘되는 의지와 투쟁력을 규정하는 사람의 성질이 바로 의식성이다.

의식성은 다음으로 인식과 개조과정에 조성되는 정황에 따라 자기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절통제해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정황이 조성될수 있다. 인식과 개조과정에 부닥치는 새로운 정황들은 미리 예견했던것도 있을수 있고 예견치 못한 돌발적인것도 있을수 있다.

사람들은 인식과 개조과정에 부닥치는 새로운 정황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거나 이미 세워진 활동계획대로 무작정 내미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황에 대처하여 활동계획을 수정하고 조절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해나간다.

사람은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근원과 사태발전추이 그리고 그것이 인식개조활동에 미치게 될 영향을 타산한다. 그리고 정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처할 방도를 모색하며 그에 맞게 자기의 활동계획을 수정하고 활동을 조절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부닥치는 새로운 정황과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뚫고나가며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원만히 실현해나가는 성질이 의식성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은 의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의식성도 뇌수의 고급한 기능인 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의 성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입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43페지)

의식은 사람의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으로서 현실을 반영하며 사람의 인식과 실천활동을 지휘하고 조절통제한다.

사람의 의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활동의 목적과 계급적성격 그리고 그 활동에서 발휘되는 의지와 투쟁력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람은 선진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투쟁하게 된다. 그러나 반동적인 사상, 부르죠아사상을 가질 때에는 사회와 집단의 리익은 안중에 없이 개인리기주의만을 추구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역행하는 반동적, 반혁명적행위를 하게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이 가지는 의식의 다른 형태인 지식과 감정의 형성과 작용도 규제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을 얼마나 높이 소유하며 그것을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것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며 감정이 어떤 성격을 띠고 나타나며 얼마나 예리하게 표현되는가 하는것도 사상의식에 따르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의 의식성의 높이는 결국 그가 지니고있는 사상의식의 높이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사람의 의식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지식이다.

지식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의식형태로서 사람의 인식과 실천활동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하게 된다.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활동의 목적과 성격,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한다면 지식은 사람들의 활동이 대상의 특성과 그 발전법칙에 맞게 옳바로 진행될수 있게 담보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할수록 사람들은 인식과 개조활동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의 의식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감정이다.

감정은 사람들이 가지는 객관적현실에 대한 정서적체험으로서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과 구별될뿐아니라 사물현상의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지식과도 구별된다.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사랑과 증오, 동정과 질시 등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사람들의 활동에 이러저러하게 작용한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투쟁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데서 감정이 노는 역할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감정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의 과감성, 예리성, 투철성을 규정한다.

이 모든것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질 때에만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는 의식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의식을 가지는것은 의식성을 가지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 될수 없다.

의식성은 사람의 인식활동, 실천활동을 떠나서 지닐수 없다. 의식성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회적활동과정에 사람에게 형성되고 체득되며 발현되게 되는것이며 또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 실천투쟁속에서 선진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넓고 깊은 지식, 고상한 감정을 체득하고 높이 발양해나가는 사람만이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 된다.

이 모든것은 의식성은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활동을 벌려나가는 사람의 고유한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의식성과 의식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의식은 고도로 조직된 인간뇌수의 기능이라면 의식성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하나로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가장 고급한 속성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인류의 철학사를 더듬어보면 사람이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것을 인정한 철학자들은 있었으나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밝힌 철학은 없었다.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로서의 의식성과 의식이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는것만큼 의식성과 같은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에 대하여 옳바로 해명하자면 의식과의 련관속에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탐구되여야겠으나 지난 시기에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철학자들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류의 철학적사유가 시작되여 수천년이 흘렀고 력사상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세계관이 있었지만 그 어느 시대 어떤 철학도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옳바로 밝히지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하나를 이룬다는것을 해명하지 못하였다.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온 종래의 철학자들은 의식현상을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관한 문제와 직접 련관시켜보지 못하고 사람과 분리시켜보았거나 단순히 물질과의 관계속에서 해석하였다.

관념론철학은 의식을 심히 외곡하여 해석하였다. 모든 관념론자들은 례외없이 의식을 사유, 개념뿐아니라 자연, 물질세계를 산생시킬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 정신적실체로 즉 사유할뿐아니라 존재하는 모든것을 창조하는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의식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있는가 하는데서 의견을 달리하였을뿐이다.

객관관념론자들은 의식이 인간밖에서 존재하면서 세상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고대관념론철학자인 플라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사물은 영원한 의식인 《행복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의 반사광이라고 생각하였으며 19세기의 관념론철학자 헤겔은 자연이나 사람

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하는 그 어떤 신비한 의식, 《절대리념》이라는 비물질적인 정신적실체가 부단히 자기 발전을 하여 자연으로 전화되고 자연으로 전화된 《절대리념》이 다시 자기자신으로 돌아간다고 함으로써 물질세계를 《절대리념》의 소산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절대적인 의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기초로 되며 사람은 그 어디엔가 존재하는 정신, 의식의 노예로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한다는것이다.

관념론은 의식의 물질적근원, 그 생리적기초를 무시하고 육체로부터 정신, 의식의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정신, 의식과 육체와의 대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을 극히 비현실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객관관념론의 립장에서는 현실적인 인간의 본질적속성인 의식성문제를 설정할수 없었다.

주관관념론자들은 그 어떤 개인적인 의식이 세계의 모든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18세기의 주관관념론자인 피히테는 《자의식》이 사유과정에 외부세계를 창조한다고 보았으며 같은 시기의 영국관념론철학자 버클리는 신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의식이 모든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것은 인간감각의 온갖 발현, 《감각의 복합》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개별적인간의 주관적의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반영이 아니라 그 기초로 된다. 이러한 견해는 필연적으로 개별적인간의 의식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모든것은 개인의 의식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라고 보는 유아론에 떨어지게 된다.

주관관념론은 사람을 그 어떤 알수 없는 주관적자의식의 산물로 보며 물질세계의 객관적인 존재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을 부인하고 그것을 신비한 정신의 작용으로 외곡하고있다.

관념론은 인간의 본질을 의식에 귀착시키고 의식의 역할을 절

대화함으로써 사람의 역할을 최대로 강조하는것 같은 인상을 조성하나 그것은 아무러한 현실성도 없는 공허한것이다. 관념론자들이 떠들고있는 의식은 초물질적인것이며 그러한 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 인간활동이란 다만 정신, 의식속에서만 진행되는 활동, 환상속에서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관념론자들은 결국 의식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분리시킴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현실적인 인간의 속성, 의식성문제를 제기할수 없었다.

원래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식성에 관한 문제도 그 어떤 외곡이나 편견이 없이 현실적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 고찰할 때만이 밝혀질수 있다. 그러나 관념론철학은 례외없이 의식에 관한 문제를 현실적인간과 그 생활을 떠나서 순수 사변적으로 론의함으로써 결국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서의 의식성문제를 밝힐수 없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이전 유물론자들 역시 의식에 대한 비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일부 유물론자들은 의식은 본성에 있어서 물질적이고 물질의 일정한 형태에 불과하며 따라서 물질과 의식은 물질의 한 형태가 다른 형태와 구별되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의 활동과 다른 사물들의 운동과의 근본적인 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다만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피동적인 존재로 취급하였다. 결국 의식은 본성에 있어서 물질적인것이라고 생각한 로동계급의 철학이전의 일부 유물론자들은 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물질세계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게 되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의식성을 밝힐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철학이전 어떤 유물론자들은 또한 의식은 본성에 있어서 정신적이고 관념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비록 물질과 의식사이의 질적차이는 보았지만 물질의 모든 형태들이 의식을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의식은 물질일반의 속성이 아니며 사람의 뇌수

와만 결부되여있는 특수한 속성이다.

그들은 의식을 사람에게만 고유한 정신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로부터 그들 역시 의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다른 물질적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취급할수 없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의식문제를 둘러싸고 벌려온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의식문제를 유물변증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람의 의식성에 대한 리해를 확립할수 있는 전제의 하나를 마련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물질과 의식간의 관계문제를 변함없는 철학의 근본문제로 인정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이 과정에 의식의 형성, 발생의 기원 및 근원에 관한 문제를 유물변증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의식성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성질이므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를 창조하며 움직이는 그 어떤 신비한 존재나 힘도 없다는것이 확증된 기초우에서만 설정되고 해명될수 있다.

바로 사람의 의식에 대한 유물변증법적인 해명에 의하여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에 관한 문제가 론증되고 세계에는 그 어떤 초물질적이며 초인간적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사람의 의식성에 대한 리해를 확립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전제의 하나를 해명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물질과 의식간의 관계문제를 유물변증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종속시켜 사람에 관한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사람의 의식성에 대한 리해를 밝히는데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은 사람중심의 주체철학에 의하여 비로소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사람의 의식성에 대한 과학적리해가 확립됨으로써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인류의 철학적사유가 수천년을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해결하지 못하여 모대겨온 사람에 대한 리해가 비로소 완벽하게 해결되게 되였다.

사상의식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적관계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처한 사회적처지와 생활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상요구를 제기하며 그로부터 출발하여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에 대한 각이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람들은 사회생활과정에 누구나 다 일정한 생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생활적요구와 리해관계가 사람의 뇌수에 반영된것이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생활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식의 다른 이여의 형태들과 구별된다.

사람의 의식에서 사상의식과 함께 지식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식은 객관적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의식이다.

지식도 현실의 반영이라는데서는 사상의식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사상의식은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철저히 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다는데서 지식과 구별된다.

사람이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 대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엄연한 객관적현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가 그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이며 리해관계라는데 기인한것이다.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과의 관계에서 주동적으로 가지는것만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요구이며 리해관계이다. 물론 요구 그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실체는 아니지만 현실적인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물질적실체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관계인것과 같은 리치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의식이 주위세계를 두 측면에서 반영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그 한 측면은 물질적존재 그자체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지식이며 다른 한 측면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에 대하여 사람이 주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 가지는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요구와 리해관계가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관계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것이라는것을 말한다. 사람의 의식을 지식과 사상으로 갈라본 여기에 의식에 관한 선행한 유물론의 제한성을 극복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이 있다.

맑스-레닌주의철학은 사람이 주위세계와의 관계에서 주동적으로 가지는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을 의식일반에서 갈라내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상의식의 역할을 물질에 대한 의식의 반작용으로밖에 설명할수 없었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의식에서 사상과 지식을 갈라내고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리치를 반영한 지식과는 달리 사상의식은 의식의 담당자인 사람이 주위세계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동적으로 가지는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상의식의 본질과 그것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원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였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계급사회에서 사회계급적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사람들의 사회생활조건과 계급적처지는 서로 다르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의 생활적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사상의식은 그것이 사회의 어느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가에 따라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반동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노예적굴종사상으로 구분된다.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

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그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은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이와는 대치되게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은 반동적인 사상의식이다.

노예적굴종사상은 지배와 예속에 굴복하는 반혁명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상의식은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김정일**선집》 14권, 54페지)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무엇보다먼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회적인간이 가지는 자각이다.

일반적으로 자각이란 자기자신을 알고 각성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이 자기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깨닫고 자기 평가를 내린데 기초하여 각성을 가지고 모든것을 대하며 처신한다는것이다.

세상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존재는 오직 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위세계에서 자기를 분리시키고 그에 대립할수 있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자기를 위하여 복무시켜나가는 자주적존재로 될수 있게 되였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것을 알뿐아니라 자기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가늠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자기를 자각하게 된다.

사람이 가지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자기 운명에 대한 문제, 자기의 생사존망과 생활전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그 어떤 외부적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의하

여 결정된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이며 그에 대한 자각이다. 그것은 세계에는 사람보다 더 귀중하며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가 없다는 자각이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자각이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질 때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세계의 모든것을 자기를 위하여 복무시켜나가는 참다운 자주적인 존재,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다음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사회적인간의 의지이다.

일반적으로 의지는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활동을 일관하게 지향시켜나가는 사람의 정신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목적없이 진행되는 인간의 사회적활동이란 없다. 세워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기의 활동을 일관하게 목적실현에로 지향시켜나가는 정신력이 있어야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의지는 우선 목적달성을 위한 인간의 활동을 떠밀어주는 정신력이다. 인간의 사회적활동은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동된다. 자주적요구는 인간의 창조적능력이 발휘되는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능력이 높아도 의지가 약하면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써먹을수 없다. 높은 창조력이 사람의 활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의지는 또한 사람들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심적동요를 이겨내고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나갈수 있게 한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람들의 활동과정에는 예견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겹쳐들어 사람들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저애를 줄뿐아니라 그들에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과 초조감, 주저와 락심 등 내심적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의지는 인간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이겨내고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나갈수 있게 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는 자기 운명을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고 대담성과 용감성, 완강성과 인내성, 견결성 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자주적인 존재로 되게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적인간의 존재와 발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상의식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제한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이며 그가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쓸모있고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데 대한 사회적평가이다.

사람은 사회와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이 클수록 보다 귀중한 존재로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쓸모있고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것은 그가 가지고있는 돈이나 재산, 외모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개인의 부귀와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고 나라와 민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으며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사람의 품격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품격은 그의 내면세계를 이루는 정신적풍모와 자질이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세계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사상이다. 바로 사상의식을 핵으로 하여 사람의 내면세계를 이루는 의식형태들이 통일적으로 련관되여있으며 사상의식을 근본요인으로 하여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

사람의 품격과 자질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지식이나 감정은 사상의식과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여있으며 그의 직접적규제를 받는다. 그런것만큼 사람이 지닌 자질과 품격의 높이는 곧 그가 지닌 사상의식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사상의식은 다음으로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활동은 목적의식적인 운동이다. 사람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세운다. 또한 활동과정에 목표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하고 동원리용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목적달성에로 자기 행동을 지향시켜나간다.

활동목적과 방향선택, 수단과 방법의 탐구 등 사람의 활동 전과정은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통제밑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그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이 규정되게 되며 목적달성의 성과여부가 좌우지된다.

사상의식이 사람의 활동에서 노는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우선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계급적성격을 규제한다.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하며 그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가 어느 계급출신인가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진보적인 계급,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할 때에는 인민대중의 완전한 해방과 자주성실현을 위해 투쟁할수 없으며 비록 자산계급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자기의 출신계급으로부터 리탈하여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실현을 위해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이것은 간고하고 복잡했던 우리 혁명의 전 력사적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바다보다 넓고 태양보다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겨 인생전환의 새봄을 맞이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헌신한 자산계급출신 지식인들의 운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또한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발휘하는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혁명에 도전하는 착취계급의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 끝없이 덧쌓이는 방대한 혁명과업들과 중중첩첩 앞을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 등 실로 보통의 각오와 담력, 의지가 없으면 한걸음도 걸어나갈수 없는것이다. 혁명의 길에는 뼈를 에이는 슬픔과 눈물, 쓰디쓴 좌절과 실패도 있으며 지어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다. 그런것만큼 혁명의 승패는 철두철미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문제이다. 사람들의 행동에서 발휘되는 의지와 투쟁력은 계급적리해관계에 대한 자각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각오,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필승의 신념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등 혁명적인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원천을 두고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완강한 인내력과 무한대한 담력, 자신만만한 투지와 배짱, 강의한 난관극복정신과 완강성을 발휘하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끝까지 싸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는 과정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우선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실천과정에 여러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자료들을 놓고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 거짓과 진실 등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사회현상을 옳바로 인식했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현상의 본질은 론리적사고의 결과에 따라 인식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여 얻은 감성적자료들을 분석종합하고 비교하며 추상화, 일반화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이루어진다.

례를 들어 사회주의사회에서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난 새 세대들은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비참상을 그들의 회고담이나 당시 생활을 반영한 연극, 소설, 영화 등을 통해 보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립하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리는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비추어 추상화, 일반화하는 과정에 착취계급사회의 반동적본질을 깨닫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된다.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혁명적견해와 관점을 가지면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형성과정은 혁명적인 사상감정이 싹트고 자라는 단계로 넘어간다.

자주적인 사상의식형성에서는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것과 함께 그에 대한 자기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하여 혁명적이고 진보적인것에 대해서는 열렬히 공감하고 적극 옹호하며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인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타매하고 증오하는 혁명적인 사상감정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며 반동적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혁명적인 사상감정을 체득하는 과정에 혁명적으로 의식화되고 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형성의 다음단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일어나 한목숨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사상적각오와 결심이 다져지는 단계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기본적으로 갖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체득할뿐아니라 실천투쟁에 일떠나설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 없는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떨쳐일어나 싸우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적준비와 수양정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실지 혁명실천에 적극적으로 준비되지 못할 때에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주요한 심리적구성요소는 사상적지향이며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혁명투쟁에 용감히 일떠나서 한몸 다 바쳐 싸워갈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으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사람들이 가지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그들이 혁명실천에 나선 다음 혁명투쟁과정에 계속 완성되여나가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혁명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도 자신을 부단히 사상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머리에 녹이 쓸고 사상이 변색해버린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적수양과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고 단련하는 과정에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고 간직해나가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시대와 력사발전의 단계에 따라 각이한 수준에 있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가 시대와 력사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사회발전수준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다르게 나타난다.

봉건시대에 신분적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와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여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자주적요구는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회발전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에 있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발전과 더불어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왔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력사상에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시대의 가장 높은 단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착취받고 억압받던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심어주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투쟁의 길을 환히 명시해주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사상의식발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으며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가 마련되게 되였다.

세계의 지배와 개조

세계의 지배와 개조는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학문인것만큼 사람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범주와 함께 세계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범주를 정립하여야 한다.

사람을 표현하는 범주와 함께 세계를 표현하는 범주들이 정립되고 그에 기초하여 철학이 전개되여야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옳은 리해를 주고 사람이 주위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세계관을 확립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는 사람과 주위세계, 자연과 사회로 이루어져있다.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세계는 전체로서의 현실세계의 기본적인 두 요소, 두 측면을 이룬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이며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이외의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은 서로 구별되지만 사람보다 덜 발전된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주위세계에 포함된다.

사람은 세계에 대한 지배와 개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창조적활동을 벌려나간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지배와 개조의 대상이라는 리해가 주어진다.

대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과의 일정한 관계에 놓이면서 사람의 인식과 실천활동이 미치는 모든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대상으로는 객관적인 물질적존재뿐아니라 의식현상도 될수 있다. 대상은 매 구체적경우에 따라 개별적사물현상일수도 있고 그의 이러저러한 측면일수도 있으며 사물현상들의 일정한 집합체일수도 있다. 대상의 구체적범위와 내용은 인간의 구체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되게 된다. 대상의 개념은 존재, 물질의 범주를 전제로 한다. 무엇이 인간활동의 대상으로 되자면 그것이 존재하여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존재한다는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것이며 바로 그것을 반영한것이 물질적범주이다. 물론 실재에는 객관적실재뿐아니라 관념적실재도 있으나 물질과 의식, 객관과 주관의 구별과 대립은 인식론의 한계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온갖 관념적산물은 그것이 아무리 추상적이고 환상적인것이라 해도 결국에 있어서는 물질의 소산으로서 물질적인것이며 물질적인것만이 유일무이한 실재이다.

존재하는것은 궁극에 있어서 오직 물질적인것뿐인만큼 어떤 사물현상이 대상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그것이 물질적인것이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개념은 물질범주를 전제로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념, 범주가 동일하다거나 대상개념이 물질범주로부터 파생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질이 일반적으로 실재하는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서 의식과의 관계에서 그 규정이 주어진것이라면 대상은 의식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정된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곧 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닌것만큼 물질로부터 대상개념이 파생되는

것도 아니다. 물질과 대상은 호상 련관되여있는 개념, 범주이기는 하지만 각기 자기의 고유한 징표를 가진다.

물질이 의식밖에 그와 독립하여 존재하면서 의식에 반영될수 있다는 징표 즉 객관적실재성을 기본징표로 한다면 대상은 객관적실재성과 함께 인간의 활동이 향해지고 미치게 된다는 대상성을 기본징표로 한다. 대상개념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이다.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과의 관계속에 놓이는 사물현상이다.

그런데 사람과 외부세계의 사물현상들사이의 관계의 현실적내용을 이루는것은 그들사이의 호상작용이다. 이 호상작용은 사물현상으로부터 사람에게 가해지는 작용과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사물현상에 가해지는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측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이며 무의식적인것으로서 대상개념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상개념에 반영되는것은 오직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기초한 사람과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사이의 관계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의 근본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자주성, 창조성이라고 밝혀준다. 자주성은 주로 세계의 주인,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되고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되므로 대상개념에 반영되는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지배의 관계와 개조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상은 지배대상과 개조대상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의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대상이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존재이므로 주위세계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면서 삽니다.》(《**김일성**저작집》 36권, 280페지)

일반적으로 지배라는 말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례컨대 계급적지배와 식민지적지배라는 말과 같이 한계급 또는 한민족에 의한 다른 계급,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구속하는것을 표현할수도 있

고 지배적인 사상, 지배적인 법칙이라는 말과 같이 여러 요소나 현상들의 일정한 총체에서 어느 하나의 주도적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일수도 있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의 확립이라고 할 때와 같이 어떤 다원체로부터 일원체에로의 이행을 특징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지배라는 개념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대상이 조절통제되고 리용되며 사람에게 복무하게 되는것을 표현하는것이다. 사람들이 주위세계의 여러가지 사물현상과 그 운동과정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조절통제하고 리용하는것은 결국 세계를 자기에게 복무시키기 위한것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대상이라는 리해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의 면에서 밝힌 세계의 본질에 대한 견해이다. 세계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모든것이란 온갖 사물현상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말하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곧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곧 세계의 지배자라는것이며 따라서 세계의 지배자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세계는 사람의 지배대상으로 된다.

세계에는 헤아릴수 없는 다종다양한 사물현상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다 사람에게 지배되게 된다. 세계에는 아직 사람이 지배하지 못한 사물현상은 있어도 원칙적으로 지배하지 못할 사물현상이란 없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현상들은 다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서로 구별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고보면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에서는 례외가 없으며 그것은 온갖 사물현상들에 있어서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징표로 된다.

세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발전된 특

출한 존재인 사람과 세계의 관계는 지배자와 지배대상과의 관계외에 달리는 될수 없다.

세계의 지배는 사람과 세계와의 본질적관계이며 바로 이 관계를 반영한것이 세계는 사람의 지배대상이라는 견해이다.

세계는 사람의 지배대상이라는 견해는 사람이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현실적으로 다 지배하고있다는 리해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연과 사회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조변혁하여 그것을 지배하고있는 오늘날에 있어서조차 사람은 아직 자연의 맹목적인 힘의 작용을 다 조절통제하지 못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리롭게 복무시키고있는것이 아니다. 지진이나 큰물,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과 착취사회의 허다한 사회적질곡들이 극복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주고있다. 이런 현상은 인류력사를 거슬러올라갈수록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은 세계에 구속된 존재이며 세계를 사람의 지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로는 되지 못한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세계를 다 지배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와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가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첫째 문제가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지배되고있는가 하는 지배범위와 관련되여있는것이라면 둘째 문제는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세계가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조건에서 인간이 일정한 력사적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세계를 남김없이 다 지배할수는 없으나 그 지배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으며 이 가능성은 인간의 력사발전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현실성으로 전환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것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세계전체를 지배하고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물현상들을 자기에게 복무시키면서 무한한 세계를 끊임없이 지배해나가는 력사적과정에 관통되여있는 본질, 근본필연성을 반영하고있다. 이 력사적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 실현되는 세계의 일정한 령역에

대한 사람의 현실적지배는 이 필연성의 구체적발현이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필연성은 사람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배되는 세계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작용하며 인간이 출현한이래 과거에도 오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작용하는것이다.

세계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리해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다음으로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는 대상이라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은 세계를 자기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유일한 창조적존재인것만큼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할뿐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김정일**선집》 8권, 434페지)

개조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나 과학상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시킬 때 그러한 변화나 그것을 일으키는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는데 쓰인다.

그러나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조라는 개념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이루어지는 대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오직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야기되는것만큼 그러한 활동자체를 개조활동 또는 개조라고 말할수 있지만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대상으로서의 사물현상들과 그 총체로서의 세계를 고찰대상으로 하는 조건에서 사람에 의한 대상의 변화를 개조라고 하는것이다. 개조하는것은 사람이지만 개조되는것은 어디까지나 대상이다.

어떤 사물현상이 비록 사람의 작용에 의하여 일정하게 변화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작용에 의한것이거나 목적의식적인 작용에 의한것이라고 하여도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는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조가 아니라 변화일반에 속한다.

례를 들면 사람이 호흡과정에서 대기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자기의 무게로써 어떤 대상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는것과 같이 인간이 자기의 존재자체로써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변화를 일으키는것

은 생물들이 주위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는것과 본질상 같은것으로서 그것은 개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므로 이 근본목적과 무관계하거나 그것과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로 야기되는 대상의 변화를 개조라고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오직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상의 변화만을 개조라고 하는것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상의 변화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수 있다. 그것은 대상의 형태나 모양의 변화일수도 있고 과정의 변화일수도 있으며 이러저러한 속성이나 기능의 변화일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의 기초에는 그 대상의 구조의 변화가 놓여있는 조건에서 구조의 변화는 대상의 개조에서 기본으로 볼수 있다.

사실상 인간은 무엇보다도 사물현상을 이루는 구성요소와 결합방식을 변화시키는것을 통하여 그것의 속성과 기능을 변화시킨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물질의 구조를 해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커다란 노력을 들였다는것은 대상의 개조에서 구조의 변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는 대상이라는 견해는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노는 역할의 면에서 밝힌 세계의 본질에 대한 리해이다.

주체철학은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의 과학적해답으로 되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일뿐아니라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천명하고있다. 여기에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속성인 창조성을 가지고있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하나인 창조성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을 표현한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사람에 의한 자연과 사회의 개조과정은 사람이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본질적과정을 이룬다.

사람이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라는것이며 따라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고볼 때 세계는 사람의 개조대상으로 된다.

세계의 온갖 사물현상들이 사람에 의하여 지배될수 있듯이 그 모든것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될수 있다. 사람에 의하여 아직 개조되지 못한 사물현상은 있어도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개조되지 못할 사물현상이란 있을수 없다. 세계에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사물현상은 없으나 사람에 의하여 개조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개조는 지배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세계와의 본질적관계이며 바로 이 관계를 반영한것이 세계는 사람의 개조대상이라는 견해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철학이 밝힌것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이며 사람에 의하여 세계가 개조된다는것이지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이 아닙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4페지)

세계에는 사람의 작용과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수없이 많다. 아직은 사람의 활동범위밖에 놓여있는 우주의 령역은 말할것도 없고 사람이 살고있는 우리 행성에서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참가없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수없이 많다. 만일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이 개조해야 할 새로운 대상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인간에 의한 세계의 개조나 지배라는 문제자체가 성립될수 없을것이다.

사람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것은 본질상 사람을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만물을 다 주관하는 허황한 신적인 존재와 같은것으로 보는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것은 사람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세계를 끊임없이 개조해나가는 력사적과정에 관통된 본질적측면, 근본필연성을 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이 력사적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의 일정한 령역에 대한 개조는 이 필연성의 구체적발현이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더욱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는 사물현상들의 종류와 량은 더욱더 많아지며 사람에 의한 세계의 개조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된다. 세계가 현실적으로 사람에 의하여 개조되고있는 동시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조되여나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세계는 사람의 개조대상이라고 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고볼 때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지배와 개조대상이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적관계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이 련관은 이 두 측면이 서로 전제로 하고 서로 담보하는데서 표현된다. 사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현상을 개조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시킴으로써 지배한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지배가 오직 개조를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한편 이미 진행한 개조의 일정한 결과로 이루어진 지배는 새로운 대상을 개조하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개조를 담보한다. 례를 들어 자연의 어떤 대상을 개조하여 로동도구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리용할 때 이것은 대상에 대한 개조를 통한 그에 대한 지배로 된다. 다른 한편 이미 획득한 로동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대상을 개조할 때 이것은 지배에 기초한 새로운 개조이다.

이처럼 지배와 개조는 호상 련관되여있으며 서로 제약하고 담보하는 관계에 있다.

지배와 개조의 끊임없는 교체와 호상이행이 진행되면서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의 력사적발전과정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과학적리해에 기초하여 밝혀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

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을 밝혔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고있는것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며 앞으로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 의하여 세계가 더욱더 높은 수준에서 지배되고 개조되여나가게 되리라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개조발전

개조발전은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계의 변화발전을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인 운동법칙이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론증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주체철학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원리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자기 원인에 의하여 스스로 이루어지는 물질세계의 운동발전과 구별하여 사람의 적극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계의 변화발전을 개조발전으로 규정하였다.

세계에는 사람의 작용을 받지 않고 자기 원인에 의하여 스스로 이루어지는 물질운동과정이 있다. 이 운동과정은 자기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고 자체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물질세계의 자기 운동, 자체발전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적관점에서 볼 때 이 운동발전과정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운동발전과정의 전부를 포괄하지 못한다. 세계에는 자기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질세계의 운동발전과정과 함께 사람의 운동, 사람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동발전과정이 있다. 인간의

운동은 객관적사물현상에 작용하는 대상적인 활동이다. 인간이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외부세계에 작용하는 과정이 인간의 운동이다. 인간의 운동은 언제나 외부세계, 물질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세계의 현실적인 운동발전과정은 물질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과 인간의 작용에 의한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말할수 있다.

인간의 운동과 그에 의한 세계의 개조발전에 대하여서는 맑스주의유물변증법의 원리로써는 옳바로 해명할수 없다. 그것은 맑스주의유물변증법이 사람을 물질세계에 대립하는 특수한 존재로 보지 못하고 물질일반에 해소시킨것과 관련된다. 유물변증법은 사람까지도 물질일반에 해소시켜놓고 물질의 운동을 고찰하면서 물질세계에서 진행되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의 상승적운동을 발전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유물변증법이 세계의 운동발전의 객관적과정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는것, 그것도 물질세계의 운동발전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밝히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여기에 바로 개조발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타당성과 그 정립의 독창성이 있다.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은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과 구별되는 일련의 차이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물질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이 사람의 참가없이 스스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은 사람의 활동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이다.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 인간의 운동은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그것은 또한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은 발전의 징표에 있어서 세계의 자체발전과정과 구별된다는것이다.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의 주되는 징표는 운동의 담당자인 사물의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그 기능이 더욱더 분화되는데 있다. 저급한 물질적존재일수록 단순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있으며 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조가 더

욱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기능도 더욱더 다양하게 분화되여있다.

이와는 달리 세계의 개조발전의 주되는 징표는 해당한 물질적 존재가 사람에게 얼마나 더 잘 복무하는가 하는데 있다. 어떤 물질적존재이든지 끊임없이 높아지는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되였을 때 발전한것으로 된다.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은 물질세계의 개조발전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물질세계의 사물들의 자체운동발전과정은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개조발전과정에 끌려들어와 개조발전과정으로 전환된다. 사람의 운동,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개조발전과정에 끌려들어온 주위세계의 사물들의 자체발전과정은 주로 두가지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것은 첫째로, 주위세계의 사물들의 자체발전과정의 중단이며 둘째로, 그 과정의 촉진 또는 지연이다. 자체발전과정의 중단은 인간의 운동,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개조발전과정에 들어온 물질적대상자체가 파괴되거나 해당한 운동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이 제기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질세계의 사물의 자체발전과정의 지연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데 불리한 조건이 조성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물의 자체발전과정의 촉진은 주로 해당한 운동과정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기 원인에 의하여 운동발전하는 온갖 물질적대상들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개조발전과정에 들어옴으로써 개조대상으로 된다. 개조대상이란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되는 온갖 물질적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개조대상은 사람의 운동,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되였을 때 지배대상으로 전환된다. 다시말하여 지배대상으로 전환되고있는 대상이 개조대상이다. 자연에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적대상은 처음에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개조대상으로 선택되고 개조과정에 들어가며 개조과정이 완결되면 지배대상으로 전환된다. 지배대상으로 전환된 사물은 사람에 의하여 통제되고 리용되면서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한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지배와 개조는 세계의 개조발전의 불가분리적이며 필수적인 두 계기를 이룬다. 대상의 지배는 대상의

개조를 규제하고 가능하게 하며 대상의 개조는 대상의 지배를 담보하며 실현시킨다. 호상 제약하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개조와 지배의 부단한 교체과정을 통하여 세계의 개조발전이 이루어진다.

일반적대상으로부터 개조대상으로, 그로부터 지배대상으로 그리고 다시 개조대상의 선택으로 끊임없이 이행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철학적개념이 개조발전이다. 이것은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이 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개조발전과정은 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을 전제로 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세계의 운동발전과정의 질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개조발전과정을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에 비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라고 하는것은 그자체가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과정이며 사물의 자체운동발전과정에 작용하는 객관적합법칙성을 인간이 틀어쥐고 조절통제, 리용하는 과정이기때문이다.

자기 원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에서 그 최고산물인 인간이 출현하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물질세계에 작용하는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이 인간에게 인식되고 조절, 통제, 리용됨으로써 물질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조발전과정은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에 대한 인간의 주동적작용, 인간의 운동과정인것만큼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데서 이 두 운동과정이 어떤 작용과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은 그 개조발전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인간의 운동이 언제나 대상적활동이며 따라서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주위세계의 한 부분인 자연의 운동은 사물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이루어

지는 과정으로서 인간의 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주위세계에는 자연과 함께 사회가 있다. 자연은 사람이 생겨나기 전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운동변화발전하는 물질세계라면 사회는 사람과 함께 발생하여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물질세계의 특수한 령역이다. 사람도 물질세계의 구성부분이며 사회도 물질세계의 한 령역인것만큼 인간의 운동,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이 작용한다.

물질세계, 자연의 운동의 특징의 하나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맹목적인 운동이라는데 있다. 자연에서의 모든 운동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맹목적인 운동이며 그 어느것이나 목적의식적인 계기가 없다. 물질세계의 운동의 자연발생성과 맹목성은 사람의 활동에 저애를 조성하지만 다른편으로는 인간의 개조활동에 유리한 조건으로도 된다. 물질세계의 사물들의 운동이 자연발생성과 맹목성을 띠고 있기때문에 사람의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그것이 개조될수 있는것이다. 만일 개조대상인 사물들이 사람과 같이 주동성과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운동한다면 사람이 그것들을 자기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개조하기가 매우 어려울것이다.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은 자연발생성과 맹목성을 띠고있는것과 함께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지고있다. 물질세계의 사물들은 얼핏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고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운동발전한다. 물질세계의 사물현상들의 운동이 다양한것만큼 그에 작용하는 운동법칙도 각이하다. 그러나 물질세계의 자체운동발전과정에는 모든 사물현상들의 변화발전에 다같이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다. 낡은것은 사멸하고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칙, 계승과 혁신의 통일적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발전법칙 등을 들수 있다. 물질세계의 사물현상들의 자체발전과정은 그에 고유한 법칙들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사람에 의하여 인식되고 조절, 통제, 리용될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이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개조발전될수 있는것이다.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이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그것이 개조발전되게 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인간의 운동과 구별되는 물질세계자체발전과정의 특징의 다른 하나는 인간이 발생한 다음에는 자연 그자체로서는 끊임없는 상승적발전과정을 밟지 않는다는것이다. 인간의 운동을 포함하여 현실세계의 운동과정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의 상승적발전과정이 끊임없이 영원히 진행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 행성에서 인간의 운동과 떼여놓고 주위세계, 자연의 운동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할수 없다. 이것은 물론 자연의 운동에서는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의 운동에서도 끊임없는 변화발전과정이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적인 상승적발전이 아니며 대체로 횡적인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지구우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운동에서 끊임없는 상승적발전과정이 종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구우에서 무기물질로부터 생명물질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무기물질로부터의 생명물질의 발생은 물리화학적운동으로부터 생물학적운동에로의 질적비약이며 물질운동의 상승적발전에서 하나의 단계를 구획하는 획기적전환이다. 무기물질에서 생명물질이 생겨나려면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형성될뿐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과학은 지구가 생겨나 수십억년이 흘러오는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던 물리화학적운동과정속에서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생겨나고 일정한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생명물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그러한 유기화합물이 지구우에서 처음으로 생겨날 때와 같은 환경과는 전혀 달라진 오늘의 조건에서 생명물질이 생겨날수 있겠는가 또 설사 그것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먼저 생겨난 미생물들에 의하여 분해섭취되여 짧은 순간이나마 존재할수 없게 된다고 볼수 있다. 지구상에 생명이 처음 생겨나던 때에는 생명물질로 전화될 유기화합물을 분해섭취하는 그 어떤 미생물도 없었으므로 생명물질의 발생이 가능하였다.

자연의 운동에서 끊임없는 상승적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또한 세계에서 인간이 발생한 다음에는 사람보다 더 발전되고 힘있

는 존재와 인간의 운동보다 더 높은 운동과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뚜렷이 증명된다. 현대자연과학의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대체로 200만년전에 가장 발전된 동물인 류인원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런데 그후 류인원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의 발생도 인간보다 더 발전된 물질적존재와 인간의 운동보다 더 높은 운동과정도 산생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살고있는 행성이외에 무한한 우주공간의 다른 그 어떤 천체에서 지금 생명물질이 새로 발생할수도 있고 또 인간과 같은 존재가 발생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구우에서 물질이 진화발전한것과 같은 합법칙적과정을 거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인간은 물질발전의 최고산물이며 사람보다 더 발전된 물질적존재는 그 어느때, 그 어디에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물질세계는 사람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하여왔으며 사람의 발생으로써 드디여 발전과정을 완결하고 자기의 참면모를 갖추게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오늘날 우리 행성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자체운동과정에서는 물리화학적운동으로부터 생물학적운동에로의 상승적발전도 생물학적운동으로부터 인간의 운동에로의 상승적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우기 인간의 운동으로부터 그보다 더 높은 운동형태에로의 상승적발전은 그 어느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위세계, 자연의 운동은 인간의 운동이 발생한 다음부터는 그자체로서는 근본적인 새로운 질적비약을 가져오는 상승적발전과정을 계속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며 여기에 인간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연의 운동, 물질세계 자체발전과정의 특징의 하나가 있다.

현실세계의 끊임없는 상승적발전은 오직 물질세계 자체운동발전과정에 대한 인간의 운동, 인간의 주동적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인간의 운동은 세계의 개조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천이며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사람을 위한 세

계로 개변되게 됩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27페지)

인간의 운동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벌리는 사람의 사회적활동이다. 인간의 운동은 발전단계로 볼 때에는 생물학적운동이 발전한 결과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였지만 생물학적운동법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운동법칙의 작용을 받는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의 활동은 사회적존재의 운동이기때문에 사회적운동형태에 속한다. 사회적운동에는 사람의 사회적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계급과 민족, 국가의 활동, 사회의 물질적 제 조건의 변화발전, 사회적관계, 사회제도의 변화발전 등 복잡한 운동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운동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적관계의 담당자인 사람의 운동은 모든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인간의 운동이 출현한것은 물질운동의 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이며 가장 높은 단계에로의 질적비약이다. 인간의 운동이 출현함으로써 물질세계의 운동은 주체의 운동과 주체가 없는 운동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주체의 운동은 인간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사회적운동이며 주체가 없는 운동은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존재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인간의 운동의 본질적특징은 다른 모든 물질운동형태들을 개조하고 지배하는 목적의식적운동이라는데 있다. 자연의 모든 운동형태들사이에는 개조하거나 개조당하며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관계가 없다. 자연의 운동에서는 물질운동형태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후에 나온것이 먼저 나온것에 대하여 규제적인 작용을 하지만 먼저 나온 운동형태와 후에 나온 운동형태사이에 개조하고 개조당하며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운동은 다른 운동형태들에 대하여 규제적영향을 주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간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하는 유일한 운동형태이다. 인간의 운동이 물질세계의 자체발전

과정을 개조하는 운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의 운동이기때문이다.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인간의 운동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물질세계의 다른 모든 운동들을 지배하는 운동으로 된다.

주위세계, 자연의 자체운동과 구별되는 인간의 운동의 본질적 특징은 또한 그것이 영원히 끊임없이 상승발전하는 운동이라는데 있다.

인간의 운동은 답보와 침체, 쇠퇴를 모르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상승발전하는 운동이다. 인간의 운동의 이러한 특징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증대되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서 그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이러한 본질적속성을 가지고있음으로하여 인간은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소유자로 되며 인간은 물질세계전체에 대립하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된다. 세계에서 사람의 힘을 대신할 그 어떤 존재도 없으며 물질세계의 끊임없는 상승적발전을 담보하는 근본동인과 추동력은 사람에게 있다. 실로 사람은 물질세계의 자체발전과정의 유일한 개조자이며 오늘의 물질세계의 끝없는 상승적발전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운동에 의한 물질세계의 개조발전이다.

물질세계의 운동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인간의 운동이 출현함으로써 물질운동형태들이 축차적으로 발전하는 합법칙성의 작용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인간이 출현하기까지의 물질세계의 운동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 합법칙성에 따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높은 운동형태들을 축차적으로 산생시켰다. 그러나 인간의 운동이 출현한 다음부터는 물질운동의 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동에 의하여 물질세계의 다른 모든 운동형태와 발전과정들이 개조되여나감으로써 세계의 통일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합법칙성이 작용하게 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은 끝없이 무한한

상승적성격을 띠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개조발전과정을 새롭게 밝히면서 그 과정에 작용하는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해준다.

사람의 적극적인 작용에 의한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 사람에게 더욱더 잘 복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 세계의 개조발전이 더욱더 빨리 무한히 계속되는 합법칙성 등이 세계의 개조발전과정에 작용하는 고유한 합법칙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주체철학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된 개조발전의 개념에는 현실세계에서 진행되는 운동발전과정들의 모든 내용과 특징들이 반영되여있다.

개조발전개념이 정립됨으로써 지금까지 유물변증법의 발전관의 원리만으로는 정확히 해석할수 없었던 객관적현실도 옳바로 해석하고 정확히 리해할수 있게 되였으며 발전의 원리도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고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개조발전의 개념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정립함으로써 물질세계의 운동발전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가장 심오한 과학적리해를 주는 리론으로 발전완성하였다.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고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철학적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철학적세계관이 자기의 근본사명에 맞게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려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함께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옳바른 관점과 립장, 일반적방법론까지 밝혀주어야 한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리치를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람이 그에 맞게 활동할수 있게 하는 지침을 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세계를 주동적으로 개조하고 지배해나가지 못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원만히 개척해나갈수 없다.

력사상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철학류파들이 있었지만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철학적세계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내세운 철학은 없었으며 더우기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힌 철학은 없었다.

세계를 관념이나 정신의 세계로 본 관념론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지난 시기 세계의 물질성을 인정한 유물론자들도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철학적세계관의 구성부분으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때까지 사람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한데로부터 사람을 단순히 물질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머물렀던 사정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람을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특출한 지위에 내세우지 못하고 물질일반에 해소시켜 고찰하는 조건에서는 사람이 가지는 관점과 립장문제가 독자적인 세계관적문제로 제기될수 없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행철학들에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문제가 세계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내세워지지 못한것은 또한 철학의 사명을 인간의 운명문제와 결부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세계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데 귀착시킨 사정과도 관련된다. 세계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밝히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조건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철학이 절실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기될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철학에서도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세계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세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견해가 곧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으로 되여있었다. 다시말하여 맑스-레닌주의철학에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자기원인에 의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것으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주었다. 이것은 세계를 개조변혁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맞는것이며 세계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세계를 주동적으로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밝혀주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철학적세계관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내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정립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된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의 범주가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하나는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입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26페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보고 대한다는것이다.

사람의 리익이란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첫째로, 세계를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대한다는것이며 둘째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사람의 자주적요구의 실현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는것이며 셋째로,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견지에서 대한다는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명백히 알아야 할것은 사람의 리익이란 사회적집단과 동떨어진 개인의 리익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리익이라는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

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탐욕적인 사리사욕이 아니라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리익이다.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고 평가하며 그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는것이 바로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모든것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만 주어지고 유지되는것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지배하기 위한것이며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더욱 높이기 위한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인으로서의 요구와 리익을 내세우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평가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하며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복종시키고 그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성이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관점과 립장이 인간활동의 목적에 전적으로 맞는다는데 있다. 사람의 모든 활동, 인식활동이나 개조활동의 근본목적은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데 있다.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한다는것은 곧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이 인식활동이나 개조활동을 벌리는것은 단순히 세계의 그 어떤 사물현상에 대한 지식

을 가지거나 재부를 얻기 위한것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사상과 지식, 생활수단과 조건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활동의 목적을 객관적대상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데 두는것은 대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을 위하여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둘 때 대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를 가지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키고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개조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아무런 타산도 없이 자기의 리기적인 욕망만을 내세우는 주관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세계를 가장 옳바르게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증시하여준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부르죠아실용주의철학이 들고나오는 자기에게 《유익한것》이 곧 진리라는 주장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실용주의철학이 들고나오는 《진리관》은 부르죠아지의 무제한한 치부욕을 충족시켜주는 개인리기주의적탐욕을 추구하는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반동적궤변이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종교도 부르죠아반동통치배들의 지배적수단으로서 그들에게 유익한것이기때문에 진리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용주의의 《진리관》이야말로 극단한 주관관념론과 부르죠아지의 리기적탐욕의 잡탕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 강도적론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람의 리익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사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사람의 인식개조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필수적계기로 되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철학적개념으로서의 가치란 소여사물이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잘 복무하는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며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바로 가치가 있는것이다. 가치는 객관적사물현상자체에 체현되여있다. 사물이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기때문에 가치를 가지고있다고 하는것이다.

가치의 평가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치의 담당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지만 가치를 평가하는것은 사람이다. 사물의 가치는 사람이 그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치로 나타나며 평가된다. 사물이 사람과 관계없이 그자체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 어떤 가치에 대하여서도 론할수 없으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치평가의 대상으로 된다.

사물의 가치평가는 그 사물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파악과 함께 사람의 인식활동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며 그 필수적계기를 이룬다. 사람의 인식과정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로 나아가며 사물현상에 대한 가치평가로부터 다시 그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보다 심오하게 파악하는데로 나아간다.

이와 함께 사람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데 기초하여 그 사물현상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며 개조활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물현상의 가치평가는 사물현상을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과도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람은 사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실천활동을 벌리며 사물을 개조하는 실천활동과정에 이룩된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여 그 가치를 더 정확히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인식과 실천활동의 필수적계기로 되며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전제로 된다.

그런데 사물현상의 가치가 사람과 련관되여있으며 사람에 의하여서만 평가된다고 하여 가치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가치를 순수 사람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주관적인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반대

로 가치의 객관성만 인정하고 그 평가의 주체적성격을 무시하는것도 잘못이다.

가치평가의 주체는 사람이며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의 리익이다. 사람은 가치평가의 주체일뿐아니라 가치의 창조자이다. 오늘날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치있는 물질문화적재부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창조자, 가장 높은 가치의 체현자로, 귀중한 존재로 되며 사람의 리익은 사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유일한 기준으로 된다.

여기에서 사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되는 사람의 리익이란 다름아닌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리익이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고 세상에서 가치있는 모든것의 창조자이며 가장 높은 가치의 체현자이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리익은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으며 그들의 자주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것이 가치가 있는것이며 그에 이바지하지 않는것은 가치가 없는것이다. 결국 사물현상의 가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얼마나 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사물의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되는 사람의 리익은 불변하고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변화발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요구와 리익은 력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따라서 사물현상의 가치의 내용도 변화발전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난날에는 쓸모없던 사물도 쓸모있는것으로 되고 리롭지 못하거나 지어 유해로운것으로 간주되여오던것도 오늘에 와서는 리로운것으로 개조되여 리용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력사적으로 변화발전하는 구체적내용을 가진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현상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끊임없이 높아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를 더욱더 폭넓고 깊

이있게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다.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현상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함으로써 인식과 개조활동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한다는 여기에 바로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람,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사명에 전적으로 맞는 관점과 립장이라는데 기인된다.

사람,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근본사명이며 혁명적본분이다. 혁명적당의 근본목적은 바로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것보다 더 보람있고 영예로운 사업은 없다.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립장이며 활동원칙이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이러한 원칙적립장과 활동원칙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줄뿐아니라 그것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하나는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것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따라서 자

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인간활동의 본성적요구이다.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운다는것은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근본목적으로 삼는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목적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의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활동인것만큼 그 목적자체에 사람의 본성적요구와 리익이 반영되여있다.

사람의 리익을 옹호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것은 인간활동의 본성적요구일뿐아니라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목적으로 내세울 때에만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되며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의 목적을 세우는데서 일관하게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왔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다른 하나는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시키는것이다.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것을 최고원칙, 근본목적으로 내세운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개조활동을 어떻게 벌리는가에 따라 바로 실현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인식개조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갈 때에만 그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는 다름아닌 사람의 리익을 옹호실현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인식과 개조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사람은 활동의 목적을 세우는데서뿐아니라 인식과 개조의 대상을 선택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탐구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하고 동원리용하는데 이르기까지 인식개조활동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철두철미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만일 인식과 개조활동의 어느 한 공정에서라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무시되거나 침해당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활동의 자주적본성에 어긋나는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리익을 옹호실현할데 대한 목적자체가 원만히 실현될수 없다. 사람의 인식개조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복종시키고 그에 맞게 풀어나갈 때 사람의 리익을 옹호실현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요구도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옳바로 견지하고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된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의 범주가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입니다.**》(《주체철학에 대하여》, 27페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주동적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보고 그에 의거하여 세계를 개변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을 유물변증법적으로 보는 관점, 립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물질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이 사람의 주동적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조절통제되고 사람에게 복무하도록 개조발전되여나간다고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물질세계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감으로써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은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마땅히 자기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보고 그에 의거하여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세워야 할 필연성이 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고 할 때 사람의 활동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활동,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변해나가는 사람의 활동이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남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의 리기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 등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인 활동과 인연이 없다.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활동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의 활동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은 세계를 대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그것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세계를 개조할수 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유일한 개조자이다. 세계의 개조에는 물론 사람이외에 물질기술적수단들도 참가한다. 세계의 개조에 참가하는 모든 요인들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추동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다. 세계에 대한 개조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질기술적수단이나 물질적대상에 의하여 야기되는것도 아니다. 개조과정은 바로 사람자체의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작용과정이다. 개조의 전 과정은 사람에 의하여 계획되고 설계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사물현상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주객관적조건, 현실적가능성이 타산되고 인식과 개조를 위한 목표와 과업이

설정된다. 계획된 목표와 과업을 실현해나가는것도 역시 사람이다. 사람에 의하여 개조를 위한 수단과 방법, 방도가 탐구되며 모든 조건이 마련된다.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는 과정에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도 모두 사람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극복되여나간다.

모든 개조활동은 사람의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작용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물질기술적수단들이 움직이며 객관적인 사물현상들이 인식되고 개조된다.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은 사람의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작용대상이며 물질기술적수단들은 사람의 작용을 객관적대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세계를 개조하는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사람의 역할은 다른 그 무엇도 대신할수 없다. 세계가 사람의 적극적활동에 의하여 개조되는것만큼 그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개변되여나가는것은 필연적이다. 이 모든것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주동적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줄뿐아니라 그것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하나는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모든 활동의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부터 시작하며 어디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겠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어떤 사업에서나 선후차가 있는 법이며 그것을 지키는것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첫 공정으로 삼을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식과 개조활동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요구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을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는 객관적요인과 주체적요인이 작용한다. 여기에서 객관적요인은 개조대상인 사물현상의 자체변화발전을 제약하는 요인과 물질기술적수단들 그리고 그것이 처해있는 외적환경조건을 말하며 주체적요인은 그것을 직접 개조하는 담당자인 사람을 말한다.

사물현상의 인식과 개조에 작용하는 요인들가운데서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적요인인 사람이다. 사물현상의 인식과 개조에 필요한 객관적요인을 파악하고 리용하는것도 사람이며 또 그것을 성숙시키고 마련하는것도 사람이다.

사물현상의 인식개조에 필요한 객관적요인을 어떻게 조성하고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정도에 의존한다. 객관적요인이 성숙되여도 주체적요인이 준비되지 못하면 사물현상을 성과적으로 인식개조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나간다는것이다. 사람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 자신을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준비하면 할수록 객관적요인도 빨리 성숙시키고 자연과 사회도 성과적으로 인식개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객관적조건이나 물질기술적수단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며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겨야 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다른 하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주동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인식과 개조의 방법은 물론 인식개조의 대상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물질기술적수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 방법으

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것은 사람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람의 주동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를 찾는 방법에 의거하는것이다. 그것은 세계가 오직 사람의 주동적역할에 의해서만 인식되고 개조되기때문이다.

사람의 주동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의 발휘정도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그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고 자각적으로 달라붙어야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하여 새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옳은 방도를 찾아낼수 있으며 인식개조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풀어나갈데 대한 요구로부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할뿐아니라 그들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군중로선의 원칙이 흘러나온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독창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철학적방법론을 제시해주고있다.

일반적으로 철학적방법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물현상을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방법에 관한 리론을 이르는 말이다.

방법은 인식개조활동을 벌리는데서 적용하여야 할 원칙과 수법, 묘술들의 총체를 말한다. 목적이 정확히 세워지고 수단이 잘 마련되였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옳게 세워지지 않으면 인식개조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사람은 대상의 특성과 활동이 벌어지는 조건 그리고 수단의 특성들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인식개조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원칙과 합리적수법, 묘술을 찾아내고 적용함으로써만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 방법이 정확히 마련되고 적용될 때 목적실

현의 가능성이 담보됨으로써 목적은 더욱 뚜렷한 지향성을 가지고 사람의 활동을 추동한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다양하게 벌어지며 그에 따라 방법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한가지 목적을 실현하는데서도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될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적활동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아무리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이 있다. 바로 이러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에 관한 리론이 철학적방법론이다.

세계에 대한 관점은 사람이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주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구상과 작전을 세워나가는데서 기본출발점을 이루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적원칙이다.

세계에 대한 립장은 주로 사람이 활동하기에 앞서 행동의 주체로서 가지는 태도이며 그것은 인식의 결과에 기초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개조하기 위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것과 같은 개조활동, 실천활동의 기본출발점을 이루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적원칙이다. 세계에 대한 립장은 넓은 의미에서 관점도 포괄한다.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 있다. 세계에 대한 옳바른 관점은 옳바른 립장을 가지게 하며 세계에 대한 립장이 바로서지 못하고 확고하지 못하면 관점도 바로가질수 없게 된다.

주체철학이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인식과 개조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의 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합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김일성**저작집》 36

권, 281페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그것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세계를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의식의 산물로 보는 관념론적관점과 립장이나 세계를 관조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형이상학적관점, 립장과 원칙적으로 대립될뿐아니라 세계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서로 련관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것으로 보고 대하는 유물변증법적관점, 립장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그 주인인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 립장이며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그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해나가도록 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우선 객관세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에 의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적원칙으로 된다.

인식과 개조는 사람과 세계의 호상작용과정이며 특히 객관세계에 대한 사람의 주동적작용과정이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주위세계에 주동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객관세계, 주위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은 스스로, 맹목적으로 운동하며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운동하면서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영향을 준다.

사람의 창조적활동과정은 객관세계의 부정적영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영향을 조장강화해나감으로써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는 세

계에 대한 인식개조활동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사람이 인식개조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일반적방법론이 과학적인것으로, 완벽한것으로 되려면 객관세계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방법론이 객관세계 그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객관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에 기초하는것은 방법론의 과학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며 그 위력을 담보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호상련관속에서 력사주의적으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는 방법론적원칙을 밝혀주었다. 과학적방법론으로서의 유물변증법은 객관세계의 변증법을 그대로 반영한 인간사유의 변증법이며 인식의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의 원천을 따져보면 결국은 객관세계의 변증법이다.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은 사람을 단순히 물질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물질일반에 해소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들사이의 호상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세계운동발전과정에 작용하는 일반적합법칙성을 반영하고 고려하였을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주동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은 고려하지 못한 일면성과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새롭게 밝힌 세계에 대한 정확한 견해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밝힌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자체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적견해를 전제로 하고있는것만큼 그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주체적방법론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력사주의적으로 호상련관속에서 고찰할데 대한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의 요구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방법론으로 된다.

주체적방법론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객관세계가 미치는 영향을 시인하고 고려할데 대한 방법론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동시에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최대한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으로 된다.

인식과 개조활동은 주위세계에 대한 사람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작용과정인것만큼 반드시 주위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위세계의 영향을 고려할데 대한 방법론적요구이다.

그러나 사람이 주위세계로부터 받는 영향을 무시할수 없고 응당 그에 대하여 타산하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것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람과 세계의 호상작용의 한 측면에 불과하며 그것도 그 호상작용의 주도적측면이 아니기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주위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무시할수 없다는데로부터 그 측면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방법론에서 그 영향에 대처할 타산과 고려에 대한 지침만을 준다면 결국은 사람을 주위세계의 영향에 의하여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되게 한다. 사람이 객관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는데로부터는 결코 인식과 개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위세계의 영향을 받지만 인식과 개조활동을 벌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하여준다.

사람이 인식과 개조활동을 벌리는것은 객관세계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일어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벌리는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인것이다. 인식과 개조활동의 목적과 방향, 결과는 전적으로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본성에 의하여 규제된다. 인식과 개조활동은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성의 발현이며 그 본성적요구의 구현과정이다.

원래 방법론은 일정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것이며 또 사람자신이 가지고 활용하는것이다. 따라서 인식개조의 방법론은 본성상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사람의 활동을 기

본으로 하여 그의 창조적능력에 맞게 세워져야 하며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세워져야 한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가장 일반적방법론이 참말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되려면 객관세계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고 따를것을 요구하는 객관적방법론에 머무를수 없으며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본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최대한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관점과 립장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세워야만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타산한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의 요구도 그에 종속시켜 옳바로 구현할수 있게 되며 인식개조활동을 가장 옳바로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객관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철저히 의거하고있을뿐아니라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본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최대한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가지는 독창성과 우월성이 있으며 그것이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의 원칙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다음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의 방법론일뿐아니라 개조의 방법론이라는데 선행한 철학적방법론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으며 그것이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의 원칙으로 되는 근거의 또 하나가 있다.

원래 방법론이 과학적인것으로, 가장 완벽한것으로 되자면 인간의 모든 활동, 인식활동이나 실천활동에서 다 의거하여야 할 방법론적지침으로 되여야 한다.

인간의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주위세계에 주동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서 서로 뗄수없이 련관된 두 계기로 이루어지고 두가지 형태를 가진다. 그 하나는 인식의 계기, 인식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개조의 계기, 개조활동, 실천활동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

라 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있는것만큼 방법론이 완벽한것으로 되려면 인식활동과 개조활동, 실천활동전반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방법론적지침으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선행철학이 밝힌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은 주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의 방법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이 출발적기초로 삼고있는 철학의 기본문제자체가 인식론상의 문제라는것으로써 설명된다. 선행철학의 근본문제인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호상관계문제가 세계의 시원을 밝히기 위한 인식론상의 문제라는것은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도 강조하였다. 이 인식론상의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준 세계의 물질성에 관한 유물론의 원리와 사물현상들의 전반적련관과 운동에 관한 변증법의 원리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의 결과이며 그자체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방법론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철학은 인식의 방법이 그 대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힌 유물변증법이 곧 인식의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밝히면서 사물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력사주의적으로 호상련관속에서 전면적으로 고찰하는것을 유물변증법적인식방법의 일반적원칙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과학적인식의 방법론확립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맑스-레닌주의철학은 특히 인식의 대상에 대한 형이상학적유물론의 관조적관점, 립장과 인간활동에 대한 관념론적리해를 비판하고 사람은 세계를 관조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성적, 물질적활동을 통하여 인식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식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의 실천활동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며 실천의 경험에 기초하여 인간의 주동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밝혔다. 이것은 인식론에 처음으로 실천을 도입하고 인식에서 주체의 능동적역할을 강조한것으로서 인식론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

그러나 선행로동계급의 철학은 실천이 인간의 인식의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리론에 의거해야 한다는 일반적요구를 제기했을뿐

실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맑스-레닌주의철학에서 리론은 실천의 무기라고 하면서 리론이 없는 실천을 라침판이 없는 배에 비유한것은 실천에서 인식, 리론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을뿐 그것을 실천에서 견지해야 할 방법론문제로 제기한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물변증법적방법론은 주로 인식의 방법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와는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인식활동이나 개조활동, 실천활동에 일관하게 적용되는 과학적인 방법론적원칙이다.

그것은 사람중심의 주체철학이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뚜렷이 내세우고있다는것과 관련된다.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인식에 머무를수 없으며 인식활동은 반드시 개조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은 인식의 방법론을 밝혀줄뿐아니라 개조, 실천의 방법론까지 밝혀주는것으로 될 때에만 가장 완벽한것으로 될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해답을 주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워진 방법론의 일반적원칙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는 그자체가 사람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기 위한 문제이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전반을 통하여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이다.

주체의 방법론은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을 위주로 하여 모든것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인것으로 하여 인식뿐만아니라 실천도 단순히 세계를 개변하기 위한 물질적활동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활동으로 본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성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혀줌으로써 사람의 인식활동, 실천활동에 관통되는 가장 일반적방법론의 원칙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처럼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사람의 인식활동, 실천활동전반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의 원칙을 준다는데 이 방법론이 가지는 독창성과 우월성이 있으며 여기에 그것이 인식과 개조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으로 되는 또 하나의 주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간의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인 일반적방법론의 원칙이 정립되게 되였으며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의 인식활동과 개조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류의 철학적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뿐아니라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포괄하는 전일적인 완벽한 구성체계와 내용을 갖춘 세계관으로 발전완성되게 되였다.

주체의 사회력사관편

사 회

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이며 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사회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는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특징을 밝히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사회가 자연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가 하는것을 밝히는 문제, 사회와 자연과의 본질적차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사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연과 구별되지만 사회가 자연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라는데 있다.

사회가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라는것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그것은 우선 사회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것이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한다. 집단을 이룸으로써만 사람은 거창한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있다.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결합되여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다. 그리하여 자연만으로 이루어졌던 물질세계에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가 생겨났다.

자연에도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무리는 맹목적이며 본능적인 자연적무리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데 자연과 구별되는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사회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것은 결코 그것이 개별적인간들의 기계적인 결합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전일적인 유기체이다. 사회는 물론 개별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만 그들사이에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유기적인 련관이 맺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나가는 유기적인 결합체인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가 사람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이루어진 집단이라는것이다.

사회가 사람의 집단이라고 하여 그것이 사람만으로 이루어져있는것은 아니다.

사회는 사람과 함께 여러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사회는 사람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사회는 사회적재부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창조하고 리용하는 수단들의 총체이다. 사회적재부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가 발전할수 없다.

사람은 물질적 및 사상정신적재부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그것을 리용하여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고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재부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이룩해나간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적재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

사회는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재부가 있어야 할뿐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결합되여야 한다. 이것을 보장하여주는것이 다름아닌 사회적관계이다.

사회적관계는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질서의 체계로서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환경, 조건을 이룬다. 사회적관계를 떠나서 사람은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될수 없고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발전할수 없다.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각이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련관을 맺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사회적집단을 이루게 된다.

사회적관계는 사람과 사회적재부를 결합시킨다.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속에서만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리용할수 있다. 원래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리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관계를 떠나서 그 어떤 사회적재부의 창조와 리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관계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는데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이와 같이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여 이루어진 집단이다.

사회는 사람과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이루어지지만 이 유기적인 통일체안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고있는 사람과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의 호상련관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사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며 사회는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존재하고 발전한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재부의 주인이다.

물론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그러나 사람과 사회적재부와의 관계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은 사회적재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자기에게 복무시켜나가는 능동적이며 주동적인 존재이다.

모든 사회적재부는 다 사람에 의하여 창조된다. 사람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사람들의 물질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직접 리용되는 생활수단과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리용되는 생산수단과 같은 물질적재부가 창조되게 되며 사회의 선진사상과 리론, 풍부한 과학지식,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학과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적재부가 창조되게 된다.

모든 사회적재부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한다. 사회적재부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하다. 사람이 생활수단과 생산수단, 사상과 과학,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것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재부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복무함으로써만 가치를 가진다. 사람을 떠나서 사회적재부는 무의미하다.

사람은 사회적재부의 주인일뿐아니라 사회적관계의 주인이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 진보적인 사회적관계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유리한 영향을 주며 반동적인 사회적관계는 사람의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사회적관계가 사람의 활동에 아무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사람은 그에 그저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조변혁해나간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의 담당자이고 개조자이다.

사람들은 집단생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관계를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맺는다. 사람들의 요구와 그들의 능력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사회관계의 발전수준이 규정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선진적인 사회적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요구와 준비정도에 맞게 낡은 사회관계를 개조변혁하여 선진적인 사회적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그것을 부단히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관계의 주인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사회의 주인은 다름아닌 사람이며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는 존재하고 발전한다.

사회는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사회들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면서 발전하여왔다.

사회의 성격문제는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사회류형들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력사적으로 변화발전한다.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매개 류형의 사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사회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가지는것은 구체적인 사회류형들의 본질적특성을 옳바로 해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된다.

사회의 성격은 우선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고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정권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정권을 누가 쥐고있는가에 따라 해당 사회의 정치가 누구를 위한 정치로 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며 사람들의 사회적처지가 규제된다. 그리고 정권을 누가 쥐고있는가에 의하여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정치적으로 주인의 지위에 있는 사회인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정권을 쥔 계급이나 집단은 사회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정권을 쥐지 못한 계급이나 집단은 다른 계급, 다른 집단에 예속당하고 억압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권을 누가 쥐고있는가 하는것은 사회정치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도 규정한다. 해당 사회의 정치는 정권을 쥔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의 의사와 리익에 따라 실시된다. 정권을 쥔 계급이나 집단은 모든 정책을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세우고 집행한다. 반동적인 계급이 정권을 쥔 사회에서는 반동적인 정치가 실시되며 진보적인 계급이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사회에서는 선진적인 정치가 실시된다.

사회의 성격은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 의하여 규정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문제는 어떠한 생산수단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의하여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사회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인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생산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생산수단을 틀어쥔 계급이나 집단은 생산과정뿐아니라 생산물의 분배와 소비관계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는 해당한 사회경제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규정한다.

물질적부의 생산과 그 결과는 생산수단을 장악한 계급이나 집단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직되고 리용된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는것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생산된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가 하는것도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근로인민의 로동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착취계급이 생산수단을 틀어쥔 사회는 생산과 분배, 교환과 소비의 전 과정이 착취과정으로 일관된 반동적인 사회로 되고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는 사회는 모든 경제생활이 그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진행되는 진보적인 사회로 된다.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정권을 누가 틀어쥐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비롯한 사회적관계, 사회제도는 정권을 쥔 계급이나 집단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확립되고 유지되며 변화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언제나 국가정권에 의하여 합법화되고 담보되여야 사회의 지배적인 관계로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공고발전도 국가정권에 의하여 규제된다. 어떠한 생산관계도 국가정권의 규정적작용과 역할을 떠나서는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전환될수도 유지될수도 없으며 공고발전될수도 없다. 이로부터 국가정권을 누가 쥐고있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게 된다.

사회는 그 성격에 따라 각이한 류형의 사회로 구분된다.

인류의 첫 사회는 원시사회이다.

원시사회는 사람들이 원시적평등의 관계를 맺고 공동생활을 하던 사회이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안에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서로 혈연적으로 결합된 씨족, 종족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의 리익을 위한 정치조직인 씨족평의회를 가지고 그에 의거하여 생활을 조직하고 운영해나갔다.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같이 일하고 생산된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소비하였다. 원시사회에는 계급도 국가도 없었다.

착취사회는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는 반동적인 사회이다. 원시사회말기에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면서 계급사회가 생겨났다. 착취사회는 국가주권을 누가 쥐고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노예소유자사회와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로 구분된다.

노예소유자사회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노예에 대한 노예주계급의 완전소유에 기초한 첫 착취사회였다. 노예주계급은 국가주권과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 지어 노예까지 완전한 소유물로 만들고 노예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노예는 압박받고 천대받는 피압박, 피착취계급이였으며 노예주에 의해 매매되고 처분되는《말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봉건사회는 봉건지주, 봉건령주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농노,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사회였다.

봉건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지주계급의 억압과 착취는 신분제도에 의하여 합법화되여있었다. 봉건지주계급은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신분제도에 기초하여 농노,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인류의 마지막 착취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러 자본가계급은 신분적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을 임금노예로 전락시키고 가장 가혹하게 착취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자유도 권리도 없이 자기의 창조적로동의 열매를 자본가계급에게 빼앗기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적대적모순은 제국주의단계에 이르러 더욱 격화되여 극도에 이르게 된다. 날을 따라 격화되고 악화되는 사회적불평등과 불균형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는 심각한 모순과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 허덕이게 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나 그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되는데 따라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의《번영》과《영원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주의주장들을 류포시키면서 사회발전단계를 외곡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 류포되고있는《정보사회론》,《사회수렴론》,《포스트맑스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은 하나와 같이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실례로《정보사회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 다음에 오는 새 사회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정보사회》, 착취와 압박, 계급적대립과 모순이 없는《발전된 리상사회》라고 하는 한편《정보사회》에서도 부르죠아《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게 된다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그들자체가《정보사회》가 곧 자본주의사회라는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포스트맑스주의》는 정보산업시대에 자본주의의 매장자인 산업로동계급이 급속히 줄어들어 자본주의가 더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며 인권운동, 선거운동, 환경운동과 같은《시민운동》으로 사회를 개량하면 리상사회가 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반동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구속하는 낡은 착취사회인 자본주의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인류의 리상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해주는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사회에로 이행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착취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류형의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가 사회주의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출현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배치되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회의 력사가 끝장나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오랜 력사적념원이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라고 하여 모든 사회주의가 다 같은것은 아니다. 성격에 있어서 같은 사회주의라고 하여도 어떤 지도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가에 따라 그 우월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서 가장 우월하고 불패의 생활력을 지니고있다.

력사적으로 보면 사회에 대하여서는 노예소유자사회가 형성되던 고대시기 철학이 발생하면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론의되여왔다. 그 과정에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가치있는 견해들도 일부 제기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철학이전시기 사회에 대한 리해는 관념론적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유물사관은 존재와 사유, 물질과 의식에 대한 변증법적유물론의 원리를 사회생활과 사회력사에 적용하여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 자기의 출발적명제를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왕권신수》설이나 《사회계약》설과 같은 관념론적이며 비과학적인 사회력사관에 타격을 주고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유물사관의 리해에는 심중한 제한성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경제적조건, 경제관계를 중심에 놓고 사회를 고찰한것이다.

물론 유물사관에서도 사회와 력사의 출발점을《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에게서 찾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그들의 생산의 물질적 제 조건에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이로부터 유물사관은 사람을 사회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주인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사회를 사회적존재와 사회적의식의 두 부분으로 가르고 사람을 여기에 해소시켰던것이다. 맑스가《생산관계는 그 총체로서 사회적관계, 사회라고 불리우는것을 형성》한다고 한것은 우연치 않다.

유물사관은 사회의 성격과 류형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생산방식을 중심에 놓고 구분하는 일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비로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과학적인 사회력사관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회와 력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적극 추동되게 되였다.

사회적재부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창조하고 리용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창조물의 총체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인 모든 재부들은 다 우리의 끊임없는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28권, 127페지)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주위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 만들어지며 사람의 생활과 운명개척의 수단으로 리용된다. 사회적재부는 사회에만 있으며 사회적재부가 없이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며 그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한다는데 사회적재부

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사회적재부는 우선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산물이다.

모든 사회적재부의 직접적인 원천은 사람의 창조적인 로동활동이다. 사람의 로동활동에 의하여 자연물의 구조와 형태, 기능과 속성이 개조변형되여 인간에게 복무할수 있는 사회적재부로 전환되게 된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 그 어떤 사회적재부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람이 사회적재부를 창조할수 있는것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적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진 존재인것으로 하여 사회적재부를 목적의식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세계에서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물론 자연계의 생명물질들이 생존을 위하여 서식조건을 마련하고 리용하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은 순수 생물학적본능에 기초한 맹목적인것이며 그 무슨 《재부》의 창조행위는 결코 아니다. 오직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만이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과정에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적재부를 창조한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적활동인것만큼 사회적재부는 고립된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의 창조물, 사회적산물이다.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질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재부도 창조할수 없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룸으로써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니게 되며 단결하고 협력하여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게 된다. 그리고 선행세대가 창조하고 축적한 사회적재부를 토대로 하여 자기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더욱 높이고 보다 많고 훌륭한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며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준다. 이것은 사회적재부가 철저히 사회력사적산물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그의 본질적속성의 발현으로서 그 결과

물인 사회적재부에는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구현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적재부의 발전수준을 통하여 당대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을 알수 있는것이다.

사회적재부는 또한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리용되는 가치있는 수단이다.

사회적재부가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산물이라는것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조물일반이 다 사회적재부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적재부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산물일뿐아니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것이다. 사람이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물이면서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것, 그의 자주적인 생활상요구를 실현하는데 쓸모있는것만이 사회적재부로 된다.

비록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리용할수 없거나 저애를 주는것이라면 그것은 사회적재부로 될수 없다. 반동적인 사상문화는 그것이 인간의 정신적활동의 산물이지만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좀먹고 창조적활동의 발전을 가로막는것으로 하여 사회적재부로 될수 없다.

사회적재부의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의 본성적요구의 실현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사회적재부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 인간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일수록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된다. 어제날에는 사회적재부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더는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의 실현과 창조적활동의 발전에서 쓸모가 없어지면 그것은 사회적재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물론 자연물가운데는 그대로 사람에게 리용되는것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로동이 가해지지 않은것은 자연 그자체이지 사회적재부는 아니다.

사회적재부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과 투쟁의 수단이다. 사회적재부에는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구현되여있다. 사회적재부에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구현되여있다는것은 사회적재부가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일정한 물질적표현형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것이다. 사회적재부에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구현됨으로써 그것은 사회력사적으로 축적, 전달되고 증대, 개선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과 투쟁의 힘있는 수단으로 리용되게 된다. 사회적재부를 떠나서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이와 같이 사회적재부는 사람의 사회적인 창조적활동의 산물로서 거기에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구현되여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한다.

사회적재부는 헤아릴수없이 다종다양하지만 크게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로 구분할수 있다.

물질적재부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는 수단들의 총체이다.

물질적재부는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인가에 따라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 구분된다.

생산수단은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리용하는 물질적수단이다.

생산수단에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로동도구와 생산용건물, 생산용토지, 도로, 창고, 운하, 운수수단과 같은 생산을 보장하는 물질적조건들 그리고 원료, 자재가 포함된다.

생산수단에서 기본은 로동도구이다. 로동도구는 그자체가 사회의 물질적재부인 동시에 사회적재부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로동도구를 가지고 자연을 개조함으로써 로동도구자체를 개선하고 생활수단을 창조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간다.

원료와 자재는 그자체로서는 직접 사람들의 물질생활에 리용

되지 못하며 자연 그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로동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로동에 의해서 마련된것이라는데서 자연부원과 구별되며 물질적재부로 된다.

생활수단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는 물질적향리품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입고 먹고 쓰고 사는데 리용되는 모든 소비수단들이 포괄된다.

정신적재부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는 수단들의 총체이다.

정신적재부는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는가에 따라서 선진적인 사상과 도덕, 과학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정신문화와 그것을 축적하고 보급하는데 리용되는 수단들이 속한다.

정신적재부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선진적인 사회적사상이다.

정치적 및 법률적사상과 철학사상을 비롯한 사회의 선진사상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의 위력한 수단으로, 사회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귀중한 사회적재부로 된다.

인류사상사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선진적인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시대와 력사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끝없이 귀중한 정신적재부이다.

정신적재부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는 선진적인 도덕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지는 사회적행동규범으로서 사회의 공동생활을 보장할 사회적요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선진적인 도덕의 가장 높은 형태는 사회주의도덕이다. 사회주의도덕은 력사적으로 발전하여온 인민대중의 도덕가운데서 모든 합리적인것을 계승하고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우월한 도덕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도덕은 사람들을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로 만들며 사회를 동지적사랑으로 결합된 가장 정의롭고 화목하며 단합된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은 객관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지식의 체계로서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중한 정신적재부이다.

사람들은 과학에 의거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며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나간다. 과학의 중요성과 의의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급속히 증대된다.

선진적인 문학예술도 정신적재부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은 형상을 통하여 인간생활을 그려내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며 그 형상수단과 수법에 따라 소설, 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교예,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갈라진다.

선진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진보적인 문학예술은 인간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예술은 사회의 본질과 현실발전의 합법칙성, 생활의 진리를 깊이 인식시키고 참다운 인간생활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을 지향하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상한 감정과 정서를 키워주고 문화적소양을 높여주며 사회에 건전한 문화생활기풍을 확립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사상과 도덕, 과학과 문학예술 같은 정신적재부의 여러 형태들은 사람의 정신생활과 관련한 사회적현상이고 사람들의 생활과 외부세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적의식의 중요한 형태들로 된다. 그러나 사회적의식과 사회적재부가 꼭 같은것은 아니다. 사회적의식에는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것뿐만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반동적이고 유해로운것도 포함되여 있으며 일정한 물질적표현형식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속에 관념적형식으로 존재하는것도 포함되여 있다.

정신적재부에는 사상과 도덕, 과학과 문학예술 같은 정신문화

와 함께 그것을 축적하고 보급하며 발전시키는데 리용되는 수단들도 포함된다. 정신문화의 축적과 보급, 발전에 리용되는 수단들로서는 책이나 악기, 라지오나 TV,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것을 들수있다. 이러한것들은 모두 사람의 정신생활과 그 발전에 리용된다.

정신적재부는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문화생활 또는 사상문화생활이라고 부르는것처럼 문화적재부 또는 사상문화적재부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문화적재부라는 표현은 정신적재부의 제 형태들을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함께 사회적사상을 제외한 좁은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회적사상을 문화적재부일반과 구별하여 사상리론적재부라고 한다. 그리고 사상문화적재부라는 표현은 사상리론적재부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적재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사이의 경계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다. 실례로 건축물 같은것은 그것이 담고있는 정신적내용과 미적가치로서 사람들의 정신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동시에 물질적인 구조와 기능으로서 사람들의 물질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도 복무한다. 또한 선반이나 자동차 같은것도 사람의 물질생활에 복무하는 경우와 함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과학은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수단이다.

사회적재부는 우선 사람의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수단이다.

사람은 사회적재부를 수단으로 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발전시켜나간다.

사람은 식료품, 옷 등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물질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간다. 또한 선진적인 사회적사상을 비롯한 정신적재부를 리용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체득하고 발전시키며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과정에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보다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고 높여나간다.

사회적재부는 또한 사회적관계의 확립과 개선의 중요한 조건과 수단이다.

사람은 사회적재부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결합된다.

사람들은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선진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며 물질적재부를 매개로 하여 생산관계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사회적관계를 맺게 된다.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관계와 대립과 투쟁의 관계는 모두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의 창조와 리용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다.

사람은 사회적재부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정신적재부는 그것이 담고있는 정신적내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낡고 뒤떨어진 사회관계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추동한다.

물질적재부도 사회개조의 물질적조건과 수단으로 된다. 물론 기계설비와 같은 로동도구는 직접적으로는 자연개조의 수단이다. 그러나 로동도구는 사람들과 결합되여 생산력을 이룸으로써 사회관계 특히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에 작용한다. 로동도구를 창조하고 리용하며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사회적협업과 분업, 사람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확대되고 긴밀하여지며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혁명력량의 조직적단결과 결속을 이룩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마련된 물질기술적수단에 의거하여 낡은 사회관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벌려나간다.

오늘 제국주의의 사상적대변자들은 사회발전에서 사회적재부가 노는 역할에 대한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부 부르죠아사회학자들은 사회적재부의 중요한 형태인 과학기술의 그 무슨 《해독적역할》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자본

주의가 빚어내고있는 경제공황과 공해와 같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의 책임을 과학발전에 전가시키고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것을《기구화》하고《인간자아성》,《개성》을 훼손시킨다고 하면서《인간위기설》을 주장하고있다.

사회적재부는 그것이 누구에게 장악되여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발전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물질정신적수단들이 범람하고 생산력이 발전할수록《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것은 사회적재부가 자본가계급에게 독점되여있고 그들의 치부와 변태적인 욕망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위기는 자본주의제도자체의 불합리성, 비인간성으로부터 초래되는것이지 결코 과학을 비롯한 사회적재부의 발전에 기인되는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일부 부르죠아사회학자들은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과 생산도구가 노는 역할을 절대화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사회의 물질적부가 무한히 늘어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는 더욱 부유해지고 사회적빈궁은 없어지게 되며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대립과 모순이《약화》되거나《해소》될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이러한 견해 역시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부인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그 멸망의 필연성을 가리워보려는 자본가들의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재부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인것만큼 사회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들은 인민대중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발전할수 있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자연이 개조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며 물질적부가 창조된다. 정신적재부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며 그들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마련된다. 인민대중은 직접 정신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가, 우수한 과학자, 재능있는 문학예술인들을 배출한다.

사회적재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따라 합법칙적으로 발전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은 사회적재부를 발전시키는데서 기본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리게 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사회적로동과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더 높은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게 되며 따라서 보다 가치있는 물질정신적재부들이 더 많이 창조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발전은 사회적재부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할수록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이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된다. 그리하여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게 된다.

결국 사회적재부의 발전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따라 그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요소, 측면들이 보존강화되며 그에 맞지 않는 낡고 부정적인것이 청산극복되고 새로운 구조와 기능, 형태와 성질이 보충되면서 총체적으로 사람,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도록 이루어진다고 말할수 있다.

일정한 력사적발전단계에서 사회적재부가 질량적으로 어떻게 창조되고 발전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에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수준과 함께 그 사회에 수립된 사회관계,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서도 규제된다. 사회관계,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사회적결합방식, 사회적활동질서의 체계인것만큼 그것은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착취사회에서는 물질적재부가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변태적인 생활에 탕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리용되며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정신적재

부의 창조와 보급사업이 극히 억제되고 착취계급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상문화가 지배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적재부의 창조사업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무정부성을 띠고 자연발생적으로 굼뜨게 진행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합리적으로 조직진행됨으로써 사회적재부가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 계획적으로 창조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철학사상에서는 사회적재부문제를 사회력사관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제기하고 옳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맑스주의이전에는 사회적재부가 철학적문제로 제기되고 론의되지 못하였다.

고대와 중세에는 사회적재부의 발전수준이 낮고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서 노는 역할이 눈에 뜨이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간의 사유능력도 다종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재부들을 일반화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던것으로 하여 사회적재부문제가 제기되지 못하였다.

근대에 와서 사회적재부는 신흥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한 사상가들에 의하여 주로 물질적부의 범위에서 고찰되고 경제학적관점에서 론의되였다.

우리 나라의 실학자들과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물질적부를 《재화》, 《국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유용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활의 원소》로 보았으며 그 원천을 로동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유럽의 중상주의자들은 나라에 축적된 돈과 귀금속이 재부를 이룬다고 보았으며 중농주의자들은 재부를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생산물의 흐름의 형태로 보았다.

부르죠아고전정치경제학자들은 재부를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로동의 물질적결과물로, 사회가 소유하고있는 물질적가치물의 총체로 간주하였다.

맑스주의는 사회적재부에 대한 선행한 경제학적리해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회적재부문제를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철학적으로 처음 론의하였다.

선행리론에서는 사회적재부를 사회적생산의 결과를 표현하는것으로 보았다. 다시말하여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물질적가치뿐아니라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물질적 및 정신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의 발전정도, 생산력과 과학의 발전정도,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지배정도 등을 표현하는것으로 보았다.

맑스주의는 사회적재부를 구체적인 사회적관계, 생산관계속에서 고찰하면서 그 원천이 로동이라는데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선행리론에서는 사회적재부를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보지 못하였다. 선행리론에서 사회적재부문제는 자본주의사회경제구성태와 그 력사적과정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고리로서 제기되였으며 따라서 물질적재부는 토대에, 정신적재부는 상부구조에 포함시켜 따로따로 론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선행리론에서는 또한 사회적재부문제를 그 창조자이며 향유자인 사람의 사회적본성에 기초하여 해명하는데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물론 선행고전가들은 재부는 인간이 가지고있는 창조적재능의 표현이고 물질적수요충족을 위한 생산과정에 인간이 창조한 창조물이며 거기에는 인간적본질이 《객관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리론은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활동에서 물질적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함으로써 물질경제적관계를 위주로 사회적재부문제를 고찰하는데로 나아갔던것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회적재부는 사회력사관의 기본개념의 하나로, 사람, 사회적관계와 함께 사회의 중요구성부분으로 고찰되게 되였으며 사람과 그 활동을 중심에 놓고 그 특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은 사회적재부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을 다그치고 자기 운명을 더 잘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관계

사회적관계는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질서의 체계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질서의 체계가 바로 사회관계이며 이러한 사회적관계의 공고한 체계가 사회제도입니다.》

원래 사회적관계라는 말은 자연적관계와 구별하여 쓰인다. 자연적관계가 자연적존재들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표현한다면 사회적관계는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비롯한 자연계의 존재들은 자연환경속에서만 존재하며 자연적관계밖에 맺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자연과 함께 사회를 자기의 생활환경, 생활조건으로 하며 사회적관계를 맺는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계로서 사람에게만 고유하다.

사회적관계는 사람들을 사회적집단으로 결합시키는 사회적질서의 체계이다.

사회적집단은 사람들의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사회적결합은 사회적집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적집단속에서 살고 활동하며 전체로서의 사회는 각이한 사회적집단들이 결합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기 위하여서는 집단안에 일정한 사회적질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집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며 그들이 가지는 요구와 리해관계도 그 내용과 수준, 성격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것만큼 일정한 절차나 규범에 따르는 행동방식, 사회적질서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사이의 유기적인 련관관계와 사회적결합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회적관계는 바로 사회적집단속에서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질서의 체계이다.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각이한 요구와 리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련관을 맺고 일정한 질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사회적집단을 이루게 되며 나아가서 인류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집단을 이루는 개별적사람들사이의 호상련관관계가 이루어질뿐아니라 개별적사람들과 집단과의 관계,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도 맺어진다.

사회적관계가 사람들을 사회적집단으로 결합시키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질서의 체계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의 활동은 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준비정도, 그가 처한 구체적인 객관적조건의 차이로 하여 서로 다르게 진행될수 있다. 사회적집단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집단을 이루는 개별적성원들의 활동이 집단의 존재와 발전에 맞게 진행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집단안에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활동이 집단의 존재와 발전에 맞게 진행되도록 규제하는 질서는 다름아닌 사회적관계이다.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사람들이 제기하는 각이한 요구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이 집단의 존재와 발전의 견지에서 조절통제되게 되며 그로 하여 사람들의 집단활동,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관계의 공고한 체계인 사회제도는 사회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사회적관계는 사람과 사회적재부를 결합시킨다.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속에서만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리용할수 있다. 원래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리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관계를 떠나서 그 어떤 사회적재부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사회적재부의 창조와 리용을 떠난 순수한 인간관계란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규정된 질서에 따라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소비, 리용하면서 서로 련관을 맺고 사회를 이루게 된다.

사회적관계의 특성은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맺어지는 목적의식적인 관계라는데 있다.

사회적관계는 사람이 맺는 관계이다. 사회적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맺는것도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활동은 목적의식적인것만큼 그들이 맺는 호상관계도 목적의식성을 띠지 않을수 없다. 물론 동물계에서도 개체들의 존재와 활동에서 일정한 련계가 맺어지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먹이를 구하거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동물들의 일정한《질서》나《신호체계》등은 본능적인것으로서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자연적진화의 산물이며 목적의식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관계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일정한 목적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정에 맺는 관계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며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그것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이처럼 사람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맺어지는 목적의식적인 관계라는데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자연적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관계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사회적관계는 일정한 합법칙성을 띠고 발전한다.

사회적관계의 발전은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수준에 맞게 이루어진다.

사회적관계의 주인은 사람인것만큼 그것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해 부단히 발전하며 그 수준과 높이는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정도에 의해 규정된다.

사회적관계의 발전은 낡은 사회적관계를 새로운 사회적관계로 교체할데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제기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회적관계개선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

전시킬데 대한 높은 수준의 목표가 설정되게 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강한 의지력이 발휘되게 된다.

사회적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그들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적관계의 변혁은 낡은 사회적관계를 유지하려는 반동세력의 필사적인 반항을 짓부시는 치렬한 투쟁이며 어렵고 복잡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적관계를 확립하자면 반동세력을 때려부시고 온갖 난관을 타개해나갈수 있는 창조적능력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낡은 사회적관계를 선진적인 사회적관계로 개조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개조의 요구를 제기하게 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며 그리하여 보다 선진적인 사회적관계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적관계가 부단히 개선되여나가며 력사발전의 일정한 시기의 사회적관계의 성격과 내용, 발전수준은 당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수준을 표현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적관계는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더욱더 확대발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함으로써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단결과 협력의 관계는 사회적관계에서 기본적인 관계로 된다.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는 끊임없이 발전완성되여가는 사회적관계이다. 인류력사에는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가 없는 사회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사회성원의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으며 그들이 없이는 사회의 존립자체를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민대중이 있는 한 비록 구체적인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그 수준과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

만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가 있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원시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사회발전과정은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가 력사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확대되고 발전하여온 력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결과 협력의 사회적관계는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되며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된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회적관계에 대한 리해는 사람중심의 독창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리해이다.

유물사관에서는 생산관계, 경제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관계를 고찰하였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사회적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생산관계의 총체》이다. 그리고 《물질적관계와 이데올로기적관계》로 나뉘여지며 사람의 1차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서 맺어지는 관계인 물질적관계, 생산관계에 의해 사회의 《계급에로의 분화, 지배와 종속의 관계, 국가, 정치, 법률 등등도 규정》된다. 이처럼 생산관계를 사회적관계의 주되는 내용으로 본데로부터 유물사관에서는 사회적관계의 발전의 결정적요인도 생산관계, 경제관계발전의 물질적기초인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유물사관이 밝힌 이러한 견해는 당시 사회적관계를 순수 정신적관계로 보거나 또는 그것을 현실적인 관계라고 하면서도 자연적이며 생물학적인 관계로만 보면서 자본주의적사회관계, 사회제도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데 복무하던 온갖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리론들을 타파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관계에 대한 유물사관의 리해는 본질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적관계의 주인, 담당자는 사람인것만큼 사람과 그 활동을 중심에 놓고 고찰할 때에라야 사회적관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할수 있다. 물론 생산관계, 경제관계는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인 경제생활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로서 이여의 다른 사회적관계들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유물사관에서 사회적관계의 본질적내용으로 본 생산관계, 경제적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생활과정에서 맺어지는 사회적관

계의 한 측면일따름이다. 사회적관계의 형성발전의 결정적요인은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관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정치생활

정치생활은 일정한 정치조직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적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수행해나가는 생활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이다.》(《**김정일**선집》 10권, 254페지)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회공동생활이 이루어지며 사회와 집단이 유지되고 발전된다.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 정치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도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로 된다.

사람들의 생활은 그것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진행된다. 정치조직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회적권리와 의무가 규정되고 그것을 행사하고 수행해나가는 전 과정이 조직진행된다. 정치조직에는 국가와 같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도 있고 사상과 리념, 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통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정치조직들도 있다.

이로부터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이한 성격과 류형의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게 되며 해당 정치조직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적권리를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

라되여 사회적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수행해나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바로 정치생활이다.

정치생활에는 국가정권을 통한 정치생활과 정당, 단체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치생활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합니다.》(《**김정일**선집》 11권, 57페지)

사람들은 국가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을 진행해나간다.

국가정권을 통한 정치생활은 국가정권이 규정하고 담보하는 사회적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나가는 사회생활이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을 행사하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국가는 일정한 령토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씨족공동체와 같은 원시사회조직을 단위로 하여 생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시적인 사회조직대신에 폭력에 기초한 보다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국가가 출현하면서부터 전체 사회성원들의 정치생활은 국가정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였다. 국가정권을 통한 정치생활은 국가의 통일적인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법은 국가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다. 법규범과 규정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회적권리와 의무들이 반영된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준수하는 생활을 통하여 전사회적범위에서의 국가정치생활이 이루어진다.

국가정권을 통한 정치생활의 성격과 내용은 국가정권의 계급적성격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착취계급이 국가정권을 쥐고있는 착취사회에서 국가의 모든 법과 규정은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작성되고 실현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지향과 요구가 아니라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반동적이며 노예적인 정치생활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된 선진적인 사회에

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하여 모든 법과 규정이 제정되고 집행된다. 그러므로 인민적인 국가정권하에서는 국가정권을 통한 사람들의 정치생활이 사람의 본성에 맞는 자주적인 정치생활로 된다.

사람들은 국가정권과 함께 정당, 단체들을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진행해나간다.

정당, 단체들을 통한 정치생활은 정당, 단체가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나가는 사회생활이다.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정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정치조직들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진행되게 되였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도 나누어지며 년령별, 성별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특히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에 속하여 살며 활동한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사상과 리념, 처지와 직업, 년령과 성별에 따르는 여러가지 공통성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조직들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정치활동을 벌려나가게 되였다.

이 과정에 일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 사회정치단체들이 나오게 되였다. 당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이다. 계급사회에서 당은 일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리익을 대표한다.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정치단체들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과 함께 직업별, 년령별, 성별에 따르는 일정한 공통성에 기초하여 조직된다. 정당을 비롯한 사회정치조직들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의 정치활동, 정치생활은 국가정치생활과 함께 정치조직생활을 포괄하게 되였다.

정당, 단체를 통한 정치생활은 정당, 단체의 강령과 규약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정당, 단체들의 강령과 규약은 해당 정치조직들의 활동의 목적과 방향, 전술적원칙들과 활동준칙들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정치적요구와 리익이 반영된다.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 단체의 강령과 규약에 기초하여 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조직생활이

이루어진다. 착취사회에서 정치적자유와 권리, 국가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투쟁과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을 지키고 보위하며 관리운영하기 위한 정치활동들은 모두 정당, 단체를 통한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진행된다.

정당, 단체를 통한 정치생활의 진보성과 반동성은 사회정치제도와 해당 정당, 단체의 지도사상, 계급적지반에 의하여 좌우된다. 선진적인 사회정치제도하에서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보장되지만 반동적인 사회정치제도하에서는 진보적인 정치조직들의 활동이 억제되고 탄압당하는 반면에 반동적인 정치조직들은 적극 비호조장된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에 기초한 정당, 단체의 활동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에 있어서 진보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되며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에 기초한 정당, 단체는 사람들을 자기의 본성적요구와 어긋나는 반동적인 정치생활에로 이끌어간다. 선진계급과 계층,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단체의 활동은 사회발전에 부합되는 진보적인 정치활동으로 되며 반동적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단체의 활동은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정치활동으로 된다.

참다운 정치생활은 사회주의정치생활이다.

사회주의정치생활은 우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자주권을 지니고 행사하는 참다운 정치생활이다. 자본가계급이 정권을 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당하며 반동적인 정치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사회주의정치생활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혁명적인 조직사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다운 정치조직생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반동통치제도에 의하여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조직들이 온갖 구속을 당하고 파괴되여 사람들이 참다운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없게 되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동적정치조직에 끌려들어 반동들의 리용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당조직과 당의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들에 망라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정치조직생활을 하면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정치적생명의 량식으로 받아안으며 당과 국가의 정책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생활을 마치 자유에 대한 《구속》인것처럼 헐뜯고있다. 그러나 사회적인간의 참다운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의 자주적본성을 유린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인 정치생활이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전반의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그 전 과정을 조절통제한다. 국가정권을 장악한 계급 또는 사회적집단은 정치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경제생활과 사상문화생활의 방향을 규정하고 그 진행과정을 조절통제한다. 이로부터 정치생활에 의하여 물질적 및 사상문화적부의 창조와 보급, 향유과정이 규제되게 된다.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생활은 사회적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활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이기 위한 정치생활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로 된다.

사람들은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 국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일정한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면서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칠때 참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의 주인으로 되여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에 빠짐없이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헌신함으로써 집단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있다. 이것이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보편적인 생활이며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정치생활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정치생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정치생활에 참답게 참가할수 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리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제생활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물질적재부를 창조하고 리용하면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가는 사회생활분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그 결과에 얻어진 생산물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간다.》

물질적수요는 인간의 발전과 활동을 물질적으로 담보해주는 물질적부에 대한 요구이다. 다시말하여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인간의 물질적요구는 동물일반의 육체적생명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동물의 육체적생명의 《요구》는 자연에 그저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요구》이지만 사람의 물질적요구는 자연에 그저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자연을 개조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자료들을 얻어내는 과정에 실현되게 되는 요구이다.

자연에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들이 거의나 기성의 형태로 주어져있지 않다. 사람은 자연이 제공하는것을 그대로 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대부분을 다 자기자신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획득한다.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여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함으로써만 육체를 건전하게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물질적요구는 자연의 주인이 되려

는 요구라고 말할수 있다.

경제생활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 이르는 사람들의 활동을 다 포괄한다.

사람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필요한 생활자료, 물질적재부를 가져야 하며 그러자면 그것을 생산하여야 한다. 물질적재부의 원천은 자연에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생활자료를 마련할수 있다.

생산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생산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재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활동이다.

생산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다.

사람들의 물질적수요가 실현되자면 생산된 생활자료가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소비되여야 한다.

소비는 사람들이 물질적재부를 리용하는 활동이다. 소비는 생산적소비와 비생산적소비로 나뉘여진다. 소비는 분배와 교환을 통하여 생산과 련결된다.

분배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된 물질적부를 나누는 활동이며 교환은 분배와 소비를 련결시키는 사회적재생산의 한 고리, 사람들의 활동이다.

경제생활은 이처럼 사람들이 입고 먹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자료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교환하고 소비하는 사회생활이다.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로동생활과 창조된 재부를 소비하면서 살아나가는 물질생활은 경제생활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경제생활은 우선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창조적로동생활이다.

사람이 살며 발전하자면 그 무엇보다도 그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창조하여야 한다. 물질적인 생활자료와 수단이 창조되여야 그것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생활도 이루어질수 있다.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로동생활은 경제생활의 첫 공정이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적힘으로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사람의 창조적로동활동의 대상은 자연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사람의 창조적능력이다. 사람은 창

조적능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도구를 창조하며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자연을 부단히 개조해나간다. 창조적능력과 생산수단으로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활동이 사람들의 로동생활이다.

경제생활은 또한 창조된 물질적부를 소비하면서 살아나가는 물질생활이다.

사람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자면 로동을 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생산된 사회적부를 직접 소비하여야 한다. 물질적부를 생산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생산의 목적은 사람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물질적부의 분배와 소비과정에는 직접적인 생산자와 함께 비생산자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참가하게 된다.

물질생활은 사람들의 물질적요구를 직접 실현해나가는 생활이다.

물질적부의 소비는 사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은 물질적부를 소비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육체적 생명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물질적부의 합리적인 분배와 소비, 그 발전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한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참다운 경제생활은 사회주의경제생활이다.

사회주의경제생활은 우선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참다운 자주적인 로동생활이다. 로동생활의 성격과 진보성은 해당 사회의 생산관계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제된다.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자주적인 로동생활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하는 로동생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주적인 로동생활이 이루어질수 없다. 자본주의적로동생활은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자본가계급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노예적로동생활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로동생활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비로소 생산수단의 주인, 생산과정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한다.

사회주의경제생활은 또한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대중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 참다운 경제생활이다. 해당 사회의 물질생활의 성격은 사회의 정치, 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제된다. 물론 물질생활의 규모와 내용은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의존된다. 그러나 창조된 물질적부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소비되는가 하는것은 정치, 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제되고 담보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물질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략탈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권력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로동으로 물질적부를 창조하면서도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향유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부가 아무리 많이 창조되여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유족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입고 먹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김정일**선집》 11권, 59페지)

경제생활은 우선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해준다.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일정한 생활수단이 있어야 한다.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나갈수 없고 사회가 유지될수도 없다. 경제생활은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분배하여 소비하는 생활로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해준다.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힘있는 존재로 발전할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담보해준다. 사람은 과학과 기술, 지식과 경험이 담겨져있는

생산도구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위력한 힘으로 세계를 개조해나가게 되며 그 과정에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된다.

경제생활은 또한 정치생활과 문화생활의 발전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한다.

경제는 정치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정권은 강력한 경제력이 안받침되여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만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사회성원들의 참다운 정치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경제생활은 문화생활의 발전도 보장한다. 경제생활이 풍족하여야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 보건과 체육 등 문화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경제생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이 경제생활에 참답게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사상문화생활

사상문화생활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사회생활분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됩니다.》(《**김정일**선집》 11권, 65폐지)

사람은 그저 입고 먹고 쓰고 사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면서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문명하게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새로운 사상정신적 재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리하여 사회생활에는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함께 사상문화생활이 필수적인 분야로 포괄되게 된다.

사상문화생활은 사람의 정신문화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생활이라는데서 사회정치적요구와 물질적수요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구별되며 바로 여기에 자기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것이다.

사상문화생활은 우선 새로운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이다.

사람들의 정신문화적요구가 충족되자면 사상문화적재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필요한 사상문화적재부는 결코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투쟁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창조된다. 한편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자면 낡은 사상과 문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구속하는 낡고 뒤떨어진 사상과 문화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착취계급을 비롯한 낡고 반동적인 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조작되고 류포되는 낡고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를 반대배격하는 심각한 투쟁에 기초하여서만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사상문화가 창조되고 향유될수 있다. 이로부터 사상문화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이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사상문화생활은 또한 사람들이 창조된 사상문화적재부를 향유하면서 자신을 사상문화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활동이다.

사람들의 정신문화적요구는 사상문화적재부를 향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족된다. 사상문화적재부를 향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가 실현된다. 사상문화적재부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해나가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어나가는 생활은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 건전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어나가는 생활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생활과 함께 인류의 진보적인 문화유산을 체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교육활동을 비롯하여 보건, 체육활동, 문학예술을 향유하는 생활 등을 포함한다.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주의사상문화생활이다.

사상문화생활의 성격과 진보성은 사회제도의 성격과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반동적착취계급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착취사회에서는 사회의 사상문화생활이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에 맞게 진행된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상문화생활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본성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반동적인 사상문화생활이 지배한다.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에게는 자주의식으로 무장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순종하면서 리윤을 증식시키는 노복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자본가계급은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적발전을 저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이 끊임없이 류포되고있다. 자본가계급의 악랄한 선진사상탄압, 반동사상주입책동과 반동문화의 대대적인 선전과 류포로 하여 사람들은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 퇴페적인 문화와 도덕에 포로된 정신도덕적불구자로 전락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상정신적으로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적요구가 실현될수 없다.

정신문화적요구를 충족시키며 사상정신적으로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는 사회주의사상문화생활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사상문화생활은 사람의 자주적본성을 정확히 구현한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문화생활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상문화생활은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적요구를 실현하는

데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문화생활로 된다.

사회주의사상문화생활은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자로 될뿐아니라 그 향유자로 되는 가장 인민적인 사상문화생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정신문화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체득하고 누리게 된다.

사회주의사상문화생활은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풍부하고 건전한 사상문화생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사상문화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당과 국가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과 국가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상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교육, 보건을 비롯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문화제도의 혜택으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과 예술,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문화가 대중화, 생활화되여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선군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정신육체적불구자로 만드는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없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고상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이 보편화되고있으며 건전한 사회주의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상문화생활은 우선 경제생활, 정치생활을 담보한다.

경제생활이나 정치생활은 다같이 사람의 활동인것만큼 사람이 어떻게 힘있는 존재로 준비되는가 하는데 따라 그 발전이 좌우된다.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갖춘 힘있는 존재로 준비될 때 사람들은 로동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해내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리게 된다.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상문화생활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 경제생활, 정치생활을 더 잘 할수 있게 한다.

사상문화생활은 또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민족의 륭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한다.

사상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조류를 배격분쇄하며 민족허무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할수 있다.

문화생활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수준,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야 자기의 힘과 기술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상문화생활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사상문화생활에 참답게 참가할수 있는 과학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적운동

사회적운동은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운동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은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운동입니다.》(《**김정일**선집》 14권, 193페지)

사회적운동이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운동이라

는것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그 하나는 사회적운동이 사람을 담당자로, 주체로 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라는것이다.

자연의 운동의 담당자는 자연적, 생물학적존재이지만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이다. 사람이 담당수행하는 운동이라는데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가 있다.

사회적운동이 인간을 담당자로 하는 운동이라는것은 인간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되는 인간의 운동이라는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물질적존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은 단순히 사회적운동의 담당자가 아니라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되며 사회적운동은 주체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일어나고 추동되며 그 결과가 규정되게 된다.

사회적운동이 사람의 운동이라는것은 결코 개별적사람들의 활동이나 그것들의 단순한 종합이라는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정한 집단에 속해있으며 따라서 매 사람들의 생활상요구, 활동의 목적은 그가 속한 사회적집단의 요구, 활동목적으로 나타나고 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 힘은 그가 속한 사회적집단의 힘으로 발양되게 된다. 사회적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집단의 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되는 집단적, 사회적활동이다.

사회적운동이 담고있는 내용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해나가는 운동이라는것이다.

지배란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대상을 사람에게 복무시킨다는것이며 개조란 사람이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시킨다는것이다. 지배와 개조는 사람과 세계와의 현실적관계이며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면서 생존하고 발전한다.

자연의 그 어떤 물질적존재도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지 못한다. 무생명체는 말할것도 없고 생명체인 경우에도 그 운명이 객

관적환경에 어떻게 순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생물학적존재는 객관적생활환경에 의하여 그 운명이 결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것은 사람의 존재방식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활동이 다름아닌 사회적운동이다.

사회적운동은 사람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대상을 자기에게 복무시켜나가는 과정이며 사람이 창조적활동으로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세계의 모든것은 사회적운동을 통하여 사람에게 유리하고 리롭게 개조되고 지배되여나간다.

사회적운동은 사회적집단일반이 수행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직 인민대중이 벌리는 운동만이 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참답게 체현한 사회적집단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활동을 벌리는 집단은 오직 인민대중뿐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이 벌리는 운동밖의 그 어떤 사회적집단의 운동도 사회적운동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은 곧 인민대중에 의하여 벌어지는 운동,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운동이다.

사회적운동은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기본내용, 기본구성부분으로 하여 벌어진다.

사회적운동이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기본내용으로 하여 벌어지게 되는것은 사회적운동이 자연과 사회,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운동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적운동에 대한 리해에서 사회발전과의 관계를 옳바로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운동은 사회발전과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원래 발전이란 사물현상의 상승적인 운동변화를 의미한다. 따

라서 사회의 발전이란 사회를 이루고있는 사람과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의 상승적인 운동변화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이 보다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고 사회적재부가 더 많이 늘어나며 사회적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되여나간다는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운동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인간의 운동으로서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개조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사회의 중요구성부분들인 사람과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의 변화발전은 바로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회적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적운동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인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의 변화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발전과정이자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하기 위한 사회적운동과정이며 사회적운동이자 사회의 구성부분들인 사람과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의 변화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사회적운동이나 사회발전은 다 인간의 활동과 그에 의한 사회의 구성부분들의 변화발전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다만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이 주로 사회의 구성부분들의 변화발전을 위주로 하여 사회의 운동변화발전을 표현하고있다면 사회적운동이라는 개념은 주로 사람의 활동을 위주로 하여 사회의 운동변화발전을 표현하고있는데서 구별될뿐이다.

이런데로부터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을 좁은 의미에서 사회의 구성부분들의 변화발전을 념두에 두고 쓰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적운동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구성부분들을 변화발전시키는 인간의 활동을 념두에 두고 쓰는 경우가 있게 된다.

사회적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물론 사람이 객관적인 물질세계에서 살며 사회가 자연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는것만큼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라는데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은 자연

의 운동과 달리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운동인것만큼 그에 고유한 특성이 있게 된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데 있다.

사회적운동은 우선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여 벌리는 운동이다. 다시말하여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담당자의 견지에서 밝힌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성이다.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사회적운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는것은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동된다는것이다. 아무리 발전된 물질적수단이나 조건도 그것은 사람에 의하여 마련되고 사람에 의하여 리용되여야만 사회적운동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칠수 있다.

사회적운동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이 자체의 무궁무진한 힘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처럼 사회적운동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 결정적요인인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운동이라는데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사회적운동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근본방향과 목적의 견지에서 고찰한 사회적운동의 특성이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벌어지는 운동이라는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고 남

에게 예속되여있으면 사회적존재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바 없다. 때문에 사람은 자주성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자기의 자주적본성으로부터 그 어떤 예속과 구속도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당하는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바로 인민대중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자신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되여나가는 운동이 다름아닌 사회적운동인것이다.

사회적운동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진행방식, 과정상특성의 견지에서 고찰한 사회적운동의 특성이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이 운동이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전진하는 운동이라는것이다.

생활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은 창조적인 성격을 띤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자연과 자기가 살고있는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문화적재부를 만들며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함으로써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낡은것이 청산되고 새것이 창조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진행방식이다.

자연에서도 낡은것과 새것의 교체가 진행되지만 그것은 목적의식적인 개조과정이 아니다. 사회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 달리 자기의 자주성실현을 구속하는 낡은것을 없애고 자주성실현에 이바지하는 새것을 창조하여 리용하는 주체가 있으며 이로부터 주체에 의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드는 목적의식적인 교체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그들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낡은것이 변혁되고 새것이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되는 개조과정이며 바로 여기에 자연에는 없는 사회적운동에만 고유한 특성이 있는것이다.

사회적운동은 또한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의 견지에서 고찰한 사회적운동의 특성이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이다.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특성이 있다.

사회적운동이 목적의식적으로 벌어진다는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선택리용하며 부닥치는 정황에 대처하면서 세운 목적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적운동이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게 되는것은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이 의식,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통제되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가운데서 사상의식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들의 행동목적이 규정되며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 추동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이 발휘하는 투쟁력과 의지도 규제한다.

사람들이 혁명투쟁에서 어느 계급의 편에 서서 싸우며 의지와 투쟁력을 얼마나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의 역할은 결국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전진해나간다. 이것은 자연의 운동에는 없는 사회적운동에만 고유한 특성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과학적인 사회력사관을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적극 추동하게 되였다.

력사의 주체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력사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도 력사발전도 생각할수 없다.》(《**김정일**선집》 12권, 406페지)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나가는 담당자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도 력사의 발전도 인민대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인민대중이다. 아무런 사회적부도 창조하지 않고 그것을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기생충, 남의 로동을 착취하는 계급과 집단은 인민대중으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구성부분은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된다. 착취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착취받고 억압받는 근로자들이 인민대중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룬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이 인민대중을 이룬다. 사회의 생산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이루는 계급구성은 힘든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정신로동,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계급적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됨으로써 다같이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소수 적대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되며 혁명대오안에서 배신자들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적대분자, 배신자들은 결코 인민대중에 포함될수

없다.

인민대중이라는 말은 사회계급관계를 반영하지만 그것은 순수계급적개념이 아니다. 원래 인민대중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사회계급적처지에 의해서만 구별되지 않는다. 사람의 사상과 행동은 사회계급적처지의 영향만 받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혁명적인 영향을 받고 선진사상을 체득하면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떠하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어떤 사회계급적토대를 가졌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중요한 사상적기초는 사회주의사상이다. 사회주의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자주적인 혁명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나라와 민족,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도 사회의 성원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기초로 된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적운동을 일으키고 추동하는것으로 하여 력사의 주체로 된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운동을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위력한 힘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떠밀고나간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참다운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도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장성강화된다. 인민대중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운동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간다. 인민대중은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는 창조적위력으로 자기의 자주성을

위한 사회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여나간다.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과 자연개조사업,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운동은 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된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고 력사가 발전한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물질적부를 창조한다. 물론 자본가계급도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기 손으로 물질적부를 창조하지 않는다. 력사적으로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인민대중은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한다. 인민대중은 직접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가, 우수한 과학자,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다. 착취계급도 저들의 사상문화의 대변자들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상문화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한다.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사상문화적재부는 모두 인민대중의 투쟁과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사회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개조된다. 반동적착취계급은 낡은 착취제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진다. 부르죠아통치배들이 벌리는 《개혁》놀음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제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의 진보적인 개조는 오직 각성되고 단합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결국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문화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관계가 발전하며 그에 따라 력사가 전진한다.

착취계급은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착취계급은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반동이며 혁명의 대상입니다.》(《**김정일**선집》 11권, 45페지)

착취계급은 력사의 반동이며 혁명의 대상이다. 착취계급은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한다. 착취계급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대중이 투쟁에 일떠서지 못하게 막아나서며 착취제도를 더욱더 반동화하려고 한다.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분렬리간시키는데 막대한 돈과 재부를 쏟아붓는다. 착취계급은 또한 사회의 진보적개조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

쟁을 가혹하게 탄압한다. 착취계급은 반동적인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진보적인사들과 근로자들을 체포투옥하고 살해하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오늘 자본가계급은 진보적인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착취와 억압의 낡은 질서를 복귀하기 위하여 회유와 기만, 압력과 고립압살,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결국 착취계급은 사회발전의 주되는 장애물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기본투쟁대상이다.

개인은 력사의 주체가 아니다.

력사의 주체의 기본징표는 사회력사의 전진운동을 일으키고 그러한 운동을 자기 힘으로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력사의 주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력사를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지닌 담당자만이 될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력사의 전진운동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힘이 없다. 아무리 총명한 개인도 력사적으로 축적된 인류의 힘과 지혜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다.

개인이 력사의 주체가 아닌것처럼 개별적인 소집단도 역시 력사의 주체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소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한다. 각이한 사명과 임무를 가진 여러 소집단들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와 같이 사회생활의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단위의 소집단은 결코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령역을 개조변혁하여 력사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힘을 지닐수 없다. 개인이나 사람들의 소집단은 오직 인민대중과 결합되여야 력사발전에서 긍정적역할을 할수 있으며 력사의 주체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력사의 주체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결합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과정에 인민대중은 민족을 단위로 결합되였으며 민족국가를 이루고 력사를 창조해나가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매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주체를 이루

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은 오늘의 력사적현실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이다.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와 구별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라고 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닙니다.》(《**김정일**선집》 8권, 447페지)

인민대중은 착취사회에서 오래동안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지 못하였다. 착취사회에서도 사회의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는 모두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수천년에 걸치는 계급사회의 전기간에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마련되여왔다.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전복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변혁도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자기의 의사대로가 아니라 주로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여왔다. 인민대중은 착취계급의 강요에 따라 온갖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는데 자기의 피땀을 바치였으며 피로써 쟁취한 투쟁의 열매를 착취계급에게 빼앗겨왔다. 《말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던 노예사회의 노예들과 신분적예속에 종속되였던 봉건농노들 그리고 《임금노예》로 전락된 자본주의사회의 근로대중은 모두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착취계급의 의사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여온데 불과하였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이 낮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오래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자기의 힘으

로 모든 재부를 창조하면서도 력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수 없었다.

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선진적인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 조직화됨으로써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선진적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됨으로써 비로소 력사무대에 널리 등장할수 있었습니다.》(《**김정일**선집》 8권, 447페지)

선진적로동계급의 출현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계급적조건으로 된다.

로동계급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혁명적능력을 가진 계급이다. 로동계급의 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자신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인 집단주의를 높이 체현하고있는 계급으로서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하고 혁명성이 강한 선진적인 계급이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의식화되고 조직화됨으로써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는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력사를 전진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동적통치계급을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과정이다. 온갖 반동적통치계급은 언제나 방대한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억누르고 착취한다.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통치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적통치계급의 생존방식이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반드시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할수 있는 혁명무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의 총대를 가지지 못한 적수공권의 당과 대중은 비록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코 승리할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오직 총대와 결합되여야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고 반혁명적폭력에 기초한 낡은 국가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우고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수령과 당의 령도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력사발전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력량으로 결속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령도는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만이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력사의 주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라는것은 그것이 수령과 당, 군대와 인민을 기본구성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가장 공고한 통일체라는것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과 당, 군대와 인민을 기본구성

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정치적집단이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어느때나 있었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오랜 력사적기간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의 의사대로 개척해나갈수 없었다.

인민대중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자기의 당, 자기의 군대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와 결합되고 혁명군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력사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을 기본구성으로 하는 위력한 사회정치적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수령과 당, 군대와 인민을 기본구성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이라는데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는 단순히 인민대중만을 포괄하는 력사의 주체일반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가장 공고하게 결합된 통일체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그 결합의 공고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회적집단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당과 군대, 인민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된 사상의지적인 통일체이다.

사회적집단의 단결이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사상적공통성에 기초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체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하나로 굳게 단결시키는 사상적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혁명적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기초로 하여 당과 군대,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결된것으로 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가장 공고한 통일체로 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가장 높은 수준의 조직적단결을 이룩한 공고한 통일체이다.

사회적집단의 조직적단결은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순결한것으로, 유일적인 령도체계에 기초한 전일적인것으로 되여야 가장 공고

한것으로 된다. 유일중심이 없이 일부 계급이나 계층, 세력만을 망라하거나 각이한 분파로 분리되여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집단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군대와 인민이 전일적으로 결속된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적통일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당과 군대, 인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령도체계를 가진 가장 완벽한 조직적통일체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결속된 가장 공고한 도덕의리적통일체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이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도덕의리적인 통일단결로 되여야 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의하여 수령과 군대, 인민이 사랑을 주고 의리를 다하는 어버이와 자식간의 관계로 굳게 결합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적통일체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개별적성원들도 호상 동지적사랑과 의리를 주고받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도덕의리적통일체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생명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김정일**선집》 8권, 447～448페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그 최고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중추적정치조직인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것으로 하여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된다.

군대와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결속되면 사회정치적생명체는 그 어느 사회정치적집단도 지니지 못한 불패의 힘,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

진한 힘이 결합된 무한대의 생명력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생명력이다.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의 생명력은 영생하는 생명력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지닌것으로 하여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보다 높은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감으로써 자기의 생명력을 영원히 이어나간다.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이 밝혀진것은 인류사회발전의 전 력사와 오늘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새로운 철학적발견이다.

지난 시기에는 어느 철학에서도 력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옳바로 밝히지 못하였다. 관념론철학에서는《절대리념》과 같은 초현실적인 정신적존재를 설정해놓고 그것이 자연과 사회, 인간사유의 모든 력사적과정을 결정하는 자립적인《주체》라는 허황한 주장을 내세웠다. 맑스주의이전의 유물론철학에서도 사회와 력사를 관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황제나 왕, 립법자, 정복자들의 주관적의지나 감정을 사회현상을 좌우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내세웠다. 맑스주의철학에 의하여 처음으로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라는 견해가 밝혀졌다. 맑스주의는《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개인》등을 력사의 추동력으로, 력사발전의 능동적인 요소로 보면서 인민대중을 력사의 수동적인 존재로 그릇되게 간주하는 청년헤겔파의 주관관념론적견해를 비판하면서 대중이 력사발전에서 주동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의 기초로 되는 물질적생산의 담당자라는 견해를 표현한것으로써 력사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일면적으로 밝힌것이였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주체철학에 의하여 처음으로 전면에 제기되고 완벽하게 해명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력사의 주체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과학리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운동

주체의 운동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행리론은 사회력사적운동을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으로 본것이 아니라 주로 물질경제적요인에 의하여 변화발전하는 자연사적과정으로 보았다.》(《**김정일**선집》 13권, 460페지)

주체의 운동은 우선 사회적운동이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운동의 원인과 동력의 견지에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밝힌것이다.

사회적운동은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원인은 그 주체인 사람의 자주적요구이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운동을 벌린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으로 표현되며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으로 표현된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사람의 자주적인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름없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곧 사람자신을 무시하는것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그의 자주적본성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없앨수도 빼앗을수도 없으며 억누르고 구속할수록 더욱 강렬해진다.

사람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회적운동을 벌린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인 사람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로부터 사회적운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것은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그 실현에 떨쳐나서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저절로 자각하는것이 아니다. 계급적원쑤들이 혁명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직 인민대중자신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자주적요구를 깊이있게 자각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적운동은 주체에 의하여 일어날뿐아니라 주체에 의하여 추진된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에 의하여 추진되는것은 사회적운동의 동력이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에게 있는것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사회적운동의 동력이 객관적요인에 있다면 사회적운동은 주체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요인에 의하여 추진되는것으로 된다.

사회적운동의 동력은 주체인 사람의 창조적능력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적능력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적능력을 포괄한다.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적능력은 생산력으로 표현되며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적능력은 정치적력량으로 표현된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회적운동을 떠미는 위력한 힘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사회적운동은 생산력에 의하여 추진되며 사회를 변혁하는 사회적운동은 정치적력량에 의하여 추진된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진된다.

물론 객관적조건은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갈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제약한다. 그러나 주체인 사람은 객관적필요성이 나섰다고 하여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것도 아니며 객관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활동을 벌리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조건은 결코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거나 추동하지 못한다.

사회적운동의 원인과 동력이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있다는것은 사회적운동이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사회적운동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려면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들이 더 잘 마련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은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의 준비정도이다. 아무리 객관적조건이 유리하여도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지 못하면 높은 형태의 사회적운동이 벌어질수 없다.

지난 시기에 노예와 농노들은 자주적요구가 높지 못하고 창조적능력이 미약한것으로 하여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벌리지 못하였다. 높은 수준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을 체현한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고 다같이 잘사는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높은 형태의 사회적운동인 사회주의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그러한 사회가 이 땅우에 건설되게 되였다. 결국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그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의 발전력사이다.

이 모든것은 객관적요인이 아니라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이 발생발전한다는것을 보여주며 바로 여기에 주체의 운동이 담고있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있다.

주체의 운동은 또한 그 결과가 주체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결정되는 운동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진행과정의 견지에서 그에 고유한 특성을 밝힌것이다.

사회적운동, 사회력사발전의 전 력사적행정을 규정하는 요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것은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선행철학은 사회력사의 발전에서 사람의 의식적인 창조적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력사적행정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을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요인에서 찾았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력사를 우리자신이 만듭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그것을 극히 규정된 전제와 조건하에서 만듭니다. 그가운데서 경제적인것이 결국 결정적인것입니다.》라고 한 엥겔스의 말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주체철학은 사회발전의 력사적행정, 사회적운동의 결과를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그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사회적운동의 결과를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그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이다.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리용한다.

사회적운동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기에는 사회적운동이 벌어지는 환경과 조건, 수단과 방법 등 사회적운동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요인들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적운동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운동은 언제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에서 즉 력사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의 호상작용속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객관적요인들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적운동의 진행과정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다름아닌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이다.

물론 력사발전에서 모든 세대는 선행세대가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 다시말하여 주어진 객관적조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리용한다. 인간은 객관적조건을 무시하고 력사를 창조할수 없다.

그러나 객관적조건자체가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활동의 력사적산물이다. 또한 그것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변될수 있으며 인간에 의하여 리용됨으로써만 사회적운동을 추동하는데 작용할수 있다. 주

어진 객관적조건이 유리하여도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면 사회가 빨리 발전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반대로 객관적조건이 불리하여도 사람이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하면 그것을 유리하게 개변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발전이 다그쳐지고 혁명투쟁이 원만히 벌어지게 된다.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리용할뿐아니라 사회적운동의 전 과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통제한다.

사회적운동의 진행과정에는 여러가지 정황이 생길수 있다. 사회적운동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수도 있고 뜻밖의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빚어질수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뜻밖에 부닥친 불리한 사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운동은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운동의 결과가 조성된 객관적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조성된 난국을 그대로 감수하거나 수수방관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에게는 부닥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사회적운동을 자기가 목적한대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인민대중은 우선 조성된 정황을 인식하고 분석판단하여 목적한 결과를 달성할수 있게 옳바른 대책을 세운다. 또한 완강한 의지와 높은 투쟁력을 발휘하여 일단 세운 대책과 방도대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굴함없이 벌려나간다. 그리하여 사회적운동의 전 과정이 자기가 목적한대로 진행되도록 조절통제해나간다.

사람, 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의 결과가 규정된다는것은 생산력의 발전과정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생산력발전에서 생산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진적인 생산관계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선진적인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직접 발전시키는것도 아니며 선진적인 생산관

계가 세워졌다고 하여 생산력이 저절로 빨리 발전하게 되는것도 아니다. 아무리 선진적인 생산관계가 세워졌다고 해도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창조적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산력이 빨리 발전할수 없다. 이것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선진적인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세워놓았지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홀시하고 자본주의적방법을 끌어들임으로써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이 확증해준다.

이와 같이 객관적요인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의 력사적행정, 결과가 규정되며 바로 여기에 주체의 운동이 담고있는 내용의 다른 하나가 있다.

주체의 운동은 다음으로 그 발전법칙의 작용이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규제되는 운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에서는 법칙이 사람의 활동과는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지만 사회에서는 법칙이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합니다.》(《**김정일**선집》 14권, 194페지)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법칙의 작용은 자연에서와 다르게 이루어진다. 자연에서는 법칙이 사람의 활동과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에서는 법칙이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한다.

유물사관은 사회도 자연과 같이 물질세계에 속하는것만큼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밝혔으며 자연의 법칙과 구별되는 사회법칙의 특수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선행리론가들은 사회적운동에서 인간의 활동을 배제하는 지리적환경론이나 사회적환경론의 부당성을 까밝히면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물사관이 사회법칙의 작용에서 인민대중의 활동이 그 전제로 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는것은 결코 사회법칙의 작용이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

여 규제된다고 보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물사관이 사회법칙의 작용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였다는것은 사람을 사회법칙의 요구를 관철하는 담당자로 보았다는것이다. 유물사관은 사회법칙의 작용에서 사람이 노는 주동적인 역할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법칙이 작용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창조적능력에 의거하여 법칙적요구를 관철해나간다는것이다.

사회법칙도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성격을 띠게 된다. 즉 사회에서도 일정한 사회경제적조건이 지어지면 그에 따르는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다.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법칙의 작용조건이 이루어지며 법칙적요구가 목적의식적으로 관철되고 인식리용된다.

우선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에서 법칙적련관을 이루는 요인들이 발생하며 그것들사이의 법칙적련관이 실현된다.

자연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사이의 법칙적련관은 그것들의 자연발생적인 작용과정에 스스로 맺어진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사람,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활동에 의하여 법칙의 작용조건이 이루어지고 법칙적련관이 맺어지게 된다.

또한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이 규제된다.

사회법칙은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는것만큼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얼마나 주동적으로 작용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법칙이 순조롭게 작용할수도 있고 그 작용이 제한되거나 억제될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회법칙의 객관적요구를 인식하고 그것이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것을 판단한 다음 유리한 법칙에 대해서는 그 작용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조건

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감으로써 법칙이 순조롭게 작용하도록 한다. 반면에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 불리한 법칙에 대해서는 그 작용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조건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법칙작용을 억제하고 제한한다.

이처럼 객관적요인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에서 법칙의 작용이 규제되며 바로 여기에 주체의 운동이 담고있는 내용의 다른 하나가 있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라고 하여 그것이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만 하는것은 아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라는것은 결코 사회적운동에 자연발생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운동의 본질적이고 주되는 측면이 사람,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이 낮은것으로 하여 있게 되는 비본질적이며 상대적인 측면이 바로 자연발생성이다.

사람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과정은 그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는 사회제도가 세워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회적운동에서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운동은 자연발생성을 띠고 진행되게 된다.

사회적운동에 자연발생성이 작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과 발양정도 즉 그들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벌리는 정도에 맞게 규제되게 된다. 인류력사를 거슬러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고 그들의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 사회제도가 수립되였던것만큼 사회적운동에 자연발생성이 작용하는 범위가 더 넓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는 사회제도가 세워지면 사람은 더욱더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에 맞게 활동하게 되며 자연발생성의 범위는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운동은 언제나 주체의 운동과정이지만 력사발전의 각이한 단계마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과 발양정도가 다른것으로 하여 각이한 수준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주체철학에 의하여 주체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해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에 맞게 더욱더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과학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인민대중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김정일**선집》 13권, 472페지)

인민대중은 무엇보다도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적집단이다.

원래 사람들은 다같이 로동에 종사하여왔으며 생산된 생산물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소비하여왔다. 그러던것이 잉여생산물을 만들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적소유와 개인리기주의사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일하지 않고서도 생산물을 독차지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생산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생산물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로동력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사회의 기생충으로, 착취자로 등장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아무런 사회적부도 창조하지 않고 그것을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기생충, 남의 로동력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근로하

는 사람들의 집단과 구별하여보게 되였다.

인민대중은 다음으로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집단이지만 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인민대중을 이루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이 다른 사회적집단과 구별되는 표징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것은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이다.

우선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자주적요구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있는데로부터 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며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맺고 실천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력사적요구이다.

이것은 자주적요구가 어느 개별적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간의 공통된 요구라는것을 말해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하나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 인민대중인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주적요구의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사회력사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본질에 있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요구이며 이 공통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데서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되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인민대중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창조적활동은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사람의 활동이다. 사람은 낡은것을 새것으로 변혁하는 창조적활동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력사를 전진시켜나간다.

자주적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활동은 필연적으로 창조적성격을 띠게 된다. 세계와 자기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요구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사회제도하에서 물질문화적생활자료를 원만히 보장받게 될 때 실현될수 있다. 사회제도, 사회관계는 사람들사이의 관계이고 사람들에 의하여 맺어지는 관계이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며 또 저절로 개변되는것도 아니다. 물질문화적생활자료의 원천인 자연도 기성상태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무할수 있도록 이루어져있지 않으며 또 스스로 개변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사람들의 활동은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개조변혁하고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는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활동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한편 사람은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은 창조적능력을 발양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창조적활동이 그 어느 개별적사람들의 활동의 특성이 아니라 창조성을 지닌 사회적인간의 공통된 활동이라는것을 말해주며 그것으로 하여 하나로 결합된 집단이 다름아닌 인민대중인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벌리는 창조적활동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수준도 각이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에 있어서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이 공통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되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며 그것으로 하여 다른 사회적집단과 구별되게 된다.

인민대중이라는 범주는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적성격을 띤다.

착취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가지고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사회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여지며 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룬다.

인민대중의 계급적구성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사회력사발전행정에서 변화된다. 그것은 사회력사발전행정에서 생산수단과 국

가주권에 대한 소유관계가 변화되며 그에 따라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세력들도 달라지기때문이다.

노예소유자사회에서는 노예와 평민이, 봉건사회에서는 농노, 농민과 수공업자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을 비롯하여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이 인민대중을 이룬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환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소수 적대분자들의 준동이 계속되며 혁명대오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인민대중과 그에 적대되는 요소들을 똑똑히 가려보아야 한다.

인민대중이라는 범주는 사회계급적관계를 반영하지만 그것은 순수 계급적개념이 아니다.

원래 인민대중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데서 사회계급적처지를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것은 사회계급적처지의 영향만 받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사람이 자주적인 요구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반동적인 요구를 가지고 활동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그가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이 선진사상을 체득하고 그것으로 무장한다면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떠하든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창조적활동을 벌릴수 있으며 사회를 발전시키고 력사를 전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어떤 사회계급적처지에 놓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기초는 우선 사회주의사상이다.

사회주의사상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

하고있는 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은 다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기초는 또한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이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은 말그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이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개척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기들이 나서자란 조국과 자기 겨레,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를 부흥발전시키고 자기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

철학사상사에는 인민대중이 사회와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었다.

고대철학가들은 인민대중을 신분적으로 천하고 생산로동에만 참가하는 사람들로 보았다. 그들은 로동을 《정신로동》(이른바 사회를 《조정》한다는)과 《생산로동》(육체로동)으로 구분하고 《정신로동》에는 소수 지배계급만이 종사할수 있고 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무능》하므로 《생산로동》에만 종사할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력사발전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근대에 와서도 인민대중을 뛰여난 인물과 구별하여 《영웅》의 력사창조에 리용되는 단순한 《도구》, 《소극적인 객체》, 《천재》의 의지를 집행하는 《비창조적군중》으로 보았다. 현대부르죠아철학자들은 이른바 사회의 《엘리뜨》들과 구분하여 인민대중을 혼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 《무정형적인 무리》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인민대중을 사회의 물질적부의 직

접적생산자, 력사의 창조자, 미래리상사회의 대표자로 보았다.

이것은 사회경제적처지를 위주로 하여 확립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철학적리해로서 그에 대한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사회와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맑스주의는 인민대중의 징표를 사회계급적처지를 기본으로 하여 본데로부터 인민대중을 생산의 담당자, 물질적부의 창조자, 사회발전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는것으로 국한시켜보았다.

맑스주의가 인민대중을 단순히 사회발전의 담당자로 보게 된 원인은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에 기초하지 못한데 있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유일한 사회적존재이며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성을 체현한 참다운 사회적집단은 오직 인민대중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와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은 주체철학이 밝힌 사회와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와 력사발전의 중심에 서서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와 력사를 주동적으로 전진시키며 그 결과를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결코 단순한 력사발전의 담당자가 아니다. 인민대중은 자기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과 그 변화발전의 법칙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하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맞게 진행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창조적능력의 소유자이다. 개별적사람들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고 력사가 전진하며 혁명이 추동된다. 인민대중은 물질적부의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만이 아니라 사회적관계를 개변하고 사회적사상과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직접적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정복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물질적부를 창조한다. 자본가계급은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력발전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은 자기 손으로 물질적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인민대중은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한다. 인민대중은 직접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선진적인 사상가, 우수한 과학자,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다. 착취계급도 저들의 사상문화의 대변자들을 내세우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상문화는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발전을 저애한다.

인민대중은 직접 사회를 개조하지만 반동적착취계급은 사회의 혁명적개조가 아니라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공고화하는데만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회의 진보적인 개조는 오직 각성되고 단합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는것만큼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마땅히 그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의 대상으로, 치부의 수단으로 되여왔으며 력사의 주체로서의 응당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되고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철학적해명이 새롭고 완

벽하게 주어짐으로써 력사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는 과학리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주적운동

자주적운동은 사회적운동이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운동이라는것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여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습니다.》(《**김정일**선집》 10권, 93페지)

자연의 운동이나 사회적운동이나 할것없이 모든 운동에는 그것이 진행되는 방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운동의 본질적특성은 그 운동이 어떤 목적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하는데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자연의 운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지만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가 내세우는 목적에 의하여 규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의 실현을 근본목적으로 하고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에만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다. 자연의 운동에는 그 어떤 의식된 목적도 없다. 목적은 선천적인 예감이나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복잡하고 엄밀한 사고의 결과로서 의식적인것이다. 자연에는 그 어디에도 의식을 가진 존재가 없다. 자연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맹수들의 먹이사냥과 계절조들의 주기적인 이동과 같은 현상들은 목적을 가지고 벌리는 활동인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다. 물론 자연의 운동에는 일정한 원인에 결과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때 원인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맹목적이며 무의식적인 호상작용이며 따라서 그

결과도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맹목적인것이다.

사회적운동에서도 일정한 원인에 결과가 따르지만 자연의 운동에서처럼 맹목적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사회적운동은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운동이며 사람, 인민대중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반드시 일정한 목적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에는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이 내세운 일정한 목적이 있게 되며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이 내세운 목적이 실현되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

물론 사회적운동은 그 형태가 다양하게 벌어지며 또 각이한 력사발전단계에서 인민대중이 내세우는 사회적운동의 목적도 서로 같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류력사의 전기간에 걸쳐 각이한 형태로 벌어지는 사회적운동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 근본목적과 방향이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비록 력사적조건과 환경에 따라 각이한 목적을 세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운동을 벌리지만 그에 관통하는 근본목적이 있다. 각이한 사회적운동에 관통하고있는 근본목적을 밝히는 문제는 곧 사회적운동에서 인민대중이 내세우는 목적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과 방향을 밝히는 문제는 사회적운동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 즉 이 운동에 내재하고있는 목적과 방향의 견지에서 그 합법칙성을 밝히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며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것이 사회적운동, 인류력사의 방향이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운동이 담고있는 의미가 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자주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운동은 사람의 운동이며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은 그의 본질적속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성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그 무엇에도 예속되거나 구속됨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자주적으로 산다는것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는것을 말한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여있으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은 자주성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참답게 체현한 사회적집단은 자주적요구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는것을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는 집단이며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실현되여나간다.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자주적인 존재인 인민대중의 절대적요구이며 빼앗길수 없는 권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구속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인민대중의 투쟁은 다름아닌 그들이 지닌 자주성의 발현과정이며 여기에 사회적운동이 자주성의 실현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진행되게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적운동의 기본형태들이 결국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귀착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고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며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

쟁이며 이것은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주성실현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된다는것은 인류사회의 발전력사가 실증해준다.

인류력사발전과정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자주성이 한걸음한걸음 실현되여온 과정이다. 물론 인류력사발전의 실제적행정에는 자주적요구실현에로의 전진과 그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만이 있은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슴아픈 실패와 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과정과 그를 위한 투쟁이 진통과 곡절을 겪게 되여 지체되거나 뒤로 후퇴하기도 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총체적으로는 인류사회발전의 전 력사적과정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끊임없이 실현되여왔다.

인류사회가 발생한 첫 시기인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은 매우 낮았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의 파괴력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산력을 발전시켜왔으며 그리하여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조금씩 마련되여나갔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렬된이래 인류사회가 지나온 전 력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력사이다. 사회개조, 사회혁명에 의하여 첫 착취사회인 노예사회가 봉건사회로, 봉건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교체되고 나아가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사회가 수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여왔다.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생산력과 과학, 문학, 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도 비록 완만하게나마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는 새로운것이 끊임없이 창조되여왔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욱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이며 바로 여기에 자주성의 실현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되는 근거의 다른 하나가 있다.

자주적운동은 일정한 합법칙적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간다.

자주적운동이 강화발전되여나간다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심화되여나간다는것이다.

자주적운동,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우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3대개조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면서 심화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것을 대신할수 없는 독자적인 분야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적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협력관계를 개선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사회개조활동을 벌린다. 자연을 개조하는것도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벌리면서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며 자기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준비정도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은 서로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것을 대신할수 없는 독자적인 령역들이다.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가 창조된다고 하여 저절로 사회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며 사회관계가 개변되였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과 능력이 저절로 개조될수 없다. 물론 자연개조사업의 발전은 사회개조와 인간개조사업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주고 사회개조사업의 발전은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사업에 유리한 사회적조건을 지어주며 인간개조의 발전은 자연개조와 사회개조사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제로 되지만 어느 한 사업이 다른것을 대신하거나 어느 한 사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다른것이 저절로 발전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을 사회적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대신할수 없으며 사회개조사업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대신할수 없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면서 심화발전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또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3대개조사업이 력사발전단계에 따라 일정한 순차성을 띠고 진행되는 과정에 심화발전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3대개조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단순히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만 담고있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3대개조사업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지만 력사발전단계에 따라 일정한 순차성을 가지고 합법칙적으로 심화발전해나간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수 없으며 반동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하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열쇠로 되기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사회개조사업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렬된이래 인류사회가 지나온 전 력사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력사였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계급사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에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고 력사가 발전하여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을 전면에 제기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더욱더 심화발전되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앞에는 사회적예속을 없애고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의 과업이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사업에 비하여 전면에 나서지만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해결되여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

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이 보다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섰다는것은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되여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사회의 골격이 형성되였다는것으로서 인류사회발전의 견지에서는 거대한 력사적변혁으로 되지만 사회주의건설의 로정에서 볼 때에는 첫시작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계급적차이와 로동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여야 완전히 실현될수 있는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사업이 전면에 제기된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면에 제기될뿐아니라 훌륭하게 실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가지고 자연과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의 모든 수단과 조건을 통일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사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성격을 띠고 더욱 심화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국제적범위에서 진행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단결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국제적성격을 띠고 진행되게 되는것은 우선 오늘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제국주의세력이 서로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반동적목적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를 이루고있는 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의 희생자, 수난자였던 어제날의 처지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려는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여있기때문이다. 오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고있으며 온갖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청산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종국적목적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온갖 형태의 사회적예속을 영원히 청산하는 투쟁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가장 주되는 사회적질곡이다. 사회주의운동이전에도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과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반대하는 투쟁들이 벌어졌지만 완전히 없애지 못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자체를 완전히 청산하는것을 사명으로 내세운 계급도 없었다. 사회주의운동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쓸어버리고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인민의것으로 만들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착취계급의 국가를 없앰으로써 온갖 착취와 압박, 지배와 예속자체를 끝장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한다.

사회주의운동은 또한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착취와 압박, 지배와 예속이 없어진 다음에도 사회

에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과 뒤떨어진 기술, 문화적락후성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뿐아니라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와 같이 로동에서의 차이가 있는것이 그 뚜렷한 실례이다.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활동이 구속당하게 된다.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바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을 완전히 없애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인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된다.

사회주의운동은 또한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가장 철저한 자주적운동이다. 사회주의위업은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주적운동이며 자주성을 위한 모든 단계의 거창한 과업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위력한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고도의 자주적운동이다.

주체철학이전에도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여 이 운동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해석하였다. 고대에는 플라톤과 같이 《리상국가》수립에로 나아가는것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였으며 중세에는 사회발전의 목적과 방향문제를 사람의 《본성》과 결부시켜 론하면서 《성선설》에 기초한 《덕치주의》 또는 《성악설》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실시되는 사회에로 발전하는것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과 방향이라고 리해하였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비리성적》인 봉건제도에 《리성적》인 자본주의제도를 대치시키면서 《정의의 원리》, 《리성의 원리》에 맞는 사회, 인간의 《자연적소질》이나 《인간자유》의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력사발전의 종국적목적이며 방향이라는 견해가 지배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해당 사회의 착취계급의 국가를 비호하고 변호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들이였다. 맑스주의는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를 관철하면서 경제적리해관계를 실현하여《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에로》,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 발전해나가는것이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과 방향으로 된다는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과 방향에 대한 온갖 관념론적이며 비과학적인 주장들에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선행고전가들은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을 옳게 해명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적운동이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운동으로 된다는것을 밝힐수 없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이 자주적운동이라는것이 완벽하게 해명됨으로써 사회적운동의 본질문제가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창조적운동

창조적운동은 사회적운동이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이라는것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며 이것은 해당 운동에 작용하는 합법칙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자연의 운동이나 사회적운동은 다같이 낡은것이 새것에 의하여 교체되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낡은것과 새것의 교체가 자연의 운동에서나 사회적운동

에서나 다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낡은것과 새것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사회적운동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구속하고 억제하는 낡은것이 자주적요구에 맞는 새것으로 교체되여나간다.

사회적운동에서는 우선 새것에 의한 낡은것의 교체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거나 억제하는것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연의 운동에서 새것이란 그 이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구성요소와 결합구조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뒤떨어져 발생한 사물현상이다. 자연의 운동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요소와 결합구조를 가진 사물현상이 덜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요소와 결합구조를 가진 사물현상보다 시간적으로 뒤떨어져 발생하는 합법칙적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게 된다.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에로, 무생명체로부터 생명체에로의 변화발전과정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사회적운동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사물현상의 구성요소와 결합방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이나 시간적인 선후차에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적운동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다시말하여 자주성실현에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구속하고 억누르는가 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새것이며 자주성을 구속하고 억제하는것은 낡은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구속하고 억누르는 낡은것을 없애고 자주적요구에 맞는 새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만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게 되며 이것이 다름아닌 창조적운동이다. 아무리 시간적으로 뒤늦게 발생하고 전에 없던것을 만들어내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구속하고 억제하는것은 새것이라고 할수 없다.

사회적운동에서는 또한 새것에 의한 낡은것의 교체가 인민대

중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의 운동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맹목적인 호상작용에 의하여 저절로 낡은것이 소멸되고 새것이 생겨난다. 자연의 운동에서 낡은것의 사멸과 새것의 발생은 객관적조건과 그에 작용하는 법칙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연의 운동과 달리 사회적운동에서는 새것에 의한 낡은것의 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운동에서 낡은것의 청산과 새것의 창조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민대중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사회적운동에서 새것과 낡은것의 교체과정도 일정한 객관적법칙에 따라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에서 새것은 객관적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야만 발생하는것이 아니며 또 객관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생겨나는것도 아니다. 사회적운동에서는 인민대중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법칙이 순조롭게 작용할수도 있고 그 작용이 억제되거나 제한될수도 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은 법칙적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주성실현에 능동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활동은 단순히 객관적법칙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만 진행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경제적필연성에 의존하고 제약되여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비록 객관적조건이 덜 성숙되여도 인민대중이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 필요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자주성을 억누르는 낡은것을 청산하고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새것을 창조할수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가 아니라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나라들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력사적사실이 이것을 확증하여준다. 새로운 로동도구의 제작과 최신과학기술의 창안, 선진적인 문학예술의 창작도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능력과 역할로 자연과 사회에서 자주적요구에 맞지 않는 낡은것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새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운동이 바

로 창조적운동인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우선 인민대중이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창조적존재이기때문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이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사회적운동은 사람의 운동이며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본질적속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사회적운동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사람의 활동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있는 창조성의 발현인것이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특성의 하나를 이루는 창조성을 참답게 체현한 사회적집단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된 인민대중이다.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것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새것을 창조해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로부터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데 절박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것을 적극 요구하게 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것처럼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창조할데 대한 요구만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창조적활동이 이루어질수 없다. 인민대중에게는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과 그 운동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있다. 개별적사람들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인민대중에게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고도 풍부한 지식과 기술실천적경험과 기능, 숙련 등이 있으며

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조직되고 단합된 혁명적능력이 있다. 사회생산력은 자연을 정복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며 혁명적인 정치력량은 사회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은 사람의 창조성을 참답게 체현하고있는 사회적집단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적운동이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또한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해나가는것이 사람, 인민대중의 고유한 활동방식이기때문이다.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대상은 자연과 사회이다. 그런데 자연과 사회는 사람의 자주적요구실현의 조건으로 되는 동시에 사람의 자주적요구실현을 구속하는 요인으로도 된다. 자연은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수단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필수적인 생활환경이다. 사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으로 된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는 인간의 자주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조건들을 기성의 형태로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도리여 사람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불리한 환경조건으로,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될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가 인간의 자주적요구실현의 대상으로서 가지고있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주적요구실현을 저애하는 낡은것을 없애고 자주적요구실현에 이바지하는 새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활동을 벌려야 한다.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은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변화발전한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의 법칙들은 그 작용조건들에 기초하여 인식할수 있으며 사물현상자체도 그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법칙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개조하고 리용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세계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반영한 지식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민대중은 창조적능력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창조적활동을 벌림으로써 자주적요구실현에 이바지하는 수단과 환경을 마련해나간다.

이처럼 창조적활동은 사람, 인민대중의 고유한 활동방식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자신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적운동으로, 창조적성격을 띠고 진행되는 운동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인류력사에 의해 뚜렷이 확증되였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새것이 창조되는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우선 인류력사의 전기간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활동에 의하여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마련되여온데서 찾아볼수 있다.

로동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으로서 창조적운동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로동도구가 개선되고 자연환경이 더욱더 인간에게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전변되여왔으며 사회의 물질적재부가 창조되고 확대발전되여왔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새것이 창조되는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또한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으로 사회적진보를 이룩하여온 과정이라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는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낡은 사회제도가 새로운 사회제도로 교체되여온 과정이였다.

이 모든것은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창조적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강화발전되여나간다.

창조적운동이란 다름아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인것만큼 창조적운동이 강화발전되여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여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창조적운동은 우선 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낡은것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는데 따라 더욱더 심화발전되여나간다.

창조의 과정은 곧 투쟁과정이며 투쟁을 떠나서 새것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창조적운동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드는 활동과정이다. 그런데 낡은것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새것은 저절로 쉽게 생기지 않는다. 자연에서는 불리한 자연지리적환경과 자연계의 맹목적인 힘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에서는 자기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잃어버린 옛 지위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반동적착취계급, 지배계급이 저항해나선다. 인민대중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이러한것들을 극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특히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계급적해방을 이룩하여나가는 과정은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다. 혁명은 원래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력사적으로 반동적착취계급이 자기의 지배권을 스스로 내놓은 례는 없었고 또 있을수도 없다. 낡은 제도, 낡은 생활을 보존하려는 세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투쟁속에서 진행되고 투쟁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것만큼 투쟁이 깊이있게 적극적으로 벌어질수록 창조적운동은 더욱 심화발전되여나간다.

창조적운동은 또한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며 창조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더욱더 강화발전된다. 새것을 지향하는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낡은것, 개조대상을 변혁해나가는 창조적운동과정에 필연적으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높여나간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투쟁과정에 풍부한 기능과 숙련, 경험을 쌓고 그것을 일반화한 지식을 체득하게 되며 자기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의 수준을 판단하고 그것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투쟁과정에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자연적 및 사회력사적인 환경조건들도 마련되여나간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될수록 그들의 창조적능력은 보다 강화되게 된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그들의 창조적투쟁과정속에서 장성되여왔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생산력의 발전력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힘이 장성하여온 력사이다.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육체적힘과 유치한 도구에 의거하여 생활수단을 획득하였다.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점차 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와 철기시대에로, 육체로동에 의거한 기계제산업시대로부터 정신로동, 지능로동, 기술로동에 의거하는 정보산업시대에로 발전하여왔다.

사회혁명의 력사도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이 강화되여온 력사이다. 인민대중은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 혁명투쟁과정에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를 깊이 자각하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여 정치조직에 굳게 결속되게 된다. 또한 혁명투쟁속에서 혁명의 원리와 수행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투쟁경험을 쌓으며 투쟁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게 된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창조적운동은 더욱더 강화발전해나간다.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이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되며 그리하여 창조적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능력의 준비정도에 맞게 자주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창조적활동을 벌려나가는것만큼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종전보다 더 높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할수록 또한 새것에 의한 낡은것의 교체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새것에 의한 낡은것의 교체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것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인민대중은 창조적능력이 장성할수록 새것을 창조하는데서 더 큰 역할을 놀게 되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높아질수록 낡은것이 청산되고 새것으로 교체되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여나가게 된다.

인류력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다.

사회주의운동이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기때문이다. 창조적운동의 수준과 높이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어느 정도로 실현하는 운동인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운동이전의 모든 운동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는 근원자체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참답게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다. 사회주의사회가 완성되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우선 사상정신생활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인간으로 되며 사회관계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집단주의적사회관계로 된다. 또한 물질경제생활에서도 사람들이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없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할수 있는 물질경제적조건을 완전히 보장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으로 된다.

사회주의운동이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사회주의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되기때문이다. 창조적운동의 수준과 높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어느 정도로 실현하는가 하는데 의해서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얼마나 발양되는가 하는데 의해서도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높이 발양되는 운동일수록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사회주의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된다. 사회주의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가장 높이 발양시키는 결정

적요인은 당과 수령의 령도이다. 사회주의운동이전에는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것으로 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제대로 발양할수 없었다. 사회주의운동에서는 수령과 수령이 이끄는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구속하는 온갖 질곡들을 청산하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성을 적극 발휘하게 하며 창조적능력을 목적의식적으로 키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진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닌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속에서 자기의 창조력을 가장 높이 발양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높이 발양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운동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운동으로 된다.

주체철학이전에도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해석되였다.

주관관념론자들은 사회적운동을 그 어떤 신이나 군주, 탁월한 개인의 의지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본데로부터 사회력사적운동의 우연적성격을 강조하였으며 반대로 객관관념론자들은 사회적운동을 그 어떤 《세계정신》이 자기 발전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으로 본데로부터 사람들의 의지와는 독립된 신비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신비주의적, 숙명론적성격을 강조하였다.

유물사관은 사회적운동이 객관적법칙 즉 물질경제적조건의 발전법칙에 따라 낡은 생산방식이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교체되여나가며 그것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로동활동과 계급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밝혔지만 인민대중의 창조적본성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데로부터 사회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적성격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사회적운동의 창조적성격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성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이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이 완벽하게 해명됨으로써 사회적운동의 성격문제가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의식적운동

의식적운동은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는 운동이라는것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입니다.》

자연의 운동에는 의식을 가진 그 어떤 존재도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의식성을 자기의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 인민대중이 있다. 그런것만큼 자연의 운동은 그 어떤 목적의식성도 띨수 없지만 사회적운동은 목적의식성을 띠게 된다.

사회적운동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는것은 우선 사람, 인민대중이 객관적인 환경조건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주적요구를 자각하고 그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심한 다음에 활동을 벌리는데서 표현된다.

자연적, 생물학적존재에 있어서는 일정한 조건만 지어지면 필연적으로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조건이 성숙되였다고 해서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객관적조건은 활동을 일으킬 필요성과 가능성을 지어주며 그 실현에 영향을 줄뿐이다.

사람은 인식과정을 통하여 지배와 개조의 대상을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결심을 가져야 비로소 행동에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는것은 또한 사람,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로부터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리용하고 의도적으로 활동하는데서 표현된다.

사람은 자기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거나 새로 마련하여 그것을 활동에 리용한다. 또한 자기

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 부닥치는 정황을 분석판단하고 그 해결대책을 세우며 인내성과 완강성, 강의성과 같은 의지적인 힘을 발휘하여 세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굴함없이 활동한다.

이러한것들은 의식의 조절통제밑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활동, 사회적운동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이다.

사회적운동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추진되는 운동이다.

사회적운동의 기본추동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요인을 말한다.

사회적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사회적운동은 사상의식을 기본추동력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식적운동으로 된다.

의식, 사상의식을 기본추동력으로 하고있다는데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특성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의식적운동이라는 개념이 담고있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물론 사상의식이라고 하여 다 사회적운동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이 아니다. 사상의식이 사회적운동을 추동하는데서 노는 역할은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만이 사회적운동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이 자주적요구와 계급적리해관계를 자각하고 혁명투쟁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심한다는것은 다름아닌 사상의식을 가진다는것이며 부닥치는 정황과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발휘하는 의지적인 힘은 사상의식의 위력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이 의식적운동이라는것을 밝히는 문제는 사회적운동의 추동력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을 밝히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회적운동의 기본추동력이라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그 발생발전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인들가운데서 가장 주되는 요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이 적극적으로 추동되며 그것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의 역할이 규제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회적운동의 기본추동력으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의식성을 가진 의식적인 존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운동은 사람, 인민대중의 활동과정이다. 사람,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담당자, 주체인것만큼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일어날수 없으며 사회적운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요인에 관한 문제는 그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에 관한 문제로 된다.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 본질적속성은 다름아닌 의식성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는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이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된다.

의식성은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되는 속성이며 뇌수의 고급한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지휘한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의식은 사상의식과 지식, 감정의 구체적인 형태들로 나뉘여지며 여기에서 기본은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형태이다. 사람들은 사물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다. 사람들은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가, 불리한가 그것을 어떻게 개조변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사람의 이러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담고있는 의식이 바로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형태인것으로 하여 사람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 그에 맞게 진행한다. 사상의식에 의하여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 적극 추동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정신적 및 육체적힘의 위력이 규정되게 된다.

물론 사람의 활동에서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는 지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과학지식을 가져야 객관적법칙에 맞게 자기자신의 힘과 객관적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세계를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지식은 사회생산력발전에서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지식은 옳바른 사상의식과 결합될 때에만 사람의 참다운 창조력을 이루며 사회적운동을 전진시키는 추동력으로 된다.

비록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졌다 해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인간은 사회적인간으로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로 되고만다.

주위세계를 정서적으로 반영한 감정도 사람의 활동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감정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한 정서적태도와 심리적의욕을 지니게 함으로써 활동의 적극성을 담보한다.

사람의 내면세계에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되는 감정도 사상의식에 의존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정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표현하는 사상의식에 기초하여 생겨나며 사상적립장에 따라 감정이 다른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놓고 서로 다른 감정을 지니게 되는것은 그 기초로 되는 사상의식에서의 차이와 관련된다. 또한 감정은 사상의식과 결합

될 때에만 목적지향성있고 더욱 예리하고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생활과 투쟁에서 큰 힘으로 될수 있다.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며 그리하여 사회적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회적운동의 기본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은 특히 그것이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혁명운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으로서 사회적운동의 가장 적극적이고 높은 형태이다.

인류사회가 적대계급들로 갈라진이래 사회를 발전시키고 력사를 전진시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사회적운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으로 벌어지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혁명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요인만이 사회적운동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으로 될수 있다.

사상의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성격을 규제한다.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이다.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은 계급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물론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를 두며 그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

나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느 계급의 사상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선진계급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옳은 계급적립장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혁명운동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문제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혁명투쟁은 일정한 물질적수단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는 인민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는 객관적, 물질적요인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객관적, 물질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성숙되면 혁명투쟁을 벌리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그러나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 전진하는것은 아니다. 물질적조건을 어떻게 마련하고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의식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투쟁이란 원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유리한 환경속에서만 진행되는것도 아니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모든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이 의식적운동으로 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있다.

이 모든것은 사상적요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회적운동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며 그것이 사회적운동의 전진과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이처럼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회적운동의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의식적운동인것이다.

의식적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강화발전해나간다.

의식적운동이 강화발전되여나간다는것은 사회적운동의 의식적특성이 강화발전된다는것,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의식적활동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전된다는것이며 사회적운동의 기본추동력인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이 더욱더 커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의식적활동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는것과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것은 사회적운동의 의식적특성을 특징짓는데서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는 두 측면이다.

의식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의식성의 발현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사회력사적조건이 보다 원만히 마련되는데 따라 더욱더 강화발전되게 된다.

의식적운동은 우선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강화발전된다. 인민대중자신의 사상의식수준은 인민대중의 의식적활동의 높이를 규제하는 주체적요인이다.

사람이 의식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의식 특히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다는데서 표현되며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의 발현인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이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정도,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은 그들이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게되는 사회적사상의 진보성과 그것이 얼마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렸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높아지는 자주적요구와 그 실현방도를 반영한 보다 진보적인 사회적사상이 출현하고 그것으로 보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튼튼히 무장할수록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

의식적운동은 또한 의식성의 발현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사

회력사적조건이 보다 원만히 마련되여나가는데 따라 강화발전되게 된다. 사회제도와 정치조직, 사회생산력과 같은 사회력사적조건은 사상의식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요인이다.

사상의식의 역할은 의식성의 발현이며 의식성은 사회적속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체득되고 발전할뿐아니라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성질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일정한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체득되고 발현되는 성질인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의 의식적특성은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사회력사적조건이 얼마나 원만히 조성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제약되게 된다.

사상의식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제도이다. 사람들은 사회적관계를 떠나 존재할수 없으며 반드시 일정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제도에서 살며 활동하는것만큼 사람들의 의식적활동은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기마련이다.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생활과 생활양식을 규제하는것을 통하여 사상의식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사상의식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사회력사적조건의 중요한 요인의 다른 하나는 정치조직이다. 인민대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사상의식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인민대중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사업은 바로 국가정권, 정당, 단체와 같은 정치조직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국가정권, 정당, 단체와 같은 정치조직들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그들의 참다운 조직으로 더 잘 꾸려지며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질수록 사상의식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사회생산력의 발전도 사상의식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사회력사적조건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이 선진사상을 체득하고 그 위력을 발양시키려면 일정한 물질적조건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반영하여 형성되며 사상의식의 역할은 일정한 물질적수단과 결합될 때 위력한것으로 된다.

사회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물질적수단을 창조하는 사업은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사회생산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사상의식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운동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력사적조건이 개선되여나감에 따라 커지게 된다.

그런데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그 발현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사회력사적조건은 혁명운동의 발전에 따라 더욱더 높아지고 개변되여나간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은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의 반영인것만큼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혁명적실천이 심화되고 높은 수준에서 벌어질수록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며 혁명운동이 발전하는데 따라 보다 선진적인 사회제도가 수립되고 정치조직이 출현하게 되며 사회생활이 발전하게 된다.

원시사회로부터 착취사회를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는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혁명운동발전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져왔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의식적운동은 사회주의운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사회주의운동은 그자체의 본질로부터 인민대중의 높은 의식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는 사회이며 그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운동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전시기의 사회적운동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사상의식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적운동이 가장 높은 단계의 의식적운동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운동을 향도하는 지도사상인 사회주의사상자체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사회적운동에 작용하는 사상의식의 역할은 그 성격과 내용에 의존한다. 사회주의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이며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사상이다.

사회주의사상은 그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사상적무기로 확고히 접수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력사의 전진운동을 저애하면서 썩어빠진 낡은 제도를 고집하는 반동사상과는 달리 사회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게 된다.

력사의 전진을 추동하며 이끌어나가는 사회주의사상의 거대한 역할은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개조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 주체사상의 견인력과 변혁적역할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추동력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의식적운동이라는것은 주체사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 독창적인 사상이다.

지난 시기 종교관념론적사회력사관은《신》이나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와 동떨어진 정신적《힘》,《리념》또는 개인의《자의식》등을 사회적운동의 추동력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사회력사적과정을 초자연적인《신》또는《뛰여난 개인》의《의지》라든가 그 어떤《리념》의 실현과정으로 보는 견해로서 그 우연적, 신비주의적성격을 강조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이다.

유물사관은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의 변화발전과 계급투쟁이 력사적사건의 추동력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적운동의 추동력에 대한 종교관념론적인 견해를 타파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유

물사관이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의 변화발전과 계급투쟁을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으로 본것은 사회력사가 생산방식발전의 력사이며 력사적과정은 자연사적과정이라는 견해와 관련된것이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것 같지만 사람의 의식자체는 사람밖의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생산방식과 같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며 계급투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하여 일어난다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추동력을 그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과의 관계에서 밝히지 못한 심중한 제한성을 가진것이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적운동의 추동력은 사회적운동의 담당자,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인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중심에 놓고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이처럼 주체철학은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추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의식적운동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력사발전과 혁명운동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인간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사업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집》 41권, 230페지)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이 일어나고 추동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떠나서 력사와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력사발전을 다그치자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 힘으로 력사를 창조해나갈수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 력사와 사회발전을 떠밀고나가는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워 력사의 주체를 강화해나가는 사업이 바로 인간개조사업인것이다.

인간개조사업은 뗄수없이 련관된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그 하나는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우선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를 위한 사회정치적, 물질적 및 사상문화적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정치적 및 물질적조건이 사회개조와 자연개조사업을 통하여 마련된다면 그 사상문화적조건은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마련된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이란 사상문화적재부와 그것을 보급하고 향유하기 위한 수단들을 말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사상문화적재부이다.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여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람들은 인류사회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력사적기간 선진적인 사상과 문학예술, 과학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 과정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배치되는 낡은 사상과 문화는 청산되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상문화적조건이 점차

마련되면서 사회가 발전하여왔다.

이처럼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인간개조사업이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하나가 있다.

인간개조사업이 담고있는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창조적사업이라는것이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이 높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 문화적소양과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이 온갖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주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쟁목적과 방향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며 자기의 투쟁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은 높은 수준의 자주의식을 지녀야 력사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지식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이루는 기본요인이다. 과학기술지식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줌으로써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담보해준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할 때 객관적조건에 그저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대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다.

문화적소양과 도덕품성은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사람들은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훌륭하고 고상한 높은 문화적소양과 도덕품성을 지녀야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원만히 벌려나갈수 있다.

이처럼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 문화적소양과 도덕품성을 체득시키는것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인간개조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건장한 체력을 소유하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적 및 물질적활동을 원만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육체적담보이다.

사람이 건장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면 창조적사색과 탐구를 위한 정신적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릴수 없게 되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적관계를 개변하기 위한 실질적인 물질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건장한 체력을 지닐 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은 주로 체육과 보건활동을 통하여 진행된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다 힘있는 존재로 준비시키는 인간개조사업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주되는 측면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그것은 자주의식이 과학기술지식이나 문화적소양 등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들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한다. 사람의 활동목적과 방향을 규정하고 활동과정을 조절통제하는것은 다름아닌 그들의 사상의식이며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리용하고 어떠한 문화적소양과 도덕품성을 어떻게 지니고 발휘하는가 하는것도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라고 하는것이다.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주로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진보적인 교육은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의 기본형태이다.

원래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들은 교육사업을 통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자라나게 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 태도를 확고히 세우며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문화지식수준과 튼튼한 체력을 가지는것은 사회적인간의 필수적요구이며 그것은 교육과정에 훌륭히 배양되게 된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적 및 육체적능력과 도덕품성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으로 되게 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육일반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것은 아니다. 계급의 발생과 함께 교육이 계급적성격을 띠게 된 때로부터 그것은 착취계급을 위한 교육과 피착취계급을 위한 교육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착취사회에서 교육은 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문화교육기관을 독점한 착취계급을 위한 교육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였다. 그리하여 착취사회에서의 교육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그들을 소수 착취계급에게 순종하는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 되였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은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을 반영한 진보적인 교육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진보적인 교육은 교육의 목적을 사회발전방향에 부합되게 세우고 교육의 전 과정에 그것을 확고히 견지해나간다. 사회발전방향에 부합되게 교육의 목적을 세운다는것은 말그대로 사람들을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정신적 및 육체적힘을 지닌 사회적존재로 키우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는것이다. 사람들은 진보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 태도를 세우며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는 높은 문화지식수준과 도덕품성, 튼튼한 체력을 갖춘 보다 힘있는 존재로 준비되게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실천활동은 비록 그자체가 인간개조사업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실천과정을 통해서도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 사람들의 실천활동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변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고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다.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언제나 유리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는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조성될수도 있고 최악의 역경에 처할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쌓고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선진사상과 발전된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며 더욱 성장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인류가 력사적으로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습득하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게 되며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과 풍모를 갖추게 된다.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주로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기본은 교육이다. 물론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에서도 많은것을 배우며 개조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류가 력사적으로 축적해놓은 사상과 문화를 충분히 습득할수 없다. 특히 새 세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로동할 나이가 되여도 사회적실천에 참가하여 제구실을 바로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발전의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령역을 이룬다.

사회는 사람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사람과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가 발전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과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의 발전을 떠나서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사회적재부나 사회적관계는 모두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한다. 사회의 발전을 힘있게 떠미는 혁명투쟁도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을 어떻게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가 하는것은 사회를 발전시키

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간개조사업은 바로 사람을 개조하여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인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령역을 이루게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이 자연을 개조하여 생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할수 없으며 아무런 활동도 할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자연개조사업은 인간개조사업의 물질적기초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또한 사람의 모든 활동이 일정한 사회적관계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사람을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사회적관계를 개변하지 않고서는 인간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개조사업은 인간개조사업의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른 한편 인간개조사업은 자연개조, 사회개조사업의 담당자를 키워냄으로써 이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한다. 자연을 개조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나 낡은 사회관계를 개변하는 사회개조사업은 다 그 담당자인 사람과 그의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 인민대중이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 주동적작용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맹목적인 자연의 힘을 길들이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갈수 있으며 반혁명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관계를 세울수 있다. 사람,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이나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인간개조사업은 력사발전의 전기간 끊임없이 벌어져왔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꼭같이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국가주권을 틀어쥔 반동적통치계급, 착취

계급에게는 자주의식으로 무장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순종하는 노예가 필요한것이다. 이로부터 착취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동교육과 반동문화의 보급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대중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물질문화적으로 기형화하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반동적본성으로부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배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교육자체가 사람들을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노복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자본가계급은 출판물, 통신, 방송을 비롯한 선전수단을 장악하고 진보적인 사상의 자유로운 보급마저 탄압하고있으며 사람들을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에 물젖도록 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인 사상과 문화의 창조와 보급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제도적제약을 받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을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내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며 그것을 전사회적범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벌려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체계에 망라되여 일생동안 교육교양을 받게 되며 여러가지 사회적혜택에 의하여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켜나간다. 또한 당과 국가가 모든 선전수단과 교육수단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제국주의사상문화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사회주의적인 사상과 문화만이 온 사회에 지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도록 하며 사람들을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교양육성하는 문제도 훌륭히 해결한다.

이와 같이 인간개조사업은 사회주의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그 본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인간개조사업에 대한 철학적해명이 완벽하

게 주어짐으로써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과학리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연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활동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활동입니다.》(《**김일성**저작집》 41권, 225페지)

인민대중이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물질적조건이 있어야 한다. 입고 먹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수단과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은 사람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이다. 물질적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야 사람들이 자주적인 생활을 원만히 누릴수 있고 사회발전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물질적조건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이다.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 살아갈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생활자료를 주는 원천이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자연은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복무하게 되는것이다. 사람은 자연에 전적으로 순응함으로써만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나가는 생명물질과는 달리 자연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자연을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리용하고 개조변혁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나간다.

이와 같이 자연의 사물현상들을 사람자신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개조하여 자기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 바로 자연개조사업

인것이다.

자연개조사업은 우선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활동이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는것은 자연으로부터 사람들이 살며 발전하는데 필요한 생활수단, 생활자료를 얻어내며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며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입고 먹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자료, 생활수단이 원만히 보장되여야 한다.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자료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고 자연의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힘에 의해 피해를 받고있는 한 사람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주인으로 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자연으로부터 물질적생활자료의 획득은 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자연으로부터 생활자료를 충분히 얻어낼뿐아니라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되여야 한다.

사람이 살며 발전하려면 또한 자연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켜야 한다.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자연은 자기의 발전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면서 사람의 생활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의 운동변화는 사람의 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가져다줄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을 조성할수도 있다.

자연환경이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한에 있어서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은 맹목적이고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을 생활과 활동에 유리하게 개조하여야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은 다음으로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는것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한다는것이다. 여기서 물질기술적토대란 해당 사회에서 창조된 물질기술적수단들의 총체를 말

한다.

물질경제적측면에서 놓고보면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더 많은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물질기술적토대는 사회발전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며 이러한 물질적조건은 자연을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마련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공업생산부문과 농업생산부문을 비롯한 모든 생산부문, 분야들에서 사회발전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마련하고 개선해나간다.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 력사적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 나간다.

자연개조사업은 바로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물질기술수단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사회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인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과 사회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는데 자연개조사업의 본질적내용이 있는것이다.

자연개조사업의 기본형태는 생산활동이다.

생산활동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으로서 사람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활동이다.

사람들의 생산활동은 그들이 로동도구를 가지고 로동대상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람은 로동도구를 리용하여 자연물의 형태와 기능, 성질 등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생산활동을 벌려나간다. 인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대상이 개조대상으로 선택되게 되고 가공처리되게 되며 사람의 자주성실현에 복무하는 물질적재부로 전환된다. 로동도구는 사람의 창조적힘이 로동대상에 가해지게 하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생산력의 발전은 객관적으로 로동도구의 발전에서 표현되며 로동도구의 발전은 생산발전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은 발전된 로동도구를 만들어내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생활자료를 생산한다.

자연개조사업의 다른 중요한 형태는 국토관리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은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함으로써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은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 인간에게 들씌워지는 위험과 재난을 방지하며 자연의 힘을 길들이고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이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사람들은 토지, 동식물, 지하자원, 지형조건과 강하천, 기상상태 등 자연지리적환경과 조건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그 사회적가치를 평가한데 기초하여 그것이 사람들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개조함으로써 자연을 더욱더 사회와 인간을 위한것으로 변모시켜나간다.

자연개조사업은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과 함께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령역을 이룬다.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조건은 자연개조사업을 통하여 마련된다.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에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같은 로동도구와 생산에 쓰이는 건물과 도로와 같은 생산시설물들과 저수지, 관개수로가 건설되고 토지가 개간개량되며 입고 먹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생활자료가 만들어진다. 자연개조사업을 떠나서 사람의 생존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또 이것은 결코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이 대신할수 없는것이다.

이처럼 자연개조사업은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령역을 이룬다.

자연개조사업은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연개조사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닐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담보한다.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리용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자각을 더 깊이 가지게 된다.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회의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소유하고 리용할수 있는 사회관계를 확립하려는 요구가 제기되게 되며 그것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사상이 출현하게 된다. 사람들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자연개조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이 체득하고 공고히 하게 된다.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힘을 돌릴수 있는 객관적조건도 마련되게 된다.

자연개조사업은 사회개조사업을 물질적으로 담보한다.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사회의 물질적재부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점유와 리용을 규제하는 사회적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에 보다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자연개조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수요들이 마련된다.

낡은 사회관계를 새로운 사회적관계로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는 일정한 물질적수단들이 필요하게 된다.

실례로 낡은 사회적관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자면 반혁명세력을 격파하기 위한 무기와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시켜 그들을 사회개조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적수단들이 필요된다. 이러한 물질적수단들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연개조활동을 통하여 마련되고 개선되여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은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진행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구속되는 착취사회에서

는 자연개조사업이 전면에 제기되지 않으며 원만히 진행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자연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물질생활에서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아니라 착취계급의 치부와 향락을 충족시키는데 복종되게 되는것이다.

착취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은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착취사회에서는 개인리기주의가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여있고 국가주권을 독차지한 착취계급이 생산수단을 사적소유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개조사업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될래야 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는 물질적부의 생산이 가치법칙의 맹목적인 작용에 의하여 개별적생산자들의 결심에 따라 진행되고 생산자들사이에는 약육강식의 관계만이 지배하게 되며 경제부문들사이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연개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며 자연을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발전이 억제된다. 또한 기술발전을 위한 사회적조건도 원만히 보장되지 못한다.

자연개조사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은 비로소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물질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직접 복무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자기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로동활동을 진행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연개조사업의 결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물질적부가 창조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은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서 전사회적범위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 국가적소유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

로 긴밀한 련관을 맺고 국가의 지휘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옳바로 반영하여 자연개조의 전망목표와 당면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필요한 인적 및 물적력량을 조직동원하여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면서 전반적인 자연개조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조절통제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연개조사업은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휘되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이 전사회적범위에서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조직진행된다. 또한 인민대중이 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휘밑에 기술발전의 넓은 길이 열려진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연개조사업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높은 속도로 진행되게 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자연개조사업에 대한 철학적해명이 완벽하게 주어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과학리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입니다.》(《**김일성**저작집》 41권, 233페지)

사회관계는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질서의 체계로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해당 사회에 확립된 사회관계,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고 담보된다. 그런데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사회관계는 처음부터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세워져있지 않으며 사회관계는 자기스스로 합리적으로 개변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주는 사회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이러한 투쟁이 사회개조사업인것이다.

사회개조사업은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사상문화적관계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사회개조사업은 무엇보다도 정치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정치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정치적관계를 개조하는 문제는 사회개조사업에서 기본을 이룬다.

그것은 사회정치적관계가 정권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사회관계로서 모든 사회관계에서 주도적지위에 있기때문이다.

정권은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정치적으로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정권을 틀어쥐여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면 반드시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개조사업은 바로 정권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사회정치적관계를 개변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개조사업은 또한 경제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경제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경제적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사회관계로서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것은 그

들이 물질생활에서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을 가져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자면 생산수단의 주인, 경제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개조사업은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모든 사회경제적관계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개조사업은 또한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상문화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상문화적관계는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과정에 맺어지는 사회적관계로서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진적인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여 향유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문화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인민대중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선진적인 문화, 과학기술지식, 고상한 도덕의 소유자가 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으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선진적인 사상과 문화를 체득하려면 그들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활동을 마음껏 벌려나갈수 있게 되여야 하며 그것은 사상문화적관계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개조사업은 바로 인민대중의 사상문화적재부를 창조하여 향유하는 활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사상문화적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이처럼 사회개조사업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맺게 되는 모든 사회관계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활동이다.

사회개조사업은 사회발전에서 필수적인 령역을 이룬다.

사회는 사람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 그리고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발전하여야 하며 사회적재부가 더 많이

창조되고 사회적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되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관계를 개변시키는것은 자연개조나 인간개조사업이 대신해줄수 없는 사회개조사업의 고유한 내용이다. 때문에 사회개조사업은 사회발전의 필수적령역으로 되는것이다. 사회개조사업을 통해서만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원만히 실현되여나가며 그 과정이 다름아닌 사회발전과정인것이다.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회개조사업은 결국 인민대중이 온갖 사회적예속과 불평등,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빼앗기고 유린당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정치적으로 지배와 예속을 받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누릴수 없으며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인민대중은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여야 자주적인 물질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참다운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사회개조사업이 선차적으로 제기되는것이다.

사회개조사업은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개변하는것은 그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데서나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열쇠로 된다.

자연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속에서 진행되며 그에 의하여 제약된다.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사회적질서의 체계인 사회관계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얼마나 높여주는 사회관계가 수립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고 창조적힘을 얼마나 발휘하는가, 사회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개변하여야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사회개조사업은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발전한다.

사회관계는 사람의 발전,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변화발전한다.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어떻게 개조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이 어떤 사회관계, 사회제도를 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수준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은 높은 자주의식을 지녀야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보다 새로운 사회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게 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창조적능력은 사회관계를 개변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적극 추동한다.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활동은 일정한 창조적능력, 혁명적능력이 준비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회개조사업은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회세력과 그것을 개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회세력사이의 힘의 대결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능력에 맞게 사회적운동을 벌리며 그 수준에 맞게 사회관계를 맺고 개변해나간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사회개조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

정적요인이다.

물론 새로운 사회관계가 확립되려면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일정한 생산력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는데서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관계의 확립에서 결정적인것은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정도와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담당수행할만 한 정치적력량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생산력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새로운 사회관계를 확립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사회개조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으면 비록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낮다고 해도 사회관계를 능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사회개조사업은 또한 사회적재부가 늘어나는데 기초하여 발전한다.

사회적재부는 사회적관계의 형성과 발전의 물질적기초이다. 자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지 않는 그 어떤 사회관계란 있을수 없으며 그러한 관계는 설사 일시적으로 선다 하더라도 자기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사회적재부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를 매개로 하여 맺어지는 사람들의 물질경제적관계, 사상문화적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재부의 발전은 사회적관계의 개변을 위한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사회개조사업은 결국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고 그에 맞게 사회적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발전한다.

사회관계가 사람의 발전정도에 맞게 그리고 사회적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개조발전되여나가는 합법칙성은 인류사회발전의 전력사적과정이 실증해준다.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매우 낮았던 인류사회의 첫 시기 사람들의 사회적결합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점차 높아지고 사회적재부가 늘어나면서 씨족, 종족을 단위로 하는 좁은 범

위에서만 맺어졌던 원시사회의 낡은 사회관계는 붕괴되고 씨족, 종족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을 포괄하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사회관계, 사회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그것은 비록 착취와 억압으로 특징지어지는 첫 착취사회관계였지만 씨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맺어지게 되였다는것, 다른 씨족성원들을 죽인것이 아니라 비록 노예의 처지로나마 받아들였다는것 등으로 하여 원시사회관계보다 발전된 사회관계였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관계가 수립된 착취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완만하게나마 점차 높아졌고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가 증대되였으며 그에 따라 착취적사회관계는 노예적인 사회관계로부터 봉건적인 사회관계, 자본주의적사회관계로 변화발전해왔다. 력사발전과 더불어 착취사회의 변화발전과정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혁명적능력이 장성강화되고 착취적사회관계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사상적 및 물질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그에 맞게 인민대중의 투쟁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벌어짐으로써 새로운 사회관계, 사회주의사회관계가 수립되게 되였다.

사회개조사업은 일련의 단계를 걸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사회개조사업의 첫 단계는 착취와 압박을 낳는 모든 착취관계와 착취제도를 청산하는 단계이다.

착취사회는 오랜 기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유린해왔다. 원시사회가 붕괴된 이후에 생겨나고 교체되여온 노예사회나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는 다같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착취사회였다. 원시사회가 무너진 때로부터 자본주의사회가 출현한 때까지의 력사적기간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 지배와 예속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대중이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이러한 착취와 억압을 낳는 착취적사회관계, 착취제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의 선차적요구이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를 개조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합법칙적과정, 단계인것이다.

사회개조사업의 다음단계는 사회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을 종국적으로 없애는 단계이다.

사회의 계급적대립과 사람들사이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는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개조사업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것은 아니다.

물론 착취제도의 청산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며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적사회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지배적인것으로 되였다고 하여 사회개조사업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낡은 사회관계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관계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잔재를 없애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사회정치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에도 사회개조사업을 계속 밀고나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해주는 사회주의적사회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개조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소유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완전히 없애는것이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이 계급적차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단일화에 기초해서만 없앨수 있으며 그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 때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수립후 사회개조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물질문화생활령역에 남아있는 모든 차이를 없애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보장하는 사회관계를 확립하는것이다.

온 사회에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단일화가 실현되여 계급적차이가 없어지면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이 보장된다.

그러나 계급적차이가 없어진 다음에도 전사회적범위에서 물질문화생활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여야 인민대중이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관계가 섰다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사회개조사업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끊임없이 심화되여나간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회개조사업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사회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과학리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주적립장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혁명적인 립장입니다.》(《**김일성**저작집》 36권, 282페지)

자주적립장은 두가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다.

그것은 우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립장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독자성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립장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 확고히 담보된다.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주인이란 없다. 주인이라면 마땅히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될 때 주인으로서의 지위도 지킬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립장은 혁명과 건설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당한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주견과 리익에 맞게 판단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인인 그 나라 인민에게만 있다. 주인이 아닌 외부세력이나 기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남의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이 없다. 남에게 눌리우거나 얽매여 자기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빼앗기는것이며 남의 의사를 따르며 자기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그 나라 인민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의 리익을 고수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독자적인 주견을 세우고 자기의 결심과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해나가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나가는 자주적립장은 남에게 눌리우거나 종속되여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그것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자력갱생해나가는것은 자주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자주성은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의 성질인것만큼 그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의 힘에 의하여 풀어나가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인이라면 모든것을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뿐아니라 모든것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립장을 지켜야 한다. 권리만을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은 참다운 주인이라고 말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뿐아니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지킬수 있다.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당한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책임은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은 또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기때문에 남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의 힘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저버리는것이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것이다.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주적립장은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 혁명을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끝까지 완수하려는 립장이며 마음만 먹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덕으로 살아가려는 의존심, 조건타발만 하면서 난관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하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무책임성 등과는 인연이 없다.

이처럼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나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운명문제를 옳바로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자주적립장의 중요한 내용인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것과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은 서로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되는것은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 혁명운동자체의 요구라는것과 관련된다.

혁명운동에 대한 근본립장은 혁명운동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 대하는 근본립장은 혁명운동의 본질에 기초하고있으며 혁명운동의 본질은 혁명운동에 대하는 근본립장에 의하여 혁명실천에 구현된다.

자주적립장은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본질과 직접 련관되여

있는 립장이다. 모든 혁명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운동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요구와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자신이 벌리는 자주적운동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주동적으로 내세워야 혁명운동을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운동에서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것은 혁명운동의 자주적본성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며 이러한 립장을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주동적으로 내세울뿐아니라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실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은 수입할수도 수출할수도 없다. 자기 나라 혁명은 그 누가 대신할수 없으며 대신하지도 못한다. 혁명운동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뿐이며 결정적역할은 하지 못한다. 남에게 의존해서 혁명을 하려는 립장은 혁명운동의 자주적본성에 어긋나며 이러한 립장을 가지고서는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인민대중에게는 자기의 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혁명운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자기 운명도 개척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지킬 때 혁명운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주동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자체의 본성적요구이며 바로 여기에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철저한 혁명적립장, 로동계급적립장이기때문이다.

혁명운동에 대하는 근본립장은 혁명운동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립장일뿐아니라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의 립장이다.

혁명운동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므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집단이나 계급은 혁명운동에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을 가지게 되며 낡고 반동적인 세력이나 계급은 혁명운동에 대하여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립장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의 립장만이 혁명운동에서 견지해야할 근본립장으로 된다.

자주적립장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철저한 혁명적립장, 로동계급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이 로동계급의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 되는것은 이 립장이 로동계급의 자주적본성과 혁명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립장이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은 력사상에 존재한 선진적인 계급들가운데서 가장 자주적인 계급으로서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다. 또한 로동계급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계급으로서 자신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력사적사명으로 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요구이며 높은 혁명적자각의 표현으로서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혁명적자각이 자주적립장에 구현되여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이 주체, 자주, 자립, 자위를 중요내용으로 하게 되는것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인민대중의 근본요구가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들에 의해서만 철저히 구현될수 있기때문이다.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는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와 경제, 국방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울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자기의것에 정통하여야 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로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사상에서의 주체도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일뿐아니라 혁명투쟁자체가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므로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하며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꾸려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

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에서 자립을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뿐아니라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서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켜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워야 하며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하며 후방을 강화

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인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강력한 혁명무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할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수 없다.

선군혁명로선은 바로 혁명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혁명로선이다.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혁명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의 주도적이며 강력한 역할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면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들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철학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주적립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창조적립장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집》 36권, 283페지)

창조적립장은 두가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다.

그것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켜 풀어나가는것이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대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으며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립장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거하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는 립장은 혁명운동의 근본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위력한 방법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고 기본동력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의 소유자이다.

혁명은 그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추진되며 발전한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물론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객관적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객관적요인자체도 인민대중에 의해서만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리용될수 있다. 아무리 객관적조건이 유리하다고 해도 주체적요인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미약하거나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으며 반대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높아지고 적극 발양된다면 설사 객관적조건이 불리하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게 된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믿지 않고 객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만을 중요시하는 물질지상주의와 기술만능주의 그리고 낡은 경험이나 기준만을 내세우는 소극성, 보수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적극 발양시킬 때

에만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며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을 대중적투쟁으로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혁명적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다.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은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일뿐아니라 주체의 준비정도와 대상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회적운동, 혁명운동과정은 개조의 주체와 개조대상사이의 호상작용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가자면 개조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함께 개조대상, 객관적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모든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여야 한다.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립장은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진행되고 발전되여나가는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옳바른 방법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떠난 혁명운동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구체적인 산 현실을 떠난 혁명운동도 없다. 혁명운동의 구체적실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끊임없이 변화된다. 혁명과 건설은 자연과 사회의 각이한 대상과 분야들을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개조변혁하는 사업일뿐아니라 자연지리적 및 사회력사적조건이 서로 다르고 제기되는 혁명과업과 임무도 각이한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의 복잡성, 다양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부단히 변화되는 현실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온갖 편향과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일률적으로 들어맞는 행동원칙이나 고정불변한 행동방법은 있을수 없다.

창조적립장은 구체적현실을 깊이 연구분석하고 옳게 타산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대로 밀고나갈수 있는 합리적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에 능숙하게 적용해나가는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대하며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익한것만을 받아들이며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이는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변화되는 현실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온갖 형태의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 형식주의 등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창발성이 억제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바로 인식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없다.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붙이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대하는 립장을 지켜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능숙하게 구현하여나갈수 있다.

이처럼 창조적립장은 교조적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모든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우월한 방법이다.

창조적립장에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의 기초로 되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인민대

중에 의거하는 방법의 위력한 담보로 된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것도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변혁해나가는 것도 인민대중인것만큼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높이 발양시켜야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의도나 기존공식에 매달리지 않고 조성된 정세와 구체적인 현실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전환되여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사람의 창조적본성을 구현하고있는 방법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가는것이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본성에 맞게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려면 남의 힘을 바라거나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딸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립장인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킬 때에만 인민대중은 온갖 도식과 교조를 배격하고 구체적조건에 맞게 자기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높이 발휘될수록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높아지며 주인으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고수될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

도록 하는 립장인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창조적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방법이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은 혁명운동자체의 본성에 부합되는 방법이여야 한다.

모든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능력으로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며 자기의 혁명적능력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새로운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한다. 인민대중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창조적투쟁에 의해서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이 청산되고 새롭고 선진적인것이 창조될수 있다.

력사상에 이룩된 모든 혁명의 승리와 사회적진보는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의 결실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가 개조변혁되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것만큼 혁명운동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외에는 다른 묘술이란 있을수 없다. 바로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적극 동원하게 하는 립장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혁명운동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법이기때문이다.

일정한 력사적시대를 떠난 혁명운동이란 있을수 없는것만큼 혁명운동의 방법에는 해당 시대의 요구가 구현되게 된다. 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법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은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되여나가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혁명운동의 근본방법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혁명운동이 심화발전된 우리 시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며 모든 문제를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서로 다른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창조적립장은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자기 나라의 민족적특성, 구체적인 현실적요구에 맞게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켜 철저히 관철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창조적본성과 혁명운동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법인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해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또한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리고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주체사상이 밝힌 창조적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옳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와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며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창조적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인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오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때에만 훌륭하게 실현될수 있다.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조직된 전투부대인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가장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현대적인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공장들과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자연개조사업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선군혁명로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모든 문제를 창조적립장에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주체철학은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들까지 전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창조적립장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도 완성된 리해를 확립하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

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입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두가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이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작용하는 물질적요인과 사상적요인가운데서 언제나 사상적요인에 기본을 두고 그 작용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에 작용하는 요인들가운데서 사상적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선차적으로 내세운다는것이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 원칙은 혁명운동에서 사상적요인과 물질적요인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세계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인것만큼 거기에는 물질적요인과 사상적요인이 다 작용한다. 물질적요인과 사상적요인가운데서 어느 한 요인이 없어도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물질적요인을 무시하거나 홀시하면 주관주의와 좌경모험주의에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사상적요인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없게 하며 혁명과 건설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질적요인의 준비없이 주관적욕망만으로는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으며 반대로 사상적요인의 작용없이 물질적요인만으로는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힘있게 추진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적요인과 물질적요인은 다같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이것은 두 요인이 노는 역할이 서로 같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과 건설에서 물질적요인이 필요하고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물질적요인이 아니라 사상적요인이다. 물질적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어도 주체인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은 추진될수 없다.

비록 물질적요인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일떠서기만 하면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물질적조건자체만 보아도 그것이 어떻게 마련되고 리용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적인 노력, 사상정신상태의 준비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사상적으로 동원된 인민대중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해나간다. 결국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물질적요인이 아니라 사상적요인이며 따라서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물질적요인과 사상적요인의 호상관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한 혁명운동의 원칙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언제나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는것만큼 사상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혁명과 건설의 운명이 달려있게 된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 원칙의 과학성, 정당성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이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에 마땅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경제건설일면에만 매여달림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데까지 이르게 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사회의 물질경제적조건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사람의 의식은 객관적현실을 반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사람의 사상의식이 어떻게 변화발전되는가 하는것은 사람자체의 준비정도와 그가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사상적영향을 받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남아있고 외부로부터 반동적인 사상의 침습과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물질경제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저절로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 이것을 무시하고 사

상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점차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고 하지 않게 되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쉽게 포로되여 사회주의를 배반하는데까지 굴러떨어진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과정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놓치고 사상사업을 줴버리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변질타락시키며 사상진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있어도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것과 동시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상의 역할이 얼마나 크며 사상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이다.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기술실무적방법이나 행정적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데서 찾고 그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주체적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당한 원칙이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혔다.

사람은 물질세계발전의 산물이며 물질세계에서 살며 활동하는것만큼 자기 활동에서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지만 객관적조건자체가 직접 사람의 활동을 일으키는것이 아니다. 객관적조건은 의식을 통해서만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객관적조건의 영향만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개변하고 적극적으로 리용한다.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인 사상의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성격을 규제한다.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은 계급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물론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를 두며 그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사회계급적처지는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비록 자산계급출신의 사람이라도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영향을 많이 받으면 혁명가로 되게 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느 계급의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선진계급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옳바른 계급적립장을 견지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수 있다.

혁명운동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문제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또한 계급적리해관계를 자각한 대중만이 자기의 혁명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하여나갈수 없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이러한 사업들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원칙을 확고히 앞세우는 조건에서만 잘될수 있다. 단순히 행정적지시

나 실무적조치에 매달려 사람들을 움직이려 할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운동을 의식적으로 추동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의 두가지 내용은 서로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전제이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 관점과 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여야 모든것을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의식적인 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의 본성적요구이기때문이다.

모든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은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변혁하여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곧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력사를 발전시켜나가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를 깨닫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게 될 때 비로소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

의 주인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지만 결코 저절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확고한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져야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존재로 될수 있다. 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혁명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목적지향성있게 풀어나간다.

혁명운동은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는 력사적과정을 놓고보아도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먼저 사회주의사상이 나오고 이 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탄생한다.

혁명발전과 그 운명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역할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원래 혁명투쟁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일어나는것도 아니며 유리한 환경속에서만 진행되는것도 아니다. 혁명은 저절로 발생발전하지 않으며 오직 인민대중의 적극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은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의식적인 운동으로서의 혁명운동자체의 본성적요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가들의 본성적방법이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은 혁명운동의 본질적요구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부합되는것이여야 할뿐아니라 혁명운동을 담당수행해나가는 혁명가들의 본분과 고유한

사업방법에도 맞는것이여야 한다. 혁명가들의 본분과 고유한 사업방법과 어긋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될수 없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가들의 본분이며 고유한 사업방법이다. 반동적인 착취계급, 지배계급은 착취적 및 반인민적본성으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저들의 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문화를 조장류포시키는 한편 강권과 금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한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고상한 혁명적본분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이 혁명운동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방법에 의거한다. 혁명투쟁자체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 강제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직동원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혁명이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신비한것이 아니며 누구나 결심하면 능히 할수 있는것이지만 인민대중은 저절로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서게 되는것은 아니다.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여 그들스스로가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게 된다.

혁명가들에게는 대중을 각성시키고 발동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사상적무기가 있다. 물론 착취계급도 자기의 반동적인 사상을 대중속에 류포시켜 대중의 사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실현될수 없다.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인 사상만이 전체 인민에게 접수될수 있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운동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수 있게 할수 있다.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여 그들스스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것을 본분으로 하고있으며 또 전체 인민을 의식화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고있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그것을 발동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혁명적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이처럼 혁명가들의 본성적방법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인 원칙이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원칙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이다.

사상개조선행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 문제라면 정치사업선행은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문제이다.

사상개조선행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사업보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개조사업을 선차적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개조선행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혁명관을 세우는것이 사상개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드는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혁명관을 옳게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혁명사상과 리론을 신념화하고 강의한 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선행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다른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것만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이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정치사업선행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옳게 배합하며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사업을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여야 하며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인 사상개조사업을 선행시키는 사업과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선군시대는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혁명군대가 창조한 사상정신과 도덕, 문화, 투쟁기풍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혁명군대의 모양을 닮아가는 과정에 높은 수준의 정치사상적풍모를 지니게 되며 이 과정에 사회주의적인간개조, 사상개조사업이 완성되게 된다.

정치사업을 선행시킬데 대한 요구도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식으로 해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화선식선동사업이 온 나라에 일반화되여 일군들이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를 웨치며 투쟁의 앞장에 서고있으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실력을 가지고 실지 사업성과로 당을 받들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은 혁명운동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

칙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수 령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최고령도자이라는것을 표현하는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뇌수입니다.》(《**김정일**선집》 12권, 292페지)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될 때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할수 있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이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개별적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라는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령도의 중심이라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생명의 중심이라는데 수령의 본질이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가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생

명체로 결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사상적통일의 중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최고체현자이다. 수령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개별적성원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공동의 자주적요구를 내놓는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공동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상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의식화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그대로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지로 되며 그들의 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이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사상적기초인 혁명사상을 직접 창시하고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여 하나로 묶어세우는 유일중심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사상적통일의 중심으로 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조직적단결의 중심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인민대중의 사상적통일체인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조직적결합체이다.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한 대중은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고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룰수도 없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자면 일정한 조직체계에 따라 결합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유일한 조직체계에 결합시키는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대중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조직을 내오고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령도한다.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여러 정치조직들을 통하여 하나의 조직화된 정치적력량으로 뭉치게 된다. 수령에 의하여 조직되고 령도되는 조직체계에는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중추적기능을 수행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인 당과 당의 령도를 받는 근로단체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조직들이 속한다. 인민대중은 정연한 체계를 갖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

직들에 망라되여 수령과 조직적으로 결합되게 된다. 수령을 떠나서는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집단으로 결속될수도 없고 자기의 운명을 통일적으로 개척해나갈수도 없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도덕의리적통일의 중심이다.

인민대중은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되여야 진실하고 공고한 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룰수 있다. 인민대중의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의 중심도 수령이다.

하나의 공통된 사상적지향과 의지로 결합된 자주적인 사회적집단안에서는 원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맺어지는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숭고한 도덕의리적관계는 사랑과 의리의 최고화신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도덕의리적관계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에 충직하게 보답해나가는 전사들의 혁명적의리로 맺어지는 최고의 도덕의리적관계이다. 수령은 전사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며 따뜻이 보살펴주는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다. 전사들은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빛내여주는 수령을 생명의 어버이로 높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개별적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관계도 수령의 사상과 의리를 원천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수령이 지닌 한없이 고결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수령과 전사, 혁명가들사이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관계가 확립되며 혁명대오의 도덕의리적통일단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의 중심으로 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령도의 중심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은 그 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에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

어지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통일적지휘가 없이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이 보장될수 없고 사회정치적집단자체가 유지될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인민대중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령도는 직접적으로 당조직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당은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며 그것은 수많은 당조직들의 결합체이다. 당조직들에 의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활동에 대한 령도가 실현된다. 인민대중의 활동에 대한 지휘가 제각기 진행된다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이 통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자면 당조직들이 유일적인 령도체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모든 당조직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령도할수 있는 유일중심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유일적령도체계의 중심, 당조직체계의 유일중심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김정일**선집》 8권, 451페지)

수령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수령인것만큼 수령의 역할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노는 역할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모든 활동에서 결정적작용을 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당이나 군대, 인민은 결코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없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수령이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고 발전풍부화시켜나간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해서만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다. 그러나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은 시대가 발전하고 현실이 요구한다고 하여 아무나 내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고 인민대중이 축적한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과학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는 사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수령의 특출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해서만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되고 끊임없이 발전완성된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이 창시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은 인민대중을 의식화할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그러나 혁명의 지도사상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인민대중속에 침투되여 그들의 신념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의 주체로 만들자면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 떨쳐나 견결히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무장시키는 사업은 수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활동원칙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령도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에 맞게 투쟁단계와 목표, 방법을 옳바로 설정하고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들을 의식화하고 사상적으로 단련시킨다. 수령은 혁명적당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의 원리와 방법론으로 무장시킨다.

수령은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조직하고 강화발전시켜 인민대중을 조직화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핵심력량과 정치조직을 마련하고 그들의 조직화를 실현한다. 수령은 조직력과 단결력에 있어서 그 어느 사회적집단보다도 우월한 혁명군대를 창건하고 그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운다. 수령은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 령도밑에 계급별, 계층별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는 여러 근로단체조직들을 결성하며 그를 광범한 대중을 망라하고 그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킨다.

수령은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혁명투쟁의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가장 높은 형태의 목적의식적운동인 혁명은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이 없이는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없다. 혁명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은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된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을 구체적인 혁명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그것을 그대로 혁명의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로 만든다.

수령은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다지며 당대렬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그 령도적지위와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수령은 과학적인 당활동원칙과 당사업방법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당의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도록 한다.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혁명군대의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혁명군대를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킨데 기초하여 혁명투쟁에서 혁명군대의 주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간다. 수령은 혁명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온갖 반혁명세력을 타승하고 나라와 민족, 인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도록 한다. 수령은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이끌어주며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으로 전체 인민을 창조와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높이에 맞게 제때에 옳바른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조직진행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력을 가장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수령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를 키워 후계자로 내세운다. 수령은 후계자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여나가게 한다.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것은 수령이 특출한 품격과 자질을 지닌 위인중의 위인이기때문이다.

수령은 개인으로는 결코 지닐수 없는 특출한 풍모와 자질을 지닌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그 실현방도를 집대성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시켜나갈수 있는 비범한 예지를 지닌 탁월한 사상리론가, 특출한 정치실력과 무비의 담력을 지닌 걸출한 령도자이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의리를 지닌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다. 탁월한 사상리론가, 뛰여난

정치가, 위대한 령장, 숭고한 인덕의 체현자인것으로 하여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수령이 매개 력사적시기에 어느 나라, 어느 사회적집단에서나 있게 되는 단순한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 비결이 있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된다.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이다. 수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전도와 장래운명이 좌우되게 된다.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대가 바뀔 때마다 당과 국가의 지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가, 음모가들이 나타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일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옳게 계승되지 못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권이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 의하여 탈취당할 때에는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당이 변질되게 되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수령의 참다운 후계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뛰여난 예지, 탁월한 령도력과 인민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위인중의 위인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는 자신이 지닌 비범한 자질과 능력,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닌 인민의 수령으로 된다.

수령의 후계자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및 도덕

의리적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의 중심으로 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며 수령이 창건한 당과 혁명군대를 영원히 수령의 당, 수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킨다. 또한 세련된 령도예술로 전당, 전군, 전민을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후계자의 세련된 령도밑에서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게 된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철학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도 옳바른 해답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선행고전가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령의 역할을 사회적운동일반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이나 로동운동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지도간부들의 역할과 별로 구별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수령의 역할문제를 사회력사적운동에서 노는 개인의 역할과 다름없이 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선행철학에 의하면 개인의 역할은 그 활동을 제약하는 물질적 및 사회적관계에 많이 의존되는것으로 된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선행철학에 기초하여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문제가 옳바로 해명될수 없다.

선행리론에서 수령의 역할문제를 탁월한 개인의 역할문제로 보게 된것은 사회적운동일반에서와 같이 수령의 역할문제를 주로 지휘에 관한 문제로 본것과도 관련된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지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에 관한 문제이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수령에 관한 철학적해명이 완벽하게 주어짐으로써 혁명적수령관을 정립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데서 과학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혁 명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라는것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범주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입니다.》(《**김일성**저작집》 37권, 192페지)

혁명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운동을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이 벌리는 혁명의 류형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모두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밑에 있는 인민들이 벌리는 민족해방혁명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제국주의앞잡이들과 낡은 봉건세력을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벌리는 투쟁이며 사회주의혁명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억압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는것은 이미 쟁취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것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사회력사적운동일반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사회력사적운동일반과 구별되는 자기의 근본특성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혁명의 근본특성은 우선 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이라는데 있다.

혁명은 선진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발생발전하고 승리할수 있다. 물론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하기때문에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여나가는 특성을 띠고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 어느때나 사회적운동의 모든 형태들이 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진행되는 정도가 같은것은 아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자연을 개조하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자신의 의사와 요구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진행된다. 그렇다고 하여 착취사회에서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해 인민대중이 벌리는 혁명투쟁도 남을 위하여 벌리거나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으며 그 성과적전진을 이룩할수 없다. 혁명은 철저히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자각적이고 적극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물론 혁명이라고 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정도가 언제나 같은것은 아니다. 수령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해당 사회에서 진보적인 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선각자, 사상가들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민대중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리익을 깨닫고 해당 착취사회제도를 반대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당 사회제도를 전복할수는 있었으나 개별적인 선각자, 사상가들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의 미숙성으로 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세우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노예적 및 봉건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절실한 요구와 리해관계,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벌린것이였다.

혁명운동의 목적의식적인 특성은 인민대중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운동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높은 수준에서 발양되게 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투쟁에 불러일으켜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한다. 수령에 의하여 조직령도되는 사회주의운동이야말로 혁명운동의 목적의식적인 특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되는 운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혁명의 근본특성은 또한 조직적인 투쟁이라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 인민대중이 조직화되지 못하여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분산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인민대중은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갈수 없다. 혁명은 인민대중이 단결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고 완성된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는것이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은 곧 단결이고 단결은 곧 혁명이라고 말한다.

혁명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이라고 하여 력사발전의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조직화수준이 언제나 같은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에 속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은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근본적인 요구와 리해관계에서 일치하므로 조직적단결을 이룰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지만 통일단결의 중심이 없으면 옳바로 조직화될수 없다. 지난 시기 사회계급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수많이 진행되여왔지만 그 조직화수준이 낮았던것은 통일단결의 중심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세상만물이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처럼 인민대중은 오직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칠 때 위력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일수 있다. 수령이 출현하기 이전의 혁명투쟁들은 옳바른 통일단결의 중심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모두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인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며 노예폭동이나 농민전쟁과 같이 일정하게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성격을 띤 비교적 큰 규모의 투쟁이라고 해도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반혁명세력의 탄압과 회유기만, 내부의 모순과 알륵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그 어떤 개인도 지닐수 없는 뛰여난 조직적수완과 령도예술, 겸허하고 고매한 품성과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을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며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대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 활동을 조직지도한다.

수령에 의하여 조직령도되는 혁명은 인민대중의 조직화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의 운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혁명의 근본특성은 또한 혁명이 근본적인 사회적변혁을 가져오는 운동이라는데 있다.

혁명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이라는 측면이 주로 혁명의 주인, 담당자의 활동의 견지에서 혁명의 특성을 고찰한것이라면 혁명이 근본적인 사회적변혁을 가져오는 운동이라는 측면은 혁명의 대상의 변화발전의 견지에서 혁명의 특성을 밝힌것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것이 근본적으로 청산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새것이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낡은것의 부분적인 개조변화, 단순한 계승을 기본으로 하는 변혁은 혁명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 구속하는 낡은것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량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것으로 교체되여야 혁명으로 된다. 여기에는 우선 낡고 반동적인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보다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속한다. 낡은 사회제도의 청산과 선진적인 사회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변화발전을 가져오는 사회혁명이다.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혁명전쟁,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도 치렬한 계급투쟁으로써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변혁을 가져오는 사회혁명이라고 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의 근본적인 변혁뿐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투쟁도 혁명으로 된다.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사상, 기술, 문화를 창조하는 투쟁을 혁명이라고 하는것은 이때문이다.

혁명은 어떤 대상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가 하는데 따라 서로 다른 두가지 내용을 가진다.

혁명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인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국가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운것과 전후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가져온 사회혁명들이다.

혁명의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의 새것에로의 근본적인 교체이다. 사회제도만이 사람들의 자주성실현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다. 낡고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사회정치적예속을 강요한다면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은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저애한다.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 해도 인민대중이 사상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져있으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선진사상과 문화, 기술을 소유하여야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회혁명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라는데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지만

차이성도 있다.

그것은 우선 자주성을 실현하는 내용에서 찾아볼수 있다. 사회혁명이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이라면 3대혁명은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문화와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투쟁대상에서도 서로 구별된다. 사회혁명에서 투쟁대상이 주로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 사회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 반동적착취계급, 사회세력이라면 3대혁명에서 투쟁대상은 사람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뒤떨어진 문화와 기술이다.

또한 수행방식과 방법에서도 차이난다. 사회혁명에서는 폭력적수단과 방법이 기본으로 되지만 3대혁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방법,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새것을 창조하고 낡은것을 없애는 방식이 기본으로 된다.

또한 사회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끝나지만 3대혁명은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시기부터 시작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전면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진행된다. 만일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혁명으로 보는 경우에는 낡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사회주의적생산방식에로의 교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혁명이 끝나는 것으로 되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은 자주성에 대한 유린과 구속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민대중자신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혁명적능력에 의하여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나는 객관적요인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유린과 구속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성이 유린되고 구속되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고 구속되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착취와 압박이 있고 자주성이 구속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자주성이 유린되고 구속되지 않는다면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필요도 없으며 혁명이 일어날수도 없다. 착취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반동적인 착취계급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당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이 계속되게 되는것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기때문이다. 자주성에 대한 유린과 구속이 남아있는 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고 구속당한다고 하여 혁명이 아무때나 저절로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직접적원인은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정치적준비에 있다. 혁명의 담당자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며 혁명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이 높은 수준의 자주의식과 혁명적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혁명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다.

혁명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을 가져야 일어난다.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을 가진다는것은 그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면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없다. 높은 자주의식은 인민대중을 혁명에로 직접 추동하는 요인이다. 인민대중은 높은 자주적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을 행동목적으로 내세우고 한몸바쳐 투쟁하게 된다. 혁명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은 또한 인민대중이 높은 혁명적능력을 갖추어야 전진하고 승리할수 있다. 물론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으로 무장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혁명이 일어나 전진할수 없다. 혁명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에 의하여 추동된다. 인민대중이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준비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담보하는 직접적요인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원인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사상이 깊이 침투되지 못한데로부터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이 높지 못하고 반혁명세력을 타승하리만큼 정치적력량, 혁명력량이 준비되지 못한데 있다.

혁명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정치적력량,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일어나 추동될수 있다.

선행한 혁명리론에서는 생산관계가 발전하는 생산력의 질곡으로 될 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면서 사회혁명의 원인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사회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는 되지만 그 모순이 있다고 하여 혁명이 반드시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혁명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이 혁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정치적력량으로 준비되였을 때에라야만 일어나고 추동되게 된다.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은 객관적조건에서가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한다. 원래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주체와 객관적조건사이의 호상관계에서 어느것이 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에서는 주체뿐아니라 객관적조건도 일정하게 작용한다. 발전된 물질기술적수단이 갖추어지는것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고 공고히 하는데서나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개조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또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이 간고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지만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국제적환경과 자연지리적조건도 혁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반혁명세력에 대한 국제반동들의 지원이 미약하거나 반혁명세력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여있는 반면에 혁명세력에 대한 국제혁명력량의 지원이 강력하고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되는것은 혁명에 유리한 환경으로 된다.

객관적조건이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불리한 조건은 그 작용을 약화시키거나 극복하며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과 건설에서 객관적요인의 작용을 무시하거나 홀시하면 주관주의와 모험주의에 빠질수 있으며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

객관적조건이 혁명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지만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에 있다. 혁명의 주체가 어떻게 강화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높아지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이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이 비상히 커진다는것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 혁명과 건설에 보다 광범히 조직동원되고 최대한으로 발양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리한 객관적조건이 조성되고 위력한 물질기술적수단이 마련되여있으며 외부의 지원이 강력하다고 해도 혁명이 일어나 승리할수 없다.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구속하려는 반동세력과 자주력량과의 첨예한 힘의 대결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비롯한 반동세력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혁명군대를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내세울 때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갈수 있다.

혁명은 일정한 합법칙적과정을 거쳐서 심화발전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심화발전되여나간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민족해방혁명이다. 계급의 운명, 개인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련결되여있으며 민족해방은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전제로 된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생활하고 혁명투쟁이 민족국가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낳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자체를 청산할수 없다.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민족해방혁명이 완수되면 계급해방혁명의 과업이 나선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속하여 생활하게 되며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날수 없게 하는 주되는 장애물로 된다. 인민대중이 계급해방을 실현하여 계급적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는것은 낡은 사상과 문화,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기 위한 전제이다.

혁명에서 계급해방의 과업이 수행된 다음에는 인간해방의 과업이 나선다. 민족해방, 계급해방위업의 실현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이 실현된 다음에도 인간해방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행한 혁명리론에서는 민족해방문제를 독자적인 과업으로 보지 않았으며 인간해방문제를 계급해방에만 귀착시키고 계급해방이 실현된 다음 인간해방혁명의 과업이 련이어 나서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하였다.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은 주체철학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혁명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사회정치적생명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생명이라는것으로서 주체철학의 기본개념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집니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게 되는것은 사람이 단순한 생물유기체가 아니라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생물학적견지에서 보면 사람도 다른 동식물과 다름없는 생물유기체이다. 사람은 생명물질의 오랜 진화과정에 생겨났으며 다른 생명체들이 다 그러한것처럼 생물학적인 물질대사를 통하여 자기의 육체를 보존해나간다. 이것은 사람도 생물유기체의 하나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생명만 가지고 사는 단순한 생물학적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것으로 하여 다른 모든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자체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적속성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존재라는것은 사람이 생명물질을 비롯한 온갖 자연적존재들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으로 되며 사람은 바로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사람밖의 그 어떤 존재도 가질수 없는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이다. 세계에서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다른 생명물질들은 생물학적본능에 기초한 개체적 또는 무리적활동으로 생존을 유지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나간다. 사회적활동은 사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생명이다.

이처럼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가지는 생명을 표현하는 철학적개념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구현하고있는 생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구현하고있는 생명이라는것은 그것이 사회적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반영하고있으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지니고 빛내여지는 생명이라는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고유한 본질적특성을 반영하고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그것을 떠나서 사람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만일 사람에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없다면 생물유기체밖에 남을것이 없게 되며 생물학적존재로 되고만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사회정치적생명이 사람을 동물을 비롯한 이여의 다른 존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고유한 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반영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과정에 지니고 빛나게 된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주위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여나가는 사람의 활동을 통하여 표현된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며 그것으로 하여 주위환경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살아나가는 동물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의 발현과정,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활동과정에서만 지니게 되고 유지되게 되며 빛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구현하고있는 생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두 생명, 육체적생명과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는것으

로 하여 어느 생명이 더 귀중한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육체적생명과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같이 귀중한 생명이지만 그 가치와 귀중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다. 사람은 육체적생명이 있어야 사회정치적생명도 지니고 사회정치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보다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생명이기때문이다.

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가 못사는가 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의하여 평가된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것만큼 그 존엄과 가치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요구나 충족시키면서 동물처럼 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는데 있다. 비록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능적인 생물학적욕망을 충족시키는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존엄과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구현하고있는 생명인것만큼 사람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녀야 한다. 인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며 사람의 생명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구현한 생명,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오직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있게 살기 위한 물질적담보로서만 가치를 가진다. 만약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하든가 또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같다.

결국 사회정치적생명에 의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결정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제일생명으로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는 사회적집단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혈연적관계를 통하여 타고난다. 육체적생명은 부모에 의하여 주어지고 인간유기체의 생리적기능인 신진대사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러나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타고나는것이 아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와 집단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집단이 주는 생명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집단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그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만이 지니게 된다.

사회적집단이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되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닐수 있고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이며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었다. 사회적집단을 떠나서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집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실현하고 집단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할 때 그로부터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일수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집단의 성원이라고 하여 누구나 저절로 지니게 되는것은 아니다.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진행되는것만큼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의 위력한 무기인 사회적집단의 발전에 기여할 때 집단으로부터 받아안게 되고 빛나게 된다. 사회와 집단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집단의 리익과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집단이 주는 생명이라고 하여 어떤 사회적집단이나 다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반영하고있는 생명인것만큼 오직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체현한 사회적집단만이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줄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회적인간의 제일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사회적집단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회적집단인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되게 된다. 결국 사람은 인민대중의 한 성원이 되여 그와 운명을 같이할 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지주, 자본가계급이나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 국가와 같은 반동적인 사회적집단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될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한것처럼 사람의 육체적생명에도 한계가 있다.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에 한계가 있는것은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육체적생명은 개인의 육체가 죽게 되면 끊어지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원하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영생하게 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인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이 영원히 존재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을 이루는 사회적집단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류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집단이며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받아안은 개인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인민대중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맞는것이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숭고한 위업수행에

기여하는것으로 되였을 때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원히 살아 빛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생명으로 된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수령으로부터 받아안고 수령의 손길아래서 빛내여나가게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의 어버이는 수령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합된 사회정치적집단,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이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된다.

그런데 사회정치적집단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게 된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수령, 당, 군대와 인민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그러므로 수령을 떠나서 사회정치적집단의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이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이고 수령을 떠나서 사회정치적집단의 존재와 발전, 그 생명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므로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서는 결국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주는것으로 되며 이로부터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의 어버이로 되는것이다.

수령은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줄뿐아니라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준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집단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에서 빛나게 되는 생명이다.

그런데 수령, 당, 군대와 인민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집단의 요구와 리익은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가장 정확히 제기되며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수령의 사상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집단으로 통일단결시키는 생명선이며 수령의 령도는 이러한 사회정치적집단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집단으로 결합될수 있는 사상정신적 기초가 마련되며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그것은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을 지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사회정치적집단으로 강화발전되여 나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을 때라야 사회정치적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내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가장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수령에게서 받아안게 되며 수령의 손길아래서 빛내여나가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수령으로부터 받아안게 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정치적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게 되는 생명이지만 그 수준과 높이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꼭 같은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이 다르고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의 사상정신적준비정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게 되는것만큼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정치적생명도 그 높이에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의 높이는 사람의 자주성실현에 어느만큼 기여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과정에 지니게 되는 생명으로서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어떤 수준에서 반영하고있고 그 실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지게 된다.

수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사회주의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 인간자신을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며 그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혁명투쟁이다. 사회주의위업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과 사상문화적조건이 원만히 마련된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가 가장 높은 경지에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안겨주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인간이 지니게 되는 사회정치적생명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로 된다.

력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문제는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에 의하여 론의되였지만 생물학적존재들과 다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흔히 육체적생명만으로 리해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키레네학파의 창시자인 아리스티포스는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철학을 내놓은 소크라테스의 종교적이며 관념론적인 인생륜리사상을 쾌락주의적견지에서 개악하여 감각적쾌락을 얻는것이 인간의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목적이며 그와 같은 쾌락의 총화로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밑바탕에는 사람을 순전히 육체적생명만으로 보는 견해가 깔려있었다. 근대 영국유물론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홉스는 생명이란 사지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해석을 들고나왔는데 이것도 사람을 육체적생명만을 가진 생물학적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한마디로 지난 시기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리해들은 대체로 생물학적리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인간생명의 생물학적측면보다 사회적측면을 더 중시하고 그 가치도 사회적견지에서 고찰하려는 선진적인 견

해들도 있었다.

2 000여년간 존재하면서 카톨릭교의 《신창세》설의 초석을 이루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중심》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끝까지 주장한것으로 하여 종교재판에 의해 화형당한 죠르다노 브루노는 《불은 나를 정복하지 못할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나를 리해할것이며 나의 가치를 알게 될것이다.》고 선언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를 단순히 육체적생명의 길고짧음으로 볼수 없다는 견해가 놓여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들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과학적리해에 기초한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과 인류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은 후세에도 그 이름이 전해진다는 리해의 정도에서 제기된것들이였다.

맑스주의에서는 사람을 사회적관계속에서 고찰하였지만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밝히지 못하였던것으로 하여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엥겔스가 생명을 단백체의 존재방식으로 규정한것은 생명현상에 대한 관념론적, 신비주의적견해를 타파하고 유물론적리해를 세우기 위한것으로서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견해는 아니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한 과학적리해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이 중요한 철학적개념의 하나로 정립되였으며 과학적인생관의 원리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철학의 기본개념과 범주

집필 박사, 부교수 **최순옥**, **김광일**, 박사, 부교수 **류제일**, **서성일**, **리광삼**
심사 원사, 교수, 박사 **김화종**, 박사, 부교수 **전하철**
편집 **리만렬** 장정 및 편성 **김기성** 교정 **정금희**